

제426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4일(화)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1.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이 국무총리후보자가 출석하신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이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교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현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배준영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위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희정 위원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다음,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입니다.

먼저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실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중요한 직책입니다. 오늘 회의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을 보좌할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서 향후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쉬운 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여 출석하게 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아홉 차례 실시되었지만 이번 청문회와 같이 증인·참고인 채택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하여 후보자 검증에 미흡함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하여 청문 일정을 다소 촉박하게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후보자 및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청문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실 것, 부득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답변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직접 소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자료 요구 중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후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외화 송금 내역 등은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부분을 소명할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진심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셔서 국민을 대신하여 질문하시는 청문위원님들의 질의가 내실을 갖추 수 있게 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후보자 및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아직 자료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서둘러 제출해 주시고 자료 요구에 답변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직접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청문위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후보자 인사 검증의 책무를 맡은 만큼 각 위원들의 법정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문위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어떠한 형

태의 공격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재발 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청문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총리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무총리로서의 국정 통할 능력과 후보자가 계층과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민석 총리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정부 부처로부터 공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재난상황실도 방문하시는 등 총리로서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당부 사항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10분)

○위원장 이종배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국무총리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께서는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하시면서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쌓으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가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공직후보자 김민석

○위원장 이종배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총리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과 큰 기대와 관심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겨울 한파와 눈보라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총리로 지명된 이후 지난 20여 일 동안 한편으로는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준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가 어떤 방향과 속도로 일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정책 청문회를 준비하는 성의 있는 태도라고 믿고 쉽게 학습에 임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면서 제 정책적 비전과 구상도 함께 점검받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복합경제위기,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과 정책 신뢰 회복, 사회갈등 완화 등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슈퍼 복합 네트워크 상황 속에서 IMF 상황 때보다 더 힘든 총체적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출범 2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한 정부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대통령님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손상됐던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 회복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의 힘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특히 새 총리와 장관이 임명되

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정부의 조속한 안정과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 여러분!

저는 과거 IMF 위기 시절 정부의 비대위 대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경제정책을 다루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도자의 고뇌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정 전반의 정책 현안을 많은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풀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안정적 정착과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탬 기회를 주실 것을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은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가의 정치와 행정을 이끄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여 내각을 이끄는 대국민 참모장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간하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고자 힘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의 방향 또한 제대로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100일 동안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살림을 살피고 경기의 활로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고물가와 불경기로 어려워진 민생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의 실체와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력한 규제 혁신, 과감한 투자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청문회는 저 한 사람에 대한 자격 검증이자 동시에 새 정부가 국민 앞에 제대로 서

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국민은 지금 빠르고 유능한 정부, 소통하고 책임지는 정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국가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정부 안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곁에서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사 말씀의 정신을 따라 저 역시 모두의 총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저의 각오와 함께 특위 위원님들의 검증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제언을 임기 내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늘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순서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 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유감입니다.

2000년부터 총리 청문회가 시작되었는데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관계가 있는 딱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 정보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는 83개 기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합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3일 이내의 기간을 2일로 하는 대신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위원장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 보입니까?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딱 1명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루는 의혹도 오늘과 매우 닮았습니다. 검찰 고발도 당했습니다. 부실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악화되어 후보자는 결국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오늘도 이쯤 되면 지난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처럼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 저희가 참석한 것은 후보자에게 위원장님께서 직접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개인정

보 동의서를 오늘 오전 중에 모두 사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다짐을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서는 이행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법무부에 갔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했습니다마는……

○**김현 위원** 질의하는 거잖아요.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배준영 위원** 우리 국무총리후보자는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인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합니다.

○**김현 위원**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알았어요.

○**배준영 위원** 후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님!

○**배준영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발언권 받고 이야기하세요. 발언권 받고 얘기하시라고요.

○**김현 위원** 곽규택 위원은 간사가 아니니까 조용히 하세요.

○**배준영 위원** 5억을 벌었는데 14억 원을 썼다면 나머지 8억에 대해 자료로써 설명하면 됩니다.

자녀의 특혜 논란은 대학교 입시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히 설명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자료 요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아니, 의사진행도 중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여야에게 균형 있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면……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3분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저희 간사가 자료제출 동의서에……

○**김현 위원** 김희정 위원님, 저 발언권 받았습시다. 발언권 신청하시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김희정 위원** 저희 간사님이, 자료제출 동의요구서에 동그라미 해 달라고 해야지 오늘 오후까지라도 자료가 도착하니까 후보자로부터 그것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배** 후보자님, 배준영 간사께서 요구를 하는데 그 자료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가 안 돼서 자료를 못 받고 있다 그랬는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 제출해 주시기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게 마이크가 되는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종배** 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전례

와 규정에 따라서 과거 한덕수 총리후보자나 황교안 총리후보자 또는 이완구·정홍원 총리후보자들께서 본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자료를 안 내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제 자료제출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어저께 밤늦게까지도 동의가 돼서 자료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자료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자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다음……

○곽규택 위원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위원장 이종배 의사진행?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이종배 의사진행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을 신청한 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모두발언 중에 증인 채택 과정을 마치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의 오늘 첫 말씀에 이후 이틀 동안 진행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림과 아울러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실은 18일 날 저희가 오늘,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도 의결했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18일 날 양측이 애초에 위원들로부터 받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서로 교환했고 야당 측이 요청한 증인·참고인 명단 중에 대강 한 5명가량을 가능하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9일 날 세 차례 통화를 하면서 3명의 증인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20일 날 만났을 때는 그동안 논의되던 증인 중에 4명을 갈아엎고 3명을 추가해 달라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요구는 저는 들은 바가 없다는 점을 위원장에게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날 5시에 다시 한번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결렬이 최종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민주주의 최고의 마지막 수단인 표결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위원장님께서 협상이 안 되면 결렬된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오늘 청문회가 개최된 겁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 투표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겠다는 게 위원장님의 입장이고 저는 그 부분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참고인 없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과 정책 검증이 하게 된 이 인사청문회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보고드림과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이 마치 여당의 책임인 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수상한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배준영 간사의 자료 요청하면서 하신 말씀은, 증인·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후의 청문 과정에서 지양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진행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피의자인 양, 수사가 착수한 것인 양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배당된 것입니다. 수사가 착수된 것이 아님을 언론도 각별히 유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함에 있어서 편파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본 위원장의 발언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광규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흔히 세금 안 내려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제대로 교환 안 하면서 거래하는 것을 무자료거래라고 그러지요.

총리님, 무자료 총리 되면 안 되겠지요?

○전용기 위원 대답할 이유가 없지요.

○채현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광규택 위원 자료제출 요청이에요.

○김현 위원 자료제출을 총리한테 하는 건 아니지요.

○전용기 위원 자료제출 요청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광규택 위원 지금 여러 의혹 제기 중에서 차용증 주고받았던 2018년도의 1억 4000만 원 돈거래, 그 부분에 있어서 7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것이 정치자금 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총리 지명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용증에서 나온 1000만 원 상당의 빌린 돈을 입금받은 내역 그리고 변제를 했으면 상환한 계좌 내역 그리고 그것을 대출받아 가지고 또 상환했다 했으니까 대출받은 내역, 이 내역은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친 소유의 한강빌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기에 후보자의 지인이 세를 들어왔다가 한 두 달 만에 나가고 지금의 현 배우자가 세입자로 들어왔다가 현 배우자의 모친이—장모가 되시겠지요—또 세입자로 들어옵니다. 이 짧은 시기에 이렇게 반복적인 전세가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광규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전세계약서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반환 내역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내역을 확인하면 충분히 소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증인 신청을 했더니 강 모 씨, 이 모 씨 핵심 증인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증인이 안 나온다면 계좌로써 서로 송금을 주고받은 그 내역이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본인의 변명에 대한 계좌 내역까지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박선원 위원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변명이란 말이에요?

○곽규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좌 내역 반드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때는 소양 좀 가지시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변명이란니요? 무자료라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박선원 위원님,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시간이 3분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설명, 왜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설명하는 정도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양해를 해 왔던 게 관례니까 거기에 좀 듣기 거북한 얘기 있어도 그런 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은 그 자료 요구에 집중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공히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질의하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근거에 의해서 청문이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모여서 의결한 자료 중에 상당수가 도착하지 않았고 25%만 도착을 했습니다만 도착했다고 카운팅되는 4분의 1 자료도 사실이 아닌 자료가 오거나 또는 불성실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엄연히 불법정치자금 관련해서 전과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판결이 났고 그러면 추정금을 왜 냈고 그리고 왜 실형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전과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산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개 확인을 할 게 있어서 본인이 살았거나 하는 그런 계약 조건에 대해서 시범아파트 임대차 계약 조건이 어땠나 그다음에 상가 계약은 파기한 것이냐 재임대를 준 거냐, 본인이 다 본인 재산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가 계약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이 오고 이것도 답을 한 걸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제공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언론 등을 통해서 모친의 한강빌라 전세 관련해서 이중·삼중 계약이 있었는지, 제대로 실제로 돈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거래 내역이나 증빙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어떻게 답이 왔냐면 ‘통장 거래 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와서 어떤 자료도 소명하지 않고 그냥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로 답이 오고 있습니다.

재산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실제 홍보물이나 경력에 내가 외국에서 이런 학교를 다녔고 이런 학위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석사 지원 및 졸업 요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역시 이것도 어떻게 답이 왔냐면 ‘칭화대 법학석사 지원 및 졸업 요건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 학교를 대신 다녔습니까? 김민석 후보 본인이 다녔을 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자기가 들은 수업명과 그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교육부와 협의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오거나 불성실로 온 증거 자료를 오늘 오전 중에라도 제출해 주십사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다음,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저는 자녀 유학비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유학자금이 송금된 내역은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녀 유학비 문제가 불거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에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의 2억 원의 자금이 드는 유학과 국제고를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재산 상태에서는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후보자 스스로 먼저 해명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 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배우자의 자금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전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있음은 물론이고 한정적으로……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전 배우자, 자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주진우 위원 코넬대 유학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박선원 위원 자료제출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 자녀·배우자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박 위원, 조용히 해요.

○박선원 위원 조용히 해!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라고.

○박선원 위원 조용히 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진우 위원 말씀 좀……

답변이 왔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환 신고 내역이 없다고 왔어요.

○김현 위원 뭐라고요?

○주진우 위원 없다고 왔습니다.

○박선원 위원 자녀, 배우자 이야기를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전 배우자님에 대해서

도?

○주진우 위원 장남에게 송금 외국환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것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김현 위원 미친 것 아니냐고요? 지금 무슨 단어를 썼냐고요, 지금.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광규택 위원,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배준영 위원 스톱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이종배 계속하세요.

○김현 위원 광규택 위원!

○박선원 위원 각 위원들한테 3분씩 발언을……

○주진우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떠들고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김현 위원 떠들고 있다니, 전에 무슨 말 했느냐고요.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현 간사님, 지금 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해 주시고.

○김현 위원 지금 발언, 막말을 했어요.

○박선원 위원 거기는 몇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준영 위원 파행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김현 위원 미친 거 아니냐고 발언했어요.

○위원장 이종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혼잣말한 거예요.

○김현 위원 혼잣말 들렸어요.

광규택 위원이 무슨 말 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계속하세요.

○주진우 위원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간사님, 제가 하고 나서 말씀하시면 안 되겠어요?

○김현 위원 ‘미친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어요.

○위원장 이종배 발언하십시오.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현 위원 광규택 위원이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발언에 과한 발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종배 주진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주진우 위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환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코넬대 학비랑 생활비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자녀 유학을 보낼 때 당연히 외국환 신고 내역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에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게 지금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일종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형태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는 부부가 반반씩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액이 다 나갔다고 하는데 자금원은 실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예전의 종전 판결에 있어서도 후보자가 강신성 씨로부터 유학 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삼자가 유학 자금을 낸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적 의혹이 해소 되는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이 숫자는 프라이버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프라이버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좌번호 이런 것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자녀 얘기하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주진우 위원 그게 왜 인권침해입니까?

○박선원 위원 프라이버시 침해라고요.

○주진우 위원 그게 왜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위원장 이종배 발언 마쳤습니까?

○김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전의 광규택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위원장 이종배 정식 발언은 아닌데……

○김현 위원 그게 들렸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광규택 위원 사과할게요.

○김현 위원 정식으로 마이크 켜고 사과받으세요.

○광규택 위원 예, 사과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사과하는 시간만 하십시오, 자료 요구는 안 하고.

○위원장 이종배 자료 요구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

전용기 위원님, 자료 요구요?

○전용기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은 좀 이따 하고 자료 요구 있으면 자료 요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예.

○위원장 이종배 자료 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박선원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 있어요.

○위원장 이종배 자료 요구입니까?

○박선원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75%가 제출 안 됐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 자료 요구입니까?

○박선원 위원 예, 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종배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숫자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033건 요구에 제출 543건, 일부 제출 565건 합치면 1108건 제출했잖아요.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 잠깐만요.

○박선원 위원 그런데 왜 75%가 제출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전용기 위원 아까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한 분만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자료 요구를 받아 주셨으면 이것은 받아 주셔야지요.

○채현일 위원 숫자를 제한하십니까, 그렇게?

○위원장 이종배 그 전에 후보자께서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가 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제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련 기관에서도 자료제출을 못 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이 요구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목록을 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신고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여기는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물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자료도 있겠지만 무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제출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문회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 또 후보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 또 차마 물어보기도 민망한 전 배우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 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겁박하고,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입니까? 망신 주기, 흠집 내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의하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요구할 수 있고요. 뒤집어 말하면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자료 요구라도 제출하기 곤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입니다. 금융 정보, 수사·재판 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지금 국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련 없는 자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까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지를 해 주시고 또 후보자가 성실하게 또 공정하게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저도……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지금 빨리 회의를 진행해야지 되는 상황이니깐 같은 얘기면……

○전용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짧게 하시지요. 3분이라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똑바로 안 왔다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위 논문, 장학금 수령 내역, 출입국 내역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 어떻게 들었는지 갖고 와 달라라고 하는데, 청화대가 가짜로 졸업증명서를 내 줬다는 겁니까?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증인·참고인과 관련해서는 시간 관리 잘 못했잖아요. 저는 18일 날 의결 안 되는 거 보고 20일 날은 의결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전처를 넣니 빠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들을 끼워 넣고 빼고 하면서 서로 협상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일 날, 마지노선인 20일 날 5시에 마지막 협상을 한다? 이거 6시 넘으면 일몰이 지나 가지고 증인을 부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애초에 증인을 부를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그 상황이 관리가 안 돼서 증인을 못 부른 것을 여당이 잘못해서 못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금 6억을 집에다 쟁여 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어 놓고 잔상을 남겨 놓는 발언입니다. 뻔히 경조사, 출판기념회가 다른 해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요, 그것은.

○전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거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추징금 내고 그때그때 소진한 거 알면서도……

○배준영 위원 의사에 관련된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전용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경조사나 출판기념회가 다른 연도에 있었던 걸 알면서도 현금 6억을 집에 쟁여 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을……

○김희정 위원 본인이 후보입니까? 후보가 해야 될 얘기 대신하지 마시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요. 인사 검증 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위원장 이종배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 6억을 쟁여 났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그 검사가 뛰기 위해서 사건을 키워 가지고 선입견 가지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현금 출처, 아들 문제 이런 얘기 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신상털이만 하고 있는 게 정상적입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편파적이지 않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전용기 위원님, 제가 3분 쫓아도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3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김현 위원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그날 마지막 날 2시에 양 간사님들이 제 방에 모여서 최종 협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협상이 잘 안 돼서 5시까지 각 당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본 위원장이 전화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2시쯤 미리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이제 회의 진행해야 되니까 양당에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하고 한정에 위원님,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이미 후보자 수입·지출 내역이라든지 또는 자녀 유학 해외송금 내역 이런 것들 아직 다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거의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했던 얘기를 거의 무시하시고 다시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출이 어렵다라고 하면 열람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까지를 했는데요.

지금 되게 비슷한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질의할 때 오히려 후보자에게 묻고 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정리했던 것도 자당의 위원님들께서 존중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도대체 인사청문회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틀 동안 하겠다고 하는 의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김에 어쨌든 자료제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으니 후보자의 얘기를 한번 듣고 정리하고 본 인사청문회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위원들이 마치 무리한 자료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의결로, 우리 특위 이름으로 자료제출 요구 건이 전달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인 위원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위원장님 이름으로 위원회 의결로 제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이 자리에서 후보에게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법무부에서 본인 제공 동의를 할 때 본인 국적 변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동의하겠다고 동그라미를 쳐 놓고서 출입국 기록은 개인정보 제출 동의할 수 없다고 엑스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처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다르게 개인정보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출입국 기록이 안 되니까 국적이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도 저희가 크로스로 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도 본인이 역시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고……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왜 같은 발언을 두 번 세 번 할 기회를 주십니까? 아까 3분 드렸는데 왜 또 그렇습니까?

○김희정 위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면 우리가 오전 질의를 할 동안에 그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곳에서 자료 준비를 해 오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개인정보 동의는 동의 사항이에요.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강요하고 압박합니까?

○위원장 이종배 박선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발언할 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왜 같은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씩 하시냐고요.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항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위원장 진행을 방해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박선원 위원 방해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발언 도중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방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고 또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광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기로 한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전용기 위원 사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광규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규택 위원 발언은 저는 못 들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 발언할 때 발언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사과든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민주당의 박선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끼어드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전에 주진우 위원 그리고 저, 김희정 위원 자료제출 요청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해 가지고 계속 떠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박선원 위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또 오후 1차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이후 보충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지명 소식을 들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이만한 책임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을 해 왔습니다. 또 청년 정치인이 되어서는 참신한 이미지와 국민적인 인기 이걸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탄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중간에 인고의 세월을 상당 기간 겪기도 했지만 내공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들을 많이들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이 된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경고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에서 온 정치인이라는 그런 호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는 내란정권을 축출하고 지금의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앞장을 서 오셨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이 유명한 문구를 저는 누가 했나 싶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후보자께서 만든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출처를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시각으로 서민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총리 책임자로서 요건을 잘 갖추셨고 그리고 산적인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하루빨리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늘 정책질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쌓여 있는 민주주의 회복 또 민생 회복의 이런 과제들을 생각하면 정책질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의 자료 요구 과정,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도 봤듯이 후

보자의 도덕성·인격을 흠집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공식적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더라는 이유로, 몇 억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이것 가지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청문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한번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우선 큰 틀에서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사명감을 갖고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수입, 공식적 수입이라고 하면 세비 수입이 되겠지요. 세비 수입 이외에 지출이 더 많다 하는 부분은 이후에 관심 있고 궁금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그리고 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의 수입을 구성했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액의 현금을 쌓아 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서 조금조금씩 되고 그때그때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각각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에서 모여진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배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사들에 비추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본바 다 감사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사전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 정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평가 한마디로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서면답변에서 후보자는 ‘반면교사로 삼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하다가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으로 답변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이 싫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직위에 걸맞은 책임감 그리고 또 품위가 없었습니다. 민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했고 또 불법 비상계엄 등의 수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은 제가 총리 지명받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가장 문제 제기했던 대목은 우리 국운이 걸려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책임을 다해야 될 입장에서의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정치 행보에 주력했던 것을 저는 가장 아쉬

운 대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내란의 위중한 그 시기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또 하지 말았어야 할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직무대행 권한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현재의 제지를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행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태에서의 직무대행의 가장 큰 의무는 헌법의 준수라고 봅니다. 헌법을 과연 준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계신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시간이 돼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박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총리후보자님, 우선 국무총리에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의문 사항은 추후에 더 여쭙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에 임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보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국무총리를 일인지하 만인지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은 조금 권위주의적인 냄새도 나고 옛날의 진부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이라는 면에서 위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밑으로는 행정의 모든 부와 또 국민께 책임을 지는 자리다 하는 면에서 이해한다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책임감을 느끼지만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은 존경하는 광 위원님이 느끼시는 대로 시대에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아마 국가 의전 순위를 대통령의 다음으로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을 두고 국무총리를 둔 이유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보아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총리후보자께서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하신 적도 있고요 또 부산시장 출마하신 적도 있어요. 내년 6월 달, 1년 뒤가 정확하게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로 지명되신 다음에, 여러 분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국무총리라는 그 직을 무겁게 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인 출신의 총리 지명자라면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광규택 위원** 지금 국무총리가 되시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

시지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 업무량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은 겸직하기 힘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국무총리로서의 급여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세비 같이 받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통상적인 원리상 양 직을 겸하게 됐을 경우에 주로 임하고 있는 직 또는 액수가 더 많은 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한쪽만 받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곽규택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으로 또 후원금 모금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리로 있는 동안에 후원금 모금은 계속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지금 보좌진이 많으시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 국무총리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겸하게는 돼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거의 어렵다고 보이는데 보좌진은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주신 그 질문이 국회의원직을 겸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그와 관련된 보좌진의 유지 등등과 관련한 판단을 여쭙보시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헌법과 법률 또 그에 의거한 국회의 다른 판단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충분히 따르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보고 대한민국국회가 만들어지고 국무총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오늘 현재까지 겸직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틀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절제할 것을 절제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총리후보자님께 여쭙보겠는데 그전에 국무총리로서 국회의원직을 겸했던 분이 이완구 국무총리 계시고 정세균 국무총리 계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겸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총리후보자께서 그렇게 총리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이런 걸 느끼신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은 사임하시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하겠다 이런 결심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총리후보자로 지명되면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군 복무는 마쳤는지 또 전과 관계는 어떤지, 정치인 출신이면 그동안 정치 이력은 어떤지 또 불명확한 소득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군 복무라든지 전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도덕 기준이 그냥 흐지부지해 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숫자로 한번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후보자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과 관계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4범이고 김민석 후보도 전과 4범이에요. 물론 전과의 내용 면에서는 좀 달라요. 그렇고, 정치를 하시면서 굉장히 여기저기를 막 다니셨어요. 양천, 영등포, 부산까지 그렇게 이동하신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득은 지금 총리후보자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5년

간 소득신고액에 비해서 한 8억 정도를 세비 외의 소득원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하신 그 금액입니다, 8억 원.

그리고 그 8억 원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합계액이 2억 원, 7억 2000만 원 합쳐서 9억 2000 정도였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면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해 가지고 거기에 증여세가 또 부과가 되지요. 증여세가 또 억대의 증여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숫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예,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 그림표를 통해서 보여 주신 중에 소득과 관련한 등등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바로 그것을 궁금해해서 여쭙보시고 답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치 과정에서의 당적 관련한 문제 또는 과거 전과의 구성에 관한 문제 또는 군복무의 문제 등등은 군복무가 민주화 운동 때문이나, 그것을 포함한 것이나, 수형 생활 때문에 군을 못 갔는가 또는 통상 정치에서 문제되는 군의 적절치 않은 방식에 의한 회피 이런 것에 의한 것이나 등등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여쭙봐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답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중에 다른 부분은 실제로는 연동돼서 표현하는 것도 또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그다지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관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한정애 위원님, 짧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한정애 위원 제가 원래 길게 잘 안 합니다.

저희가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내를 가지고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님을 여기에 끌어다 넣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인사청문 대상인 것도 아닌데 그걸 끌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또 국민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호를 잘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예우와 존중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 잘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님, 그간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삶의 역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이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국무총리후보자의 삶의 역정을 되새겨 보면서 어제저녁에 성경책을 봤습니다. 봤더니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총리후보자께서 그 엄청난 역경을 이기면서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후보자는 숭실고 졸업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박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성가대의 합창단도 하시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기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그 힘든 시간 10여 년, 20여 년을 정말 잘 단단하게 뚫고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아까 박균택 위원님 말씀대로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 신념이자 정치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스스로의 경험, 어떤 뼈저린 체험 속에서 나온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이재명 정부 또 그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의 책임과 역할은 실로 크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마치 방금 대통령님의 병역 문제나 이런 것을 끼워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것, 정말 무슨 대선 불복도 아니고……

또 요새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나 그 진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을 때 비록 대선은 졌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선에 지니 대선 불복의 마음으로 이 정부가 정말 잘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그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11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셨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 하는 그런 개념, 그런 비전과 콘셉트가 상당히 살아난, 두드러지는 그러한 장관 임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총리께서, 총리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정권의 그 모든 분야에 걸친 그러한 악폐와 부정적 여파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총리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번 장관 임명의 성격 그리고 우리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그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우선 아까 앞선 위원님 질의에서 있었던 제가 군에 가지 못했던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때문에 근 3년 정도 감옥에 갇던 것,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다시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인 배경상, 제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상 기독교적 배경과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특정한 종교라기보다 사회의 많은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각 종

교의 뜻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일부 내각 예정자들에 대한 것을 보면 첫째는 인사 원칙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실력 위주로 하겠다라는 것이 드러난, 대통령실 구성 등을 포함해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서 기업에서의 경험을 쌓은 분들을 가급적 중시하면서 그분들이 내각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인물을 널리 찾아 오신 것을 제가 직접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함께 활동하시던 의원님들도 다수 참여하시게 됐는데 그것은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정부의 성격상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잘하더라 이런 평가와 경험에 기초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민공모제라는 방식을 이번에 제기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어떻게든 정치는 국민이 한다라는 철학에 입각해서 내각도 구성해 가려는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민노총 출신의 노동부장관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도 이것이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험을 중시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진보적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그러한 균형 감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게 경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처에 대해서 과감하게 능력 위주의 새로운 인선을 하면서도 동시에 외교·국방·통일은 매우 원숙한 경지에 이른 분을 내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평가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이 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김현 위원 언급한 적 없어요. 거론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종배 예, 짧게 하세요.

○주진우 위원 아니, 급성간염이라는 표현 안 했습니까?

○김현 위원 위원장님, 거론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종배 가만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주진우 위원 급성간염이라는 표현 안 했어요?

○김현 위원 급성간염이 누구인데요?

○위원장 이종배 그러니까 얘기 들어 보시고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국민들이 모르는 걸 본인이 자백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왜……」 하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금 댓글이나 내용들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

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유학 비용을 얘기할 때도 다만 유학 비용의 자금 출처가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박선원 위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김현 위원 몰라요. 몰랐어요.

○주진우 위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원 위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배준영 위원 발언 들으세요.

○주진우 위원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것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질병 앓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기본적인 국회의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채현일 위원 아무도 몰랐어요.

○주진우 위원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것 몰랐어요?

○김현 위원 예.

○주진우 위원 박선원 위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지요? 아닙니까?

○박선원 위원 말할 수 없어요.

○김희정 위원 사과하십시오.

○주진우 위원 알아봐서 이것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선원 위원 왜 남의 발언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민석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사과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사과하세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 하십시오.

○주진우 위원 내용 알고 얘기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 이종배 간사님 조용히 하시고요.

박선원 위원님, 본인이 우리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진우 위원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

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박선원 위원 손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배준영 위원 사과하세요.

○주진우 위원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박선원 위원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제 치료 내역 압니까?

○박선원 위원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종배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국정 비전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세요.

○주진우 위원 저는 아직 질의 시작도 안 했어요.

○위원장 이종배 박선원 위원님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고요.

○주진우 위원 저 법적조치 할 겁니다. 나가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이종배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 30초만……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김현 위원 아니, 신상발언……

○배준영 위원 그만하세요.

○주진우 위원 정도껏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배 신상발언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여기 국회와 정부는 분명히 역할들이 다르고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실제 몇 가지의 국정철학이나 헌법 수호 의지는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내란 이후에 지금 새롭게 정부가 수립되고 그 내란 이후에 구성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과연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있는가. 앞으로 어떤 국무위원이든 간에 이것에 대해 답변을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하나씩하나씩 좀 여쭙보겠습니다.

실제 지난번 12월 13일 제가 대정부질문 하면서 내각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 내란을 내란이라고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이렇게 철학이 없고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습니까? 다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제대로 사퇴한 사람이 없

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대정부질문 하면서 자료를 좀 뒤져 보니까, 페루 이야기입니다, 2022년 페루. 거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이 친위 쿠데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래서 일부는 사퇴하기도 하고 또 부통령은 즉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한 두 시간 만에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 뒤로 헌법학자들에게 회자가 되고 제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덕수 총리나 많은 장관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면 당시에 수사기관도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막을 거냐, 그런 사람들로 국무위원들이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10일 자 조선일보 단독기사입니다,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한 달 열심히 수사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 제기가 그 뒤로 한 일주일 됐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 당시에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완전히 흐지부지됐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 특수본부는 제대로 했느냐?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 앞 페이지 화면 보시면 비화폰 사용자들, 그 당시에 대통령실 또는 경호실 그리고 정부의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비화폰 사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수사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확보했던 것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려고 한 생각이 있었는가.

언론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에 대해서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런 사항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언론을 단전·단수한다는 발상을 도대체 할 수 있었는가.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검찰발 단독보도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윤건영 의원이 이것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소방청, 그 소방청 위에 있는 행안부는 어떻게 됐는가.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12월 3일 그날 밤 뭘 했는가도 의혹이 있어서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지만 12월 5일 비상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의전비서관인가 부속실장인가 누구인가 와서 서명하라고 해서 그날 한덕수, 김용현 서명하고 그리고 그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서명하고, 그리고 나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과정에서 내란을 사실상 사후에 합법화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확보하고 했으니 지난 수개월 동안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됐겠는가. 그래서 내란특검 발족됐지만 많은 증거 확보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협조해야 된다. 증거 제출할 것 제대로 제출해야 되고 이것 분명히 혐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내란특검이…… 증거를 숨기거나 이런 자세는, 정부가 그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보시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면 모든 공무원들, 공직자들을 다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조성현이든 또는 윤비나 실장이든 류혁 감찰관이든 자기 나름대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 거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내란 가담자고 어떤 사람은 내란을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부적으로 충분한 기준을 갖고 잘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란 가담자, 드러나지 않은 내란 가담자, 정부의 어디 누구든 간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해야 된다. 내란 가담자는 범죄자입니다. 내란 가담자를 정리 못 하면 지금 새로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란을 비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비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실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방관했던 사람들, 방조했던 사람들—다시 그 사람들이 공직을 하면 또 내란, 어떤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면 나라가 무너져도 뭐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만있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직에서 다 퇴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이것 안 되면 실제 새 정부가 자기 원칙도 없이 살아갈 것이다.

저는 이게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동의합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기형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정부 그리고 빛의 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집단지성과 국민의 민주 역량이라는 시대정신의 승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군의 고위간부들 또는 사법기관의 고위직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지식인과 엘리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나 허무감을 가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철저히 내란에 대한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 저희 국민의 현실이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그러나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관점 속에서 경제에 집중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 고민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이걸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군의 간부 또는 중간간부 가운데서도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이 덜 되게 했던 분들은 사실상 기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앞으로 군이든 또는 관료가 됐든 이러한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일찍 하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다, 새 정부의 과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오후에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하시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소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서 김민석 후보님이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회계연도, 지금 25년도 우리나라 정부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김희정 위원 얼마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추계를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희정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본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김희정 위원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 국가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채무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어바웃, 저는 마지막 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쭙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한 20~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희정 위원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이걸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그래야 이번에 돈을 그냥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신성 씨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과 관련된 자료제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450만 원, 생활비 및 유학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신성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반환받을 돈이 뭐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에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강신성 씨가 주변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하는 부분에 투자하면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송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저희에게 반환할 비용을 다 반환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있다가 바로 저희에게 반환한 바가 있어서……

○김희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세금이 넘어간 자료랑 이런 거를……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잠깐만요.

반환한 바가 있어서……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

증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자료도 오지 않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반환받을 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계속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증명을 하셔야지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음으로 167번 질의 퍼 주십시오.

그런데 보면 상당히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167번 화면 내 주십시오. 강신성 씨 소유인 익스콘벤처타워 708호에 2008년, 10년, 11년에 잇따라서 주소지를 옮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까지. 공식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월세를 냈습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어떻게 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것은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아마 집을, 이곳에 주소가 없이 외국에 갔다가 잠시 왔을 때 그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아닌 다른 단체에 주소가 되어 있던 것을 저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정 위원 단체에 주소가 돼 있었던 시기가 달리 있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러면 저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

○김희정 위원 본인과 가족 주소가 등록돼 있던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러면 가족과 관련한 것이라면, 저기에 산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있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저도 그렇게 본인이 해외에 있을 때라고 해서, 해외에 있었던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가 있습니다, 저 세 번의 시기 중에서.

그런데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소만 옮겼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질문지에서. 그러면 청화대 재학 기간 중에 후보자가 거주했던 주소 전체를 내 달라고 했는데, 저기 두 번째 줄 한번 보

십시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내에 자기가 거주했다라고도 주소를 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답변 중에서 두 가지가 지금 잘못돼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에 있었던 시간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외에 있었던 기간과 겹치지 않은 기간에도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거주한 적은 없었다라고 답변 중에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온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거주했었던, 그때 중국에는 그냥 몇 번만 나갔었잖아요. 실제로 한국에 거주했던 주소를 내라고 했더니 저렇게 강신성 씨 주소를 냅니다.

사진 한번 쪽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강신성 씨 관련된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아서. 보니까 여기서도 나타나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도 보이고 그리고 강신성 씨 보이고 또 이렇게 있고, 행사 같이 다닙니다. 다른 사람 출판기념회인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사님하고도 아주 각별한 사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개인 행사에도 나타나요. 이것은 김민석 후보님 개인 결혼식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무리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강신성 씨와 제가 찍은 사진은 저 사진들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찍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질문에 거주지라는, 질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일관되게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주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소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답변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정 위원님께서 중국 말씀을 하시면서 ‘몇 번만 가셨잖아요’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화대에 실제로 몇 번만 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충분히 일수를 맞춰서 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따 그것은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거주하신 건 아니다, 그냥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곳은 거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우편물 수령을 위한 그런 정도의 장소여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정도로, 개인적인 용도의 그런 경우에 임대료를 내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희정 위원님 오후에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경기도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생 동안 집을 가져 본 적은 없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 명의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최근 재산 신고한 것 보니까 2억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꼼꼼히 보니까 그중에 1억 4800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잡힌 예금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국민으로부터 후원받으신 것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6000만 원에 불과해 보인다는 부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4선 국회의원 하면서 총리후보자가 된 분의 재산이냐고 할 정도로 의아합니다. 공직을 한 후에 로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를 통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비교되는 삶을 살아왔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의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6억 원의 출처를 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의 경조사가 있었고 두 번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그 외의 기타소득으로는 배우자가 친정으로 지원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정확한 숫자는 조금 이따가 혹시 필요하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의금, 출판기념회 각각이 한 1억~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결혼 축의금을 받았을 때 그 액수를 사실은 친정집에 다 그냥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그때, 혹은 200·300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한 5년 합쳐 보니까 그것도 한 2억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에 대해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정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월, 그러니까 세비로 받은 돈의 절반 이상씩 500~700가량을 추정금을 납부하셨습니다.

20년부터 추정금 납부 내역을 보니까 20년 빙부상 조의금과 세비 일부로 추정금을 납부하시고 조의금 중의 일부는 교회 헌금으로 내신 건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맞습니다.

○전용기 위원 21년도에 국회의원 세비로 추정금을 냈습니다. 그때는 기타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500만~700만 원을 납부해서 총 6000만 원 납부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500만 원씩 내다가 빨리 완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700만 원으로 올려서 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게 6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22년도에는 출판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 그리고 추정금을 납부하고 출판기념회 수익 일부로 또 교회에 헌금을 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출판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로 추정금을 납부하고 출판기념회 일부의 수익을 또 교회에 헌금으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한 달 만에

추징금을 갚으셨던데 어떻게 내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24년이요?

○전용기 위원 24년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24년에는 제가 대출을 해서, 그때가 선거가 있는 해여서 대출을 해서 1억 8000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일부는 선거 비용을 준비하고 나머지를 추징금 완납하는 데 썼습니다. 1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리고 그 갚는 것에, 저희가 봐서는 아파트 대출금이 사라진 것 같던데 그 부분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갚은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나중에 끝난 뒤에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다 갚아 버렸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게 해서 내신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6억을 한두 달 안에 집에 쌓아 놓고 썼다고 하는 주장과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음해성이 짙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인 간의 채무 1억 4000만 원을 올해 6월에 대출을 해서 갚았다고 하신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맞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대출을 해서 갚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명확합니다. 원래 추징금 그리고 추징금과 연동된 증가산 증여세 그다음에 사인 간 채무 이렇게 일종의 세 가지의 채무가 있었는데 순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증가산 증여세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을 제일 먼저, 그 이후에 공적 채무인 추징금 그리고 사인 간 채무의 순서로 갚으려고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갚았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다 증명이 되네요. 가족 간의 조의금까지,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추징금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돈 29만 원 있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상을 당했는데 그 조의금을 받은 것으로 추징금을 냈고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 돈으로 또 추징금을 냈고 그렇게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교회에 헌금을 냈습니다. 남편이 벌어들인 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집에 못 가져 오니까 배우자께서는 친절에다가 손을 벌려서 생활비 조로 지원을 받으신 거고 그 세비로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고 생활비 받아 온 것을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증명하라는 꼴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4000만 원 11명에게 나눠서 빌린 것, 2018년도 그때 당시 야인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증가산되고 있는 증여세를 일시에, 차용 방식을 써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소액으로 나눠서 하는 방식 외에

는 제가 신용을, 다른 어떤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용기 위원 공직자가 아니었고 사인이었는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거였으면 차용증을 쓸 일도 없었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일단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저것은 다른 불법이다 아니면 다른 제공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정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용기 위원 언론에 밝히신 것처럼 이자를 내 오다가 결국에는 완납을 했고 그분들이 오히려 이 원인을 해소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 기자회견 하겠다는데 후보자가 말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리고 추정금은 모두 완납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전용기 위원 도망간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추정금 때문에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추정금을 다 완납했기 때문에 가산세로 매긴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걸로 압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대법원 판례상 저 같은 경우에 추정금을 내고 그 같은 금액의 액수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에 원래는 다 추징을 완납하면 증여세는 환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또 나중에 누군가 시비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안 신청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소명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은 정책과 업무 역량에 대한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여러 청문위원, 선배·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정책 검증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 상황 말씀하시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님께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면 어느 규모로 또 대충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부분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지명자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중동 상황 때문에 또는 그 이후에 더 가중적인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라도 코로나에 이어서 내란까지 가중된 민생의 어려움 때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한 소비 진작, 소비 지원 또는 이후에 다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대략 20조~30조 원, 입장은 다릅시다마는 그런 논의가 있다가 최근에는 30조 원 수준으로 논의가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여러 의혹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의혹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한 가지만 지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2002년 사건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것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저를 부른 수사 검사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건데, 수사 검사는 정확하게 당시 표현하기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다 받아들였던 일이고요. 다만 서울시장 선거쯤 되는 규모를 치른 후보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규모로 행해지는 영수증 발급에 책임을 진 경우는 저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 계열의, 유사한 영수증 미발급으로 제기되었던 가운데 두 분인가가 무죄를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또 이런 영수증 처리는 사실 후원회 실무자들이 담당할 일이지 후보자 본인이 그걸 다 챙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검찰이 관련된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김민석이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의도하는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또한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저를 불렀던 수사 검사가 이야기해 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한 SK의 회장급 인물들이 우연히 만났을 때 유일하게 그간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치권 인사에게 미안한 게 저였다고 몇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 관련됐던 기업인들도 또 당시의 수사 검사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언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강하게 표명한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후 윤석열 씨 등이 관여된 정치검찰의, 어떤 핵심 라인의 일관된 정치검찰의 일종의 조작 사건의 시작이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이른바 우검회라고 해서 이 우검회에 소속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또 이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인규 검사 또 조국 사냥을 했던 윤석열 또 이재명 대통령 구속을 시도했던 한동훈 등이 다 여기에 들어

가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 조작 검사, 조작 수사들의 어떤 모임이었던 이런 검사들의 정치수사, 표적수사의 출발점, 첫 번째 희생양이 김민석 후보자님이셨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보기에 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저는 그때 변방에 이미 버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잊혀진 인물이어서 그냥 버리는 카드로 쓴 것이 아닌가, 나중에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리고 그 당시 후원금도 당에서 요청을 했고, 후보자님이 요청했던 게 아니고 당에서 요청했고 또 사용 내역도 선관위에 다 보고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중앙당이 해당 기업에 요청했고 해당 기업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그대로 선거캠프에 전달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쓴 내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당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께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제게 왜 그것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당이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황운하 위원** 검찰이 이와 같이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있는 죄를……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영등포갑 채현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총리 지명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감사합니다.

○**채현일 위원**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후보자를 향해 수많은 흠집 내기, 비난, 음해를 지켜봤습니다. 후보자의 가족과 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 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의를 호도하고 때로는 음해하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살아온 과정 그리고 삶의 궤적을 깊이 살펴보면 그 분이 어떻게, 재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떤 철학, 입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오래된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자신들의 길을 가로…… 아마 이게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데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전경들을 향해서 한 중년 여성이 꽃을 달아 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의 어머니입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 학생운동으로 여러 가지 풍파에 있었던 대학생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 지금의 총리후보자를 있게 한 김민석의 어머니 김춘옥 여사입니다. 그때 후보자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그때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없이 가족과 모두를 감당하고 지켜 주신 분이라고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들 김민석을 향해서 너무 일찍 피어 버린 탓에 행여 누가 꺾을까, 누가 짓

밟을까 서글프고 불안해했다라고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애뜻한 그리고 애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제 구십다섯이 되셨는데요. 평범한 주부셨고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구속이 되자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니시다가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민가협이라고 불려지는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그 두 단체의 초대회장이 되셨고 박종철 열사 부모님을 만나서 박종철 열사 관련한 일들을 처음에 세상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범한 어머니셨는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저 사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년 6월에 전경들에게 꽃을 달아 주시던 그 사진으로 저는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어머님 김춘옥 여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전경들한테 아들 김민석처럼 생각해서 꽃을 달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민가협을 설립해서 초대의장을 지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그 이후에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익히 아는 이한열 열사의 병상을 지키고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평범한 대학생 아들이 아까 5·18 민주화운동, 미 문화원 사건 등 이런 데 본인이 양심적인 그런 용기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어머님으로서 아들의 소위 말하는 입신양명을 바라보면서 살아 계셨을 텐데 어머니께서도 민주화운동 한복판으로 아들과 함께 평생을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아들을 위해 온몸을 던지고 민주주의에 헌신한 훌륭한 어머니를 둔 아들이로서 여러 가지 소회를 했는데요. 저는 이 가족사 또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편견이 있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총리후보의 됨됨이와 살아온 궤적을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또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후보가 여러 가지 재산 문제 얘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 물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15대·16대 국회의원 지낸 시절에 외국에서 초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차원의 외국 출장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게 꼭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때는 그랬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의원 생활 6년 동안 나랏돈 쓰는 것이 싫고 국회 차원의 경우에는 거의 한 번도 안 하고, 상당히 청렴한 그런 정치 행보를 했고요.

또 하나 놀란 게 1999년도에 상당히 과격적으로 신사복 광고, 그 당시 모델료로 거의 2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바로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더라고 요. 그것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뭐 자세히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학생 시절 민주화운동 하고 나서 투옥되고 그러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민주화 보상금. 이것도 신청하지 않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 부분은 이번 대선 때 보니까 김문수 후보께서 그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한두 분만,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김문수 후보나 한두 분만 그렇게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꽤 신청 안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저는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의원으로 충분히 명예를 누리서 제가 보상 신청까지 하는 것은 조금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했다면 한 1억 정도 이상 받았을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현일 위원 후보께 여러 가지 돈 정치니 현금 장사니 입에 담기도 힘든 비난을 하는데 지금까지 봤던 후보자의 살아온 삶의 궤적, 성품과 신념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재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훌륭한 어머니의 숭고한 사명과 가치를 물려받아서 올곧게 후보는 살아왔고요. 또 보니까 백봉신사상을 세 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결벽증 수준의 경계심을 갖고 살아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이나 금전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오해가 있고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다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순서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우선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감사합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간단한 이슈입니다. 일반 국민 관점에서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 월급의 거의 2.5배의 지출이 있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후보자님 말씀하셔서 유학 비용은 전 배우자께서 내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따져 보기로 하고, 그래도 현금 6억 정도가 비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사실관계를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단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PPT를 먼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아까 축의금은 받긴 하셨지만 다 처갓집으로 주셔서 축의금은 수익으로 안 잡혔던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축의금은 그러면 수익에서 안 잡혔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리고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13억 정도라고 말씀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아들 유학비를 계속 넣어서 말씀하셔서, 그것 말씀하시는 중에도 헛갈려서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빼면 아마 한 6억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걸 전제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예, 좋습니다. 유학비를 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6억이 남는데 축의금은 지금 하나도…… 축의금 사양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다 처갓집에 반납을 해서 사실 수익으로 잡힌 것은 없는 것이네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축의금은 사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축의금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진우 위원 실제 들어왔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숫자가, 사실은 별로 안 올 걸로 생각했는데 삼사천 명 이상이 와서 공식적인 카운터에서는 안 받았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봉투를 주고 한 것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 포함하면 근 1억 정도……

○주진우 위원 보통은 일반 국민들도 축의금을 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축의를 하기 위해서 대충은 금액을 알아 두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래서 근 1억 정도가 되는데……

○주진우 위원 1억 정도 됐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때가 국회의원 다시 되기 전이고 제가 재혼이어서 나이가 거의 제법 됐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장모님한테 드렸습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조의금 1억 5000만 원 또 출판기념회 각각 한 번에 1억 5000만 원 정도씩 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부의금이 한 1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주진우 위원 그것은 정확한 겁니까? 어쨌든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저희가 그때 대략 얼마 정도 됐다 하고 이렇게 메모 정도 해 놓은 수준이고 지나간 거여서 누구나 다 그거를…… 축의금·조의금은 온 국민이 어디다가 신고할 방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1억하고 1억 5000 해서 한 2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의금은 1억 6000이었고 출판기념회 첫 번째가 한 1억 하고 그다음에 1억 5000 정도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하여간 그 둘 중의 한 번이 1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이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그걸 합치니까 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아까 기존의 언론의 입장에서 나왔던 것보다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제가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처갓집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가 또 돈을 받은 게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2억 원 정도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러니까 아까 축의금을…… 사실 이게 참 묘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의금을 그냥 다 장모님한테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한 200, 300 이런 식으로 쪽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축의금이 그냥 여기서 갓습니다만 그거랑 상관없이 드린 거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2억 이상 된다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주진우 위원 그러면 2억이 처갓집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한테로 온 것인데 계좌로 송금이 됐습니까, 아니면 생활비로 일정액을 준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준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사실 제가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이번 과정에서 아내가 확인, 또 얘기도 해 주고 등등 보니까 그중의 상당 부분은 계좌로 받은 것도 있고요 또 그때그때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때그때 현금으로 받은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현금으로 받은 게 한…… 얼마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진우 위원 오후에 좀 확인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통장으로 받은 게 최소한 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바뀌지가 않았습시다.

○주진우 위원 처음에 이 액수가 나왔을 때 기자분들이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부의금하고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하셨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금액이 명확해지고 나서 출판기념회 얘기를 하셨고 이제는 또 다른 자금원이지요. 그러니까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은 자금이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내용들은……

○주진우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 언제 또 따로 언론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왜냐하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주진우 위원 언론에 인터뷰는 여러 번 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언론에도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렸건 안 드렸건 출판기념회 두 번과 조의·축의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제가 예시를 하건 안 하건 다 그건 공개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쭙볼게요.

다음 PPT 좀 띄워 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때 입장을 보니까 결혼할 때마다 혹은 병부상이 있을 때마다 그해 12월 31일이 재산등록일이거나 아니면 출마하셨을 경우에는 총선 출마자 재산등록 날짜거든요. 그 날짜 전에 그 현금은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후보자님의 정확한 입장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확인해 보시면 추정금 납부 날짜는 그냥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결혼 후 또 병부상 후, 출판기념회 후, 출판기념회 후 해서 다 거의 며칠 상간으로 그중의 대부분은 추정금 납부를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결혼은 19일, 뭐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병부상은 59일 만에 또 출판기념회 두 번째 것은 32일 만에 전부 다 등록을 하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후보자님, 총리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느끼는 그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은 역대 총리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하도 재산 문제가 얘기가 되길래 역대 국무총리들 재산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 봤어요.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13년간인데 정홍원 총리부터 한덕수 총리까지 해서 봤더니 평균 재산이 33억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정치자금 제외하면 사실 1억도 안 되는 재산을 갖고 계시고 그 과정에 재산이 너무 없는데 추정금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착실하게 내시는 바람에 한 번도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출판기념회·경조사 비용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는.....

사실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출판기념회 비용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묻은 기억도 없고요, 그걸 묻겠다고 생각했던 위원님들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 질문을 받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유지를 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아마 조의금이나 출판기념회 비용이 들어오고 바로, 그것이 연말에 근접해 있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추정금을 납부하시는 바람에 아마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재산 상황과 관련한 부분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추정금 납부 현황을 봤더니 저희도 날짜는 몰랐었는데 그해에 납부는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은 지금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추정금 납부일자를 알려 드리면 이것과 관련한 궁금증은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인사청문회 하면 출판기념회, 경조사비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맞습니다,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

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개 연말에 근접해서 다들 출판기념회를 하지요. 왜냐하면 특히 총선 출마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출마 예정 언제까지 출판기념회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연말 아니면 당해의 1월 정도에 거의 다 하셔서 그 전 연말에 하신 분들은 연말 재산등록 기준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다음 해 총선 출마 해에 출판기념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후보자 재산·명부 등록할 때 그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그러면 한번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조사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 경조사에도 해당이 되시고 출판기념회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안 가질 수는 없겠지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때. 그러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질의할 때는 조금은 같은 공직자로서 국회의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시다만 아빠 찬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몇 개 얘기가 되어서 자체분 관련한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코넬대에 진학하고 그것과 관련한 학업 유학비용이 아마 많이 들 텐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께서는 두 분이 헤어지시면서 당시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 전세금이지요, 그것을 전 배우자에게 전달을 하고 대신에 두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전 배우자께서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왜, 아이들이 유학까지 갔는데 비용을 정말로 하나도 보낸 게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이것은 두 분이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찌 보면 집안의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조금 존중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남의 동아리 활동인데요, 청심국제고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회장도 아니고 동아리가 표절방지위원회 동아리입니다, 표절방지위원회. 왜 이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023년인데요, 그때 당시 김건희 씨의 표절 사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녀의 논문 대필하고 해외 사이트에서의 에세이 표절 이렇게 해서 사실 중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표절 시비와 관련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학생들이 ‘이것은 조금은 윤리적인, 학습윤리 교육과정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게 그 표절방지위원회 차원에서의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국회에 전달이 되고 법상으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마음먹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적절하게 그것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어찌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스스로가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학습 과정의 문제들을 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게 잘못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빠 찬스로 둔갑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후보자님 관련해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종배 예, 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표절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활동이었고, 말씀처럼 제가 이러저러한 아빠로서의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이들과의 소통 이런 것은 비교적 하는 편이었는데 본인의 활동이었고 이른바 흔히 아빠 찬스라고 이야기하는 대학 진학의 그 활동 중에 국회와 관련된 입법 청원이 혹시 원서에 활용되었는가는 명확하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제가 그것은 혹여라도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하게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 보니까 엄마, 누나 다 몰랐는데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언론들에게 해당 해외 대학의 교수가 이러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라는 것을 이메일을 보내 준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이른바 아빠 찬스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로 내정되시고 또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싹뿔이 터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족들의 말씀을 하신 걸 봤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위원이 돼 가지고 간사로 내정되고 나서 국민의힘과 굉장히 협의를 잘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0대 결격사유라는 주장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자금 의혹이 있다,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다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현 위원 수입을 초과한 지출 역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수입을 초과한 지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비 수입을 초과한 세비 외 수입으로 지출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현 위원 소득 없는 자산 형성.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소득 없는 자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과도한 기부 내역, 이걸 교회 헌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현 위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다음에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것은 객관적으로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봅니다.

○김현 위원 자녀 학비 출처 불명, 허위사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불명이 아니라 명확하게 엄마가 책임진 것입니다.

○김현 위원 중국 석사 학위 진위 관련해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따로 오후에 꼼꼼하게 질문을 주시면 꼼꼼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화대라는 대학이 그렇게 허위로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김현 위원 위장전입.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위장전입 한 일이 없습니다.

○김현 위원 형사처벌 전과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있습니다.

○김현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형사처벌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 있고 정치자금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황운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다음에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이 반미 전력이다라는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미 문화원 사건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것은 우리 민주화운동사에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어떻게 허위 조작을 하였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있을 인사청문회는 이런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 진실을 밝히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 공작, 리박스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이 알려지고 지금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총리께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언론에 나온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직 누구도 저 충분한 진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현 위원 제가 2012년도 국정원 요원에 의한 댓글 공작을 밝히는 현장에 갔었고 국정원과 십알단에 의해서 대선에 정치 공작을 했던 거고 그 다음다음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이 개입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까지, 지난 시기 2020년 총선에서 그다음 2022년 대선에서 선거 개입을 했다는 흔적이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족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선관위는 중립의 의무가 있고 독립된 조직인데 이 사에서 벌어졌던 것이 부정선거다라는 내용을 많이 유포를 합니다. 윤석열이 지난 12월

3일 내란을,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 중의 하나가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다라는 그 프레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에 의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이 되고 댓글부대가 활약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되셔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혹시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집중적으로 방안을 짜서 말씀을…… 취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가 되면.

○김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총리후보자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결격사유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5대 결격사유와 플러스 2개, 7대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됐음을 지적하고 가짜뉴스를 반드시 근절시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든 가짜뉴스는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정부가 있었고요.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민주정부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그다음 국민주권정부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총리후보자가 이번 초대 총리후보자가 된 데에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내는 데에 그 공이 있기 때문에 총리후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가장 장점으로 꼽는다면 무엇인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장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것은 제가 18년 정도 정치적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결국은 정치가 어떤 기술이나 공학도 아니고 또 지식인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운 것이 그나마 저에게는 남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만든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K-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시대정신과 집단지성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서 이러저러한 경험을 좀 해 보고 또 어려움을 겪어 보면서 몸에 밴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게도 안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때 야당 위원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제 질의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김희정 위원 질의 중에 저희에 대한 개인 모독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김현 위원 아니, 왜 다 모독이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짧게 하세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에게도 안 줬습니다, 위원장님.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배준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보고, 들어 보고.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김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저의 질의에 대한……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이잖아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이…… 존중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배 제가 보고 판단할게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정활동이 5년 차지만 정말 오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좀 잘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잘 보이고 싶은 대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상대방 청문위원을 비하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 간사님이 저희 청문위원들의 얼굴을 PPT에 띄워서 허위·조작·왜곡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간사님 사과하십시오. 듣고 계세요?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개인의 과거사까지 이렇게…… 그런데 후보자는 검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검증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이런 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경고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사과하실 부분이 있으시다고 깨달으시면 사과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이제.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종배 예, 말씀하세요.

○배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이 청문회라는 게 본인의 의혹을 밝히는 자리기 때문에 자료도 적극적으로 내시고 소명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여 드린 거는 저희가 법무부까지 갔었는데,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후보자님이 아직도 사인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전해 드릴 테니까 사인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면 저희가 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알 텐데, 이게 후보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출입국 기록인데 사인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고 특히 첫 번째 형사처벌 받으셨을 때 영수증을…… 뭐라고 그러셨지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증, 영수증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발급이 안 됐다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그 자료 동의하겠냐고 여쭙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별히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물어서 하는데 과거 한덕수·황교안·이완구·정홍원 등이……

○배준영 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분들이 동의를 했던 기준에 썼던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준영 위원 이것 보시고요. 출입국 기록이니까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하시고 말고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래서 아까 그렇게 무자료 총리나……

○배준영 위원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영수증 관련해서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후원금에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앙당에서 의당 처리하겠지 하고 생각한 실무자들이 중앙당에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그러나 영수증을 떼어 줘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시장선거 캠프에서는 떼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쓰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본인이 쓰신 건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사실입니다.

○배준영 위원 사실입니까?

그러면 제가 PPT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들고 온 기업 관계자, 당시 구조조정본부장과 영수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후보자가 구조조정본부장한테 ‘영수증은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본인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룹에서 올해 법정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라는 정치자금법 위반하겠다는 대답까지 들으셨는데 후보자님, 이 판결문에 반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위증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판결문에 반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배준영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하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님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정치검찰 표적수사라고 앵무새

처럼 되풀이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치검찰 표적수사 맞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PPT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보자 본인이 이메일로 보내셨습니다. 다른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는 ‘혹여 나중에 만에 하나 시빗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너한테서 빌린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노골적인 메일까지 주고받으셨습니다. 이런데도 억울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설명드릴까요?

○배준영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첫 번째는, 혹시 조금 전의 PPT를 앞으로 해 주시면 1차…… 해도 될까요? 혹시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배준영 위원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1차 정치자금에 아까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라고 하고 중략을 하시고 판결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 뒤에 제가 ‘그러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전달했다는 부분은 빠져서 지금 말씀을 하였고……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포함돼도 마찬가지로인 게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마찬가지로는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왜냐하면 후보자가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몰랐다는 데 ‘영수증 발행은 안 해 주십니까?’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제가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제가 질문을 할 거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자에게 전달한 것이고요.

○배준영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두 번째 부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배준영 위원 예, 말씀을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두 번째 부분은 정확하게 저것이 검찰이 어떻게 공소장을 잘못 쓰는가에 대해 드러나는 것인데요. 저 부분은……

○배준영 위원 판결문입니다. 공소장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저것은 판결문에 공소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시빗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메일, 취지라는 용어를 통해서 정확한 워딩이 틀려졌습니다. 저것은 혹시 필요하시면 검찰에 그 당시의 이메일 기록을 요청하시면 저런 워딩이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런 워딩을 저도 사용한 바가 없고 당시 상대방도 사용한 것이 없고 검사가 저

런 식으로 ‘취지’라는 용어를 써서 왜곡한 것을 법원이 그냥 받아들여서 사실상 통상—검찰에서 8억 정도 이상—의 규모일 경우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벌금이라는 기묘한 판결이 났던 이유입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지금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판결문을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결문에 검찰의 주장이 실렸다고 그래도 판결문을 할 때는 법원에서 검찰의 그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설명을 다시 필요하면 또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주진우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배우자가 처갓집에서 2억 받았다는데 매년 나눠 받아서 생활비로 쓴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럴 겁니다. 그때그때 받은…… 제가 아주 구체적인 정황은 알지 못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자면요 아까 안대회, 전 국무총리 될 뻔하셨는데 과다 수입료 문제로 낙마하셨고 현금이 집에 많으셔서, 그런 이유로 낙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6억 원이나 이렇게 받았다는 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이 그냥 6억 원 받았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썄요, 중앙부처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강을 바로잡으시고 공직자 윤리를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글썄요,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문제는 없었다고 하면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인지 좀 자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조의금, 축의금 그리고 통상 국회에서 일어나는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평균 1억 5000 전후의 액수를 제가 세비 외 수입으로 받았던 것에 대해서 아예 그런 것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액수도 한 번에 6억이 된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한 분만 하세요, 한 분만. 누가 하실래요?

○박선원 위원 간사님이 하세요.

○위원장 이종배 김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요.

○김현 위원 예.

인사청문회법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공개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제14조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인사청문회는 공개리에 진행하고 전 국민이 지금 생중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야당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18조(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 제18조(주의의무) 조항을 야당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준수해서 본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앞서 2019년도에 있었던 결혼이 2020년, 21년, 22년, 24년, 25년까지 이어지는 것이 마치 6억을 쟁여 놓고 썼다는 뉘앙스와 6억을 불법한 자금으로 규정해서 후보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당 간사로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의의무에 대한 촉구를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위협적·모욕적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현 위원** 저런 말이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배** 자, 김현 위원님……

○**곽규택 위원** 누가 위협·모욕을 했어요?

○**김현 위원**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저 아직 시간 남아 있는데요.

○**위원장 이종배** 김현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질문도 못 하게 해요? 위원한테 질문도 못 하게 해요?

○**김현 위원** 곽규택 위원님은 직전의 위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사과하셨으니까……

○**곽규택 위원** 위협·모욕적인 말을 누가 했어요?

○**김현 위원**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배** 자, 조용히 하시고요.

○**김현 위원** 주의의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곽규택 위원** 잉크라는 말의 뜻도 몰라요?

○**김현 위원** 제 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종배** 김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것은 법정사항이니까,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후보자를 모욕하거나 헐박하는 그런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후보자님은 대통령께서 첫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임명직으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별로 못 했습니다, 제 정치 인생에서. 그런데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모든 걸 다 던져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민석만이 할 수 있다, 총리가 되면 김민석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감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다면,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율하는 것 그다음에 일을 치밀하게 기획해 내는 것 그리고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쭉 배워서 비교적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대화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총리로서 일하게 된다면 아마 여기 계시는 야당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훨씬 더 많이 대화하는 그런 총리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각오를 스스로 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저희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총리후보자께서는 대통령과 캐릭터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하시게 되면 보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총리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대통령보다 상당히 낮은 거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대통령께서 높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총리 청문회니까 총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만약에 되시면—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모두들 느끼시겠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한미동맹은 제가 정치를 배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의 진보·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 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특히 정치권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미동맹에 대한 중시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깊이 관계가 있는 분들과도 계속 관계를 깊이 하려고 노력을 해 온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대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에 비해서 안보 뿐만 아니라 원래도 그랬지만 안보·경제·정치·문화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래도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후보자께서 과거에 있었던 미 문화원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점 또 이로 인해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점, 이런 걸 들어서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에 보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던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주의자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함운경 위원장께서 그때

거기에 들어가셨고 저는 당시 학생회장으로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함운경 위원장이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은 반미가 아니고 광주민주화운동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도 제가 항소이유서에 쓸 때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아까 청화대 말씀 나왔지만 제가 미국에서 두 번 유학을 했습니다. 학교는 세 군데를 다녔고요. 컬럼비아, 하버드 또 럿거스에서 석사·박사를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제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은 미국의 헌법 그리고 그 정신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강화된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당시 삼민투위 중심으로 해서 미 문화원을 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장했던 것이 ‘우리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책임이 있다. 주한 미군도 철수하라’ 이런 주장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당시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밖에서 지원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던 학생들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는 한국군의 군 이동이 미군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이동과 학살이 미국의 인지하에 이루어졌는가라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기된 서울 미 문화원 학생들의 점거·시위 사건에서 제기된, 매우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도 미국이 동맹 국가인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매우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엄과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미국이 일관되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한미동맹을 만드는 데 역사적으로도 서울 미 문화원 학생들의 시위가 일정하게는 기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G7에 참석하신 것은 저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번의 나토 정상회담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결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IP4와 특별 회의를 한다 이런 게 일본 언론에 나왔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대통령 빼고 나머지 3개국 정상과 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신 부분, 저는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존경하는 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G7과 나토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을 하셔서 G7에는 가셨고 나토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다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G7에서는 한미 간의 정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도 미국 측의 사유였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만남을 다시 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는 충분히 소개가 되지 않은 면이 있지만 미국과 나토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인해서 메인 세션, 참가국들의 메인 세션이 2시간 반으로 줄어져서 사실은 초청국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참석도 그다음에 혹시 거기에 의미 있는 참여도 어려워질 수 있는, 중동 정세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안 가신 것으로 알고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일본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국의 판단까지를 존중한다’라는 이례적인 표현과 함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이것이 한국 외교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이 미국, 반미 또는 친중 그런 외교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것은 과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에서 보여 주신 그런 폭넓은 외교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혹시 정식으로 일하게 되면 대통령께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일부에서 우려하는 중·러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저희의 상식적 판단에 기초해 본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비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있든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라도 회담 같은 게 있어야 그런 것들이 좀 더 조율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여야를 넘어 국회 차원의 응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배 오전 회의에 이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군택 위원** 후보자님, SK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게 표적성이 짙다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대선자금 사건 이것과 연관이 되는 이런 측면도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박군택 위원** 그런데 그때 과거에 검찰이 대선자금 사건들을 수사할 때 관행을 보면 그 대선자금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난을 좀 덜 받았던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당시에 수사검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계속 쫓아 대는 방식으로 자백을 받아 내는 이런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민주당 쪽도 수사 대상이 될 때 했던 말씀 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신한국당이였을까요? 신한국당에서 받은 금액의 10분의 1이 나오면 우리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그 10분의 1을 넘겨 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우리 민주 진영에서 검찰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 그렇게 나올 정도로 대통령을 향해서, 그 당시에 민주 진영을 향해서 좀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액수 문제마저도 어떤 진술에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이런 수사였다는 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금품을 전달한 경위라든가 그 당시에 영수증을 왜 발행하지 않게 됐는지라든가 그다음에 그것과는 또 별개로 아까 메일 내용에 보면 무슨 무슨 취지라는 식으로 판결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수사의 경위라든가 또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찰의 입맛에 맞게 그게 그려질 수 있었던 분위기였다는 걸 저는 좀 느끼고 있는데 아마 후보자께서도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지금 표적성 수사였다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를 불렀던 수사검사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제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사검사가 불러서 갔더니 어느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바가 없냐고 해서 제가 잠시 멍하게 생각을 못 하다가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의 일을 이야기해서 당연히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제가 반문하자 그때 설명을 해 주기를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그 기업을 불렀는데 그 기업의 회장에게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와 관련된 것을 불라는 표현을 그 검사가 썼습니다라고 해서 그 당사자께서 ‘아니, 이것은 이 사람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젊은 사람을 생사람을 잡아야 되냐’라고 해서 2시간 정도 답을 안 했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답을 하게 됐다는 설명을 검사가 해 줘서 제가 안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 제가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정해 놓고 물어서 그것을 범죄 요건을 맞췄다는 의미에서 제가 표적수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떤 금액을 확인하고 기소하고 유죄를 받는 과정에서 그 금액마저도 검사와 기업인들 사이의 진술 강요 행위 또 그것을 조정하듯이 그렇게 수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수사 당사자로부터, 수사를 주최했던 검사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에 북극항로 주도권 확보라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등 한반도의 동남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이라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거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경제의 중심 그리고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공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단순히 공약에 그치지를 않고—그것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해양수산부를 지금 부산으로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박균택 위원 그리고 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이 회사를 부산으로까지 함께 이전을 추진한다는 이런 방침까지 내놓았습니다. 강력한 실현 의지가 저는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스케일이 크고 광범위한 주제의 얘기다 보니까 국민들께는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재수 장관후보자 지명된 분이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측면까지 생각한다면, 그 점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이 공약에 대한 의지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저보다도 이 부분에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튼 이것은 최소 10년 이상의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대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정학적 요인도 따져야 하고 기후환경적인 요인도 따져야 하고 그리고 또 외교통상적인 요인, 예를 들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이런 것들도 다 따져 가면서 추진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는 공약 이 부분은 해수부에 맡길 주제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으로든 국무총리 직속으로든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책임감 있게 미래 비전을 보고 믿음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정식 취임이 되게 되면 대통령님과 말씀을 나눠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관심을 가지시기도 했고, 그러나 말씀처럼 이것이 굉장히 장기 과제이고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외교 관련성이 있는 과제여서 사실 당장은 와닿지 않는 면이 부산 시민들에게도 계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제이고요.

마침 말씀처럼 해수부장관의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의원이 저희가 대선 시기부터 이 문제를 맡아 주심사 해서 북극항로 관련 위원회를 맡아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해수부 장관으로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뤄 나가시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전력을 다해

서 하겠다, 이것은 부산의 문제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관심 주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박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부산 서구동구 광규택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광규택 위원 오후에는 후보자님 둘러싼 본격적인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릴 테니까 그냥 맞다, 아니다 정도로만 몇 가지 대답을 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선출직 공무원하고 임명직 공무원의 청렴도 기준이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조금만 더 설명 주시겠습니까?

○광규택 위원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임명직 공무원의 청렴성 기준이 서로 다르냐 이 말씀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검증은 더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규택 위원 같다고 봐야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능력이 좋으면 도덕성은 문제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광규택 위원 재산이 좀 없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도덕성이 결여되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도덕성의 문제는 재산의 다과 문제와는 상관없는 어떤 경우에거나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규택 위원 그렇지요. 그 전제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 소유의 한강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빌라가 2019년 3월 당시에 모친 소유였지요. 후보자도 같이 거주를 하셨습니까? 2019년 3월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2019년 3월이면, 제가 정확하게 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쯤이면 저희 어머니가 낙상을 하셔서 그때 전후해서 아마, 거기가 4층 걸어 올라가는 빌라여서요.

○광규택 위원 5월에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셨는데 그해 5월에 여기 전세를 들어오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쯤 아마 낙상하셔서……

○광규택 위원 그러면 그 한강빌라에 2019년 3월 달에 세를 들어왔던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 이학영 씨라고 있는데 아시는 사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러면 그게 2019년 3월 달에 전세계약은 체결했지만 이것은 법인으로

된 전세계약이니까 실거주자는 이학영 씨로 알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빌라가 좀 오래된 빌라이기는 하지만 옛날 빌라여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셰어하우스인가 하여간 약간의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랬다가 그 집이 좀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한 본인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저의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사실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두어서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넓은, 그 집이 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이학영 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은 그때 제가 결혼 전인데 들어와야 되는 이것이 맞아서 바뀐 것으로……

○곽규택 위원 이것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에 2019년 3월, 5월 그 무렵에 말씀하신 모친 소유의 한강빌라 제일 위층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보지는 못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인테리어 공사한 것은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맞을 겁니다.

○곽규택 위원 맞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곽규택 위원 그러면 2019년 3월 달에 원래 1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던 그 원래 계약자는 한 두 달 만에 빠져나가고 5월 달에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가 되실 분이 거기서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곽규택 위원 그리고 한 1년 뒤에는 지금의 장모님이 또 임차를 해요. 그러면 두 달 만에 계약해지를 하고 배우자가 임차를 하시고 1년 뒤에는 또 장모님이 임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내신 자료에는 이 이산지로부터 2억이라고 하는 전세보증금이 과연 입금됐었는지, 또 그것을 배우자가 들어오실 때 이산지에 2억 원을 반환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께서 어머님한테 정당한 2억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제공을 했는지 그런 계좌 내역은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특이하게 원래 1년 계약이 두 달 사이에 이렇게 해지되고 배우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해 12월 달에 후보자께서 결혼을 하시니까 이게 아마 신혼집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제공된 전세보증금 반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이게 배우자께서, 실제 거주는 배우자께서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누가 전세보증금을 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본다면 당연히 이산지의 이학영 씨, 후보자하고는 프로보노코리아라고 하는 법인의 이사 관계로도 아주 친분이 있으시고 또 건설업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배우자가 내야 될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반환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게 맞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몇 천만 원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 사이에 그 집을 나가면서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에 대해서 어떤 정산이 안 됐다 그러면 최소한 인테리어 해 준 것 정도는, 그 금액만큼은 또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궁금해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저 과정을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어서.

첫째는 다 제가 계약 주체가 아닌 저희 어머니 명의의 집을 이산지가 임차하고 다시 그것을 해지하면서 배우자 예정자가 임차하고 그랬다가 그 이후에 장모님이 임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각각 계약 주체가 전환되는 이유도 대단히 당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낙상이 되셔서 평지로 나가셔야 됐고 그때 그곳에 들어올 생각이 있었던 저의 지인이었던 이산지의 대표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 하다가 그곳에 비용이 제법 드는 수리의 요구가 있더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때 저의 아내는, 들어올 사람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고 있었는데 있던 집을 정리하면서 들어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 위원 인테리어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잠깐만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간에 신희집으로 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는 저 집을 신희집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 내에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집은 신희집으로 쓸 이유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저와 별도로 살고 있었던 제 아내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들어와 살다가 다시 저와 합치게 되면서 그 공간을 마침 저희 장인어른이 병원에 가게 되셔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요가 있으셨던 저희 장모님이 들어오셨던 것이고.

인테리어는 아주 쉬운 것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법 낡은 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테리어 수요가 있었는데 그 인테리어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인테리어를 한 일정한 액수가 그 이후에 한편으로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반영되고 한편으로는 시가에 반영돼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종합적으로 각각의 전환의 과정과 인테리어에 들어간 것의 그 돈이 사라져서 누구에게 갈 여유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저것은……

○곽규택 위원 그거에 대한 계좌를 낼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뭐를 ~요?

○곽규택 위원 계좌 내역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계좌를……

○곽규택 위원 임대차보증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것은 저와 관련된 계좌들이 전혀 아니어서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계셨던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다른 분들의……

○박규택 위원 지금 배우자하고 어머니 계좌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을 왜 동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혹시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박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후보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안보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안보와……

○박선원 위원 안보하고 경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박선원 위원 예를 들면 반도체 3나노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다든지 5G, 6G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안보에서도 우위에 선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력이 안보인 건 당연하지만 안보를 위해서 또 핵심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안보와 경제의 밀접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리의 역할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과거 같으면 안보 문제, 외교 문제는 거의 대통령님만의 고유 권한이었고 총리의 임무는 경제나 내치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제와 안보의 밀접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통령님과 총리님과 같이 대화하시고 다뤄야 될 의제의 폭과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고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코스피지수가 지금 시각 정도에 3096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 이후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이 와중에도 갑자기 세계 4대 화약고 중 하나였던 한국 내지는 한반도가 가장 평화로운 국가,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낮은 국가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구하는 안보 정책이 매우 평화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 평화는 곧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안보 정책을 총리께서 경제와 안보·평화로 제대로 뒷받침하셔야 될 임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대통령님과의 주례 회동입니다. 작년에 윤석열과 한덕수 총리 관계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출근시간도 불투명한데 총리와 대통령의 정례적인 회동과 정책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대체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리와 대통령이 월요일 점심 오찬을 같이 하면서 매주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대동하고 또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배석시킴으로써

주례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례 회동, 월요일의 주례 회동을 위해서 일요일 저녁에 당시에는 당정청 고위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실하고 그다음에 당의 정책위의장, 대표 그리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체계를 사실상 다시 복원해서 국정화 그리고 정책 결정의 신속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포착, 식별을 제대로 빨리빨리해야 되는데 총리가 되시면 대통령과 당과 어떠한 협력 구조로 국정을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우리 정치사에서 당정 일치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이면서 총재를 겸했던 시절에 총재비서실장을 하면서 당시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관도 갔고 회의에 배석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당정 분리 체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 민주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당원 주권, 당원 참여 정당이 되어서 어찌 보면 정당에서 대통령과 내각과 이렇게 배출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당정의 협력이 강화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정신을 반영하는 틀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당선 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과거보다는 거의 빛의 속도로 과거 당의 1·2기 지도부를 초대해서 식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 간의 만남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첫째, 큰 틀에서는 당정이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국정화 일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으로 주례 회동이라는 형식이 존재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간의 경험이라든가 대통령님의 스타일을 볼 때 또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합을 맞추고 일해 왔던 경험을 볼 때 형식적인 주례 회동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수시로 저희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게 대독 총리가 아니고 실제로 일하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국정화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잘 발전시켜 가시기 바라겠는데요.

아까 오기형 위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내란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8명이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 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박선원 위원 그리고 총리는 11시 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총리실로 갔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돌아와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총리실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었는지를 적어도 자체 감사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하고 선포할 수 있는 과정에서 총리가 위상이 애매해지고 해야 할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과정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 감사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 때 수십 년에 걸쳐서 양심과 지조를 지키기는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애국하고 지조를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그때의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계엄 과정을 보면서 계엄 때도 유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 때 높이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변명하는 것을 양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계엄 또는 내란과 관련해서 부화수행의 죄라는 특별한 죄를 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따라서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할 때 명확하게 자기 직을 걸고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깊은 생각의 반영으로 그 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적어도 고위직에, 최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내란당시에 자기의 처신을 명료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교훈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조금 하위직으로 가면 대통령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조금 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도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말씀 주신 감사 이런 부분은 이후에 특검이라든가 내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원 위원**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배**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오전 질의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사용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간단한 것 하나 여쭙어보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광주사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다릅니다.

○**오기형 위원** 다릅니다, 이게. 우리 내부에서, 여기서 토론하면서 용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제가 광주, 80년대에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특히 광주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 저 민감합니다. 광주사태라는 것은 군부가 하는 용어입니다. 처리 대상으로 국민들을, 시민을 바라봤을 때 학살을 했던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광주사태입니다. 그리고 법률로 만들어지고 내란죄 처벌한 뒤에 쓰는 용어는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공식적인 용어들은.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방금 사례 박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페루 이야기 아까 했었습니다. 페루가 1990년도에 친위쿠데타 한 번 있었고요 15년 뒤에 처벌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또 친위쿠데타 일어

났는데 2시간 만에 의회는 탄핵을 했고요 2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중의 상당수가 사표를 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80년 광주항쟁 당시에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을 17년 만에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이 충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반년 동안 그 지루한, 역사적인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고 국회는 두 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실제 내각에 있는 그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거기 고위에 있는 공직자들 누가 제대로 사표를 냈는가.

제가 계속 내란 과정에서 류혁 감찰관처럼, 자기가 그날 밤에, 새벽에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회의에 가 가지고 혼자 사표를 내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많은 공직자들 중에 누가 그런 소신이 있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는 평가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게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핵심적 내용 아니겠습니까?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진당 해산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국민주권의 원리고 기본권 보장이고 권력분립이고 복수정당제도고 이러한 게 헌법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은 바로 권력분립을 무너뜨리고 국헌을 문란시키고 복수정당제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 공무원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 중에 누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었고 문제 제기 안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고위공직자일수록 문제 제기를 안 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당시에 군검찰이건 또는 경찰이건 또는 검찰의 일부가 한 일주일 사이에 수사를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아, 이것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지요, 한 달 뒤에 무마했지만.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내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유지될 거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전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지만. 내란과 민주공화국 사이에 중립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없습니다.

○오기형 위원 없습니다.

저는 이것 되게 심각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내란을 일으킨 거고 그러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내란을 진압하는 것과, 즉 헌정을 수호하는 것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 사이에서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게 있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져서 그 사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권익위인데 상임위원인가요, 한삼석 상임위원 이 양반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 이유가 이거예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그 상임위원에 대해서 중징계 절차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이런 중징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과 그다음 헌법을 수호하는 사이에서 중립 지켜라 이것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헌정질서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중립을 지켜야지…… 이게 법에서 나오는 정치적 중립이 그런 의미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는 여야 상관없이 또는 진보나 보수나 상관없이, 좌나 우나 상관없이 헌정질서는 지키고 그리고 헌정질서가 복원된 상태에서 정치적 경쟁도 하고 여야 간에 논쟁도 하는 건데 헌정질서가 무너진 것을 눈으로 보면서 수사해라 말도 못 하고 오히려 방관하고 수수방관, 방조했던 그런 공직자들이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하라. 현재 지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 주신 말씀 포함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질문이 더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

○**오기형 위원** 아니요, 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이름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12를 사태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지만 12·12는 군사 쿠데타였고 광주를 사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 광주는 민주화운동으로 헌법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3·1운동과 3·1혁명을 아마도 그 당시에 일제라든가 탄압자들 또는 친일파들은 3·1 소요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는 올바른 이름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아마도 그런 것을 잘못하는 과정과 세력 중의 하나로 아까 말씀 주신 리박스쿨 같은 문제도 나온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 주신 권익위의 상임위원이 온 국민이 함께하고 결국은 역사를 바꾼 물줄기에 함께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시대 흐름에 전혀 맞지 않게 만약 불편한 입지에 처해 계신다면 그것은 현재의 변화한 상황에도 맞지 않고 권익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살펴볼 입장이 되면 살펴보면서 개선의 노력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꼭 그 시점 전에라도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알아서 이 문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 이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오전 중에도 후보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실제 주소에서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소만 있었지 나 거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강신성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오후가 되어도 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신뢰성이거든요. 얼마나 일관되게 사람이 소위 정직하게 임하고 있는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오전 질의 끝나고 후보님께 오후까지 출입국 기록이라도 좀 제출해 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출입국 기록은 없지만 후보자님이 직접 후보자님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료를 가지고 중국 관련된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저는 학위를 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게 본인이 열심히 해서 땀다고 하면 칭찬받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명하는 과정이나 본인이 제출한 기록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본인이 제출한 이 비행기 기록표는 무슨 편을 탔는지에 대한 게 와서 제가 공식적으로 항공사 그리고 공항 관계자 그리고 제가 별도로 뒤져서 그 공항편이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님이 직접 제출한 자료 중에서 두 번은, 2007년 5월 29일과 2007년 7월 13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편명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모릅니다.

○김희정 위원 본인이 작성한 것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것은 실무자들이 작성했고 제출되었는데 만약에 기록상 오기의 오류가 있다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기록상 오기라고 하기에는 힘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어쨌든 본인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제출을 컨펌한 것은 맞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입국 기록 내면 명확해질 걸 본인이 제출했는데 당일 날 있지도……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있지도 않은 항공편을 적어서 났어요. 그래서 같은 항공편이 보면 다른 날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날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저 마지막 항공편은 실제로 국내선 비행기도 아닙니다. 중국 안에서 중국으로, 상하이에서 구이양으로 가는 중국 안의 국내선 비행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저 비행기를 탔다고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 시간에 엄연히 김민석 후보는 한국에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 날은 양산을 비롯해서 안산, 수원 등에 10·28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저 기사에 따르면 후보님이 비행기를 탄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개표상황실에 머물렀던 걸로

기사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해당 비행기편 같은 비행기를 탄 다른 사람의 비행기 티켓을 제가 확인을 했고 중국 시간으로 6시 15분 보딩, 즉 한국 시간으로는 7시 15분 보딩한 겁니다. 후보님께서 타셨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자료에도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공식적인 자료를 내지 않은 겁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민석 후보 신뢰해도 좋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까요?

○김희정 위원 아니, 신뢰할 수 있냐고요. 본인이 낸 자료에 이렇게 오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드릴까요?

○김희정 위원 그러면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다 말씀하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재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학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재학 기간을 보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학위 수업을 한 기간으로 요청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

○김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재학 기간으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정 위원 잘 아시지만 지금 구두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공직자로서 학력과 관련된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명확하게, 특히 외국의 학력이나 한국의 정규 학력이 아닌 경우는 월까지 적어서 표기하기로 돼 있는 것 본인이 잘 아시지요, 김민석 후보님?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래서 정규 학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에서는 학위 학력을 진행한 기간을 표시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김희정 위원 학위 학력 진행한 표시를 선관위가 표시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제출하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선관위에서 요청한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표시한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 랭귀지 코스까지 포함해서 밝힌 경우도 있고 전체 입학 그게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학위 과정과 관련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여기 21대 총선 포스터에도 있고요. 아까 앞에 보여 드린 것은 22대 본인 약력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거고요. 다음은 21대 포스터고요. 22대 포스터에 일관되게 청화대학교 법학석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이라고 본인이 표기를 해서 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맞습니다.

○김희정 위원 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위 과정을 하는 것이 9월부터 10월 7일까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김희정 위원 저는 언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LLM 학위 과정에 대해

서 물어본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래서 그것 설명드렸습니다.

○김희정 위원 다음 넘기시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시 월·수·금은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화·목은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월·수·금에, 이 기간에 비행기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금요일 출발하는 비행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부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달력 빨리 넘기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 후보님이 이 기간 동안에 화요일·목요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소위 존재했던, 중국에 존재했던 날짜를 표시하니까 4일밖에 안 나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닙니다. 표시하십시오. 계산이 아니라 후보님께서 직접 주신 비행 편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계산을 한 것을 보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뭐까지 표현했냐면 후보님이 아까 비행기에 있지 않고 당사에 있었던 거나 실제로 없는 비행기 편도 탄 것으로 감안해서 하더라도 저 날짜에, 후보님이 학위 과정에 있었던 날짜에 존재했던 날짜는 26일만 중국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다 밤에 도착을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반나절이라도 있었던 시간을 카운팅하면 총 4일, 그러고도 25학점을 어떻게 댔는지 증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김희정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위가 진짜 있고 아니고 이런 것을 떠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실제로는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 체류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김희정 위원 그러면 이 자료랑 또 다른 자료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엑셀로 정리해서 드린 것은 저의 외국 출입 기록 중

중국 관련 항공,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내에서의 항공이, 저것도 정리하는 사람이 중국 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 출입국 기록 전체를 요구하시면, 사실은 저도 하나 뽑아 봤습시다마는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무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아보시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돼서 일부러 중국 것을 뽑아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중국 이외에 저의 20년, 30년 그 이전의 다른 어떤 출입국 기록까지 요청하시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임 총리들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 청문회의 의도와 무관한 과도한 범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필요하시면 제가 그 기간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엑셀로 정리한 방식이 아닌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보겠는데, 다만 이것은 그 또한 제가 뽑아서 드릴 경우에는 그것의 신뢰성을 문제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셔서 확보하시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후보자님이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 다니신 것 이것 정도 뽑아서 주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시면 안 될까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다른 것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후보자께서는 분명히 다니셨고 그래서 학위를 받으신 거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또 김희정 위원님은 그 자료 분석해 보니까 26일밖에 안 잤었다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결론적으로는 김 위원님, 26일로는 수가……

○김희정 위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후보님께서 직접 만든 자료에……

○위원장 이종배 제출한 것을 분석하니까 그렇다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죄송합니다.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김민석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강점 중에 현안 해결을 아주 빠르게 하는 능력 그리고 갈등 중재·조정 능력 부분을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역할 중에 그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워낙 많기도 하고 점점 더 그것이 양도 많아지고 질로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분석을 국무조정실에서 한 것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7년간만 보십시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낭비된 경제적 비용이 총 2130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매년 304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경제적 비용을 우리가 사회적 갈등에 사실은 쏟아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무조정실은 집중관리 갈등과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인데요.

사회갈등이 좀 많은 것들을,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을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자라고 하는 건데 과제별로 보면 집중관리 대상이 있고 계속관리 대상이 있고 또 사후관리 대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집중관리 갈등과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17년부터 과제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해에 끝나지 아니하고 2년 연속해서 계속 갈등관리 과제로 선정된 경우가 54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 군공항 이전, 반구대 암각화 보존, 그러니까 이런 과제는 2017년부터 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군공항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는 한 과제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한데 8년이란 기간 동안에 집중관리 과제로 설정만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였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연장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직공급 이런 문제인데 제목만 들어도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겠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 당사자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게 그 역할인데 실제 갈등을 풀어 주지는 아니하고 업계 대변만 하다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건 안 하니만 못 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가습기살균제피해조정위원회를 꾸려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조정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을 출연하겠다. 그런데 조정 이후에 아주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는 정부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기재부가 이걸 반대하지 않아서 동의하기 어렵겠다’. 어렵게 조정해 합의에까지 이른 것을 ‘기재부가 조금 반대하는데요’라고 해서 결국은 무위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연간 304조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에 좀 지지부진했던 천원의 아침밥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 지자체장 재정지원 협조 요청을 2023년 3월 31일 날 하셨고요 바로 그 이후에 4월 5일 날 서울대 총장 면담을 통해서 천원의 식사를 논의하고 학생식당을 시찰하고 그리고 당정협의를 실시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협력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4월 9일,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이것을 해결해 낸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습 많이 아파했었던 전북 무주에서 있었던 장애인 학대 사건 있습니다. 하은의 집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이것도 피해자 관점에서 전장연과 대

책위, 전북도 합의를 이끌어내서 전라북도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했고 무주 하은의 집에 대해서 민관 합동조사를 즉각 집행하게 만드는 등 대책을, 갈등 과제를 굉장히 빠르게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총리로 취임을 한다면 이렇게 산적해 있는 사회갈등 과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 줬던 그 추진력 그다음에 현안을 제대로 피해자의 관점과 더불어서 갈등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잘 해결해 낼 것이다, 조율해 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정말 국무조정실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관리에 대해서 후보자의 포부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돼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대선 기간 오래전부터 말씀을 나눴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제는 세상이 내려 먹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협약 국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000명을 가지고 의대생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되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와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풀어 가는 것이 서유럽의 또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이후에 지금에 맞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등 해결은 가급적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미제는 빨리 판단해서 도저히 안 될 것은 미제로 남겨 두고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풀어 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총리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들을 보면서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속도전을 통해서 할 일은 빨리 끝내고 안 될 부분은 못 한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부상시켜서 정리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계곡 문제 등으로 성과를 봤던 이재명 스타일의 성과적 접근법에 맞는, 새 정부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천원의 아침밥, 전세사기법, CCTV 또는 장애인 관련한 것들을 다 제가, 비교적 그 당시에는 여야가 조율해서 풀어내는 접근법을 취했었습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면 그러한 데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한정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마무리하고 싶던 말은 검찰이 없는 죄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이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으려고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직접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또는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 놓고 그거에,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든 심지어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 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검찰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실한 검사분들 전체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검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윤석열류의 그렇게 군사 쿠데타에까지 이른 그런 세력들이 취했던 방법이 말씀 주신 표적수사적 증인 압박, 거짓 증거 조작 등등의 방법을 취했던 것을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 중에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그러면 이것을 사람의 문제로 보니까, 제도의 문제로 보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별할 것 같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일부 정치검찰의 문제로 국한하면 제도는 잘못이 없는데 일부 정치검찰의 일탈이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황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저는 일부 정치검찰들의 일탈이 물론 드러난 부분이 있지만 일부 정치검찰의 일탈은 그 배경에는 근본적으로는 기형적인 검찰 제도, 즉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그래서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 놓고 수사를 꿰맞추고 또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을 기소기관이 거를 수 있는,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무리하게 해도 그것이 곧 기소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즉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제도하에서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권력 남용을 하고 일탈되는 검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단 한 명이라도 적어도 마음으로는 선의를 가지는 검사가 있지 않을까……

○**황운하 위원**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검찰개혁의 청사진은 무얼까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PPT 좀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김문수 후보 사례도 있었고 또 김기현 의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분도 쫓개기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다 당사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후보자는 실무자가 영수증을 발급한 줄 알았지 나는 영수증을 자세히 몰랐다고 했는데 후보자는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나 김기현 의원, 김문수 후보 이 두 분들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면죄부를 받았습시다.

이렇게 검찰이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기소하고 어떤 것은 불기소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데서 나온 필연적인 폐해다 그렇게 봅니다.

‘검사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명성을 얻고 있는 죄는 덮어서 돈방석에 앉는다’ 이런 세간의 속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뭐 들어 보긴 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검찰개혁의 청사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 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등장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 공약 또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세부안으로 들어가면 저도 전문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의원들로부터 말씀을 여쭙보니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 하는 큰 방향은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수사·기소 분리는 입법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지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과거 계엄을 미리 예견하셨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다른 저항 조짐이 없습니까?

최근에 국정위…… 뭐라고 그러지요? 국정기획위?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국정기획위원회.

○황운하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보고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고 또 최근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되자마자 바로 배당을 하고 그것을 언론에 흘려 버리는 그래서 수사 착수라는 보도가 나가 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 저항의 조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현재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검찰 전체의 저항이다 이렇게 규정할 생각은 현재로서 저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상정,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면 기꺼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황운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 인력, 직제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위원장 이종배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님, 지금 후보의 학력, 프로필을 보면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하버드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94년부터 95년 또 칭화대 석사를 마쳤고요. 또 뉴저지 주립대 법무박사 그래 가지고 로스쿨 국제변호사를 땀습니다.

아마 웬만한 우수한 대학의 교수 정도 돼도 이 정도 커리어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정치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교수가 되었을 것이다’ 어릴 때

부터 되게 학구열, 독서나 이런 걸 좋아했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5대 국회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고 또 38세 때 서울시장후보, 그 이후에 정치적 풍파로 인해서 늦깎이 공부를 한 거다. 어떻게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이지요.

저는 여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많은 회사원들이나 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주경야독하는 사람이 많아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 또는 주말에 석사나 박사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 대해서 사소한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본질을 흐트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가 학위를 이렇게 많이 딴 것에 대해서, 하버드 케네디스쿨이나 국제변호사 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시비를 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청화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후보가 국내에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화대 정도는 비행기 거리로 2시간 정도 되니까, 북경까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했지요.

제가 출입국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김희정 위원님은 체류 26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43일. 후보님, 맞지요? 143일 정도 되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실제 체류 기간은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출입국은 한 29회 정도 했지요. 지금 이게 팩트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왕복을 1일로 치는 계산법으로는 그렇게 숫자가 나오고 실제 체류 기간으로 하는 계산법으로는 지금 100일이 넘는 계산법이 나와서 지난번에 마침 법원에서 일로 계산하냐, 시로 계산하냐 이런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이 얼마나 어려운 대학입니까? 미국에서 로스쿨 다니기가 얼마나, 그 정도 능력이면요 청화대 정도는 가능하지요.

그리고 후보께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고 또 여기까지 왔지요. 청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대학 순위 10위입니다.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아무나 줍니까? 커리큘럼이나 수업이나 시험도요 상당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치인으로서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 가지고 국내외를 오가며, 물론 어려울 때는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했겠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동시에 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이것을 북돋아 줘야지 그것이 시빗거리가 된다는 것은 이견 청문회 본질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청화대에 2007년 3월 달 입학해 가지고 2010년 6월 달에 논문을 제출했고 그해 7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공식 졸업 확인서가 증명하고 있고요. 아까 후보자 경력 기재 관련해서 실제 2007년에서 2010년에 석사가 있었지만 2020년 선거공보에는 석사 기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기재했습니다.

아마 이게 선관위 안내에 따라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석사 학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학위 과정이 있는데 선관위는 통상 이 기간을 뺀 순수 석사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겁니다. 이거는 선거를 치

르는 사람이면 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청문회 본질에 맞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어떤 늦깎이 정치인의 학구열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기도 못 채우고 몰락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망할 짓을 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예, 그렇지요.

더 길게 설명하면 통합이 아닌 분열, 소통이 아닌 분열, 소통이 아닌 불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갈등이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 중의 하나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께서 그 통합을 할 수 있는, 분열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의 이력을 보니까 정치를 30년 동안, 정치인 30년 동안 통합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97년에 최연소 의원이 되시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김대중 총재와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DJP 연합을, 통합의 정치를 그때 시작했어. 그게 바로 최근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보수·중도 통합의 하나의 원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선에서는 저희 당, 중도·보수 가치를 위해서 보수 인사를 영입해서 통합당 선대를 했어요.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통합의 행보로서 지금의 사회 갈등·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비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국회에서 옆자리에 계시는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중도보수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회용 선거 전술로써가 아니라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국정 방향도 또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어떤 방향도 그렇게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는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다른 당에 계시다가 참여하신 보수 출신 정치인들을 가급적 저희가 성의 있게 역할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야당 위원님들과 야당의 지도부 이상 더 열심히 만나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마음은 그렇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 부의금으로 1억 6000만 원이 들어왔고 출판기념회로 2억 5000만 원이 들어왔고 또 배우자가 처갓집으로부터 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1억 원 정도가 현금이다 이런 요약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출판기념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고요. 보통 경조사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적어 줍니다. 나한테 축의금을 낸 사람 액수만큼 맞춰서 내려고 다 적어 놓고 서로 낸 만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입원으로 항상 지적해 왔던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일단 당장 생깁니다. 수익 원대를 후원해 오셨던 강신성 씨 같은 분도 가깝다고는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도 출판기념회에 다녀갔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를 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원, 20만 원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4000만 원을 거의 연 2.5%에 7년간이나 빌려줬던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줬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해단체 관계자나 사업가 등도 있었을 텐데 얼마를 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재산등록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해관계자들끼리 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출판기념회 오는 사람들은 계좌로 송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현금봉투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고 명백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 부분은 또 원래 걸리기도 어려워요. 주고받은 쪽이 이해관계자가 다 갖고 다 현금봉투고. 걸린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전 의원도 3억 원을 현금으로 집에 가지고 있다가 출판기념회 돈이라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해서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입법로비 사건에서도 이해단체가 불과 3000만 원 준 것이 이해단체와의 이해관계가 엮혔다라고 해서 뇌물죄가 됐어요. 그리고 통상 금액이 또 크면 증여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내용이 나온 이상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세를 제가 국세청에 확인해 봤더니 13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인세가 수익으로 잡힌 것이? 제가 국세청에 확인했으니까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어떤 책과 관련한 말씀이신가요?

○주진우 위원 두 권의 책 전부 다 합쳐서 국세청에 신고된 인세가 1300만 원 정도인데……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그것이 맞겠지요.

○주진우 위원 그런데 후보자는 야인 시절에는 사실 출판기념회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국회의원이 되어서 권력이 있어야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고 현금봉투가 나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냥 책을 팔아서 이 돈을 모으는 건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빙부상 조의금도요, 국회의원도 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물론 빙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의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일단은 최근에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나 들어온 것도 일반 국민 관점에서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례 비용도 다 부담을 했을 거고 처가 쪽에도 가족이 있을 텐데 후보자에게 1억 6000만 원이 배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처갓집 2억 원 중에 1억 원 현금도, 사실 현금을 일반 국민들이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1억 현금 부분도 결혼한 자녀가 독립생계

를 하는데 생활비랑 현금 주면 일반 국민은 바로 증여세 탈루 문제가 생기고요.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후보자의 5년간 순자산 증감액입니다. 보시면 빙부상이 있던 해는, 원래 연봉 1억 정도 받는 가정이 생활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순자산으로 는 게 2억 1000만 원이니까 아마 빙부상에서 했던 돈이 입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2021년입니다. 2021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저게 1억 1000만 원의 재산이 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등록이 됐다고 하지만 빙부상이 있고 나서 그다음 해에도 재산이 1억 1000만 원 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22년도에 출판기념회 있을 때는 순자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증가했고 또 두 번째 출판기념회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라면 현금 1억 5000, 1억씩 각각 들어왔어야 맞는데 순자산은 또 줄어들었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2024년도인데요. 이때는 세비로 다 쓰고 나서도 2억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금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뭐가 늘었다고요?

○주진우 위원 말씀대로라면 2023년도에 재산등록을 다 마치고 2024년도에는 현금도 하나도 없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것을 갚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지요?

○주진우 위원 2억 1000만 원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연봉, 그러니까 세비가 1억 조금 넘잖아요. 세후로 받는데……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일단 그 전제는 저 숫자가 맞다고 가상해서 쓰신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일단 맞지 않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순자산의 증감액은 액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 PPT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수입·지출 현황인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수입이고 파란색이 지출인데 매해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재산등록이 매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 숫자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것을 후보자가 직접 공개하고 신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오류가 있다면 다음 제 질의 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해 현금 거래다 보니까 이게 즉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관계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PPT입니다.

추징금을 갚은 내역 중에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게 빨간색은 후보자의 예금인데 대략 한 2000만~4000만 원을 연간 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배우자 예금도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2023년도랑 2024년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출판기념회를 하고 나서 2024년도에 1억 1500만 원을 갚았어요, 추징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처가 뭘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리하신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은—조금 이따 자세히 드리겠지만—평균 제 경우는 3000부, 2000부 이런 경우로 해서 평균 한 5만 원 정도 선의 출판기념회 축하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강신성 씨를 말씀하시면서 ‘수억 원을 후원했던’ 이렇게 표현하면서 넘어가셨는데 그런 바가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강신성 씨는 1차 정치자금 사건 때 너무 피해를 크게 보셔서 그 이후로, 제게 4000만 원을 빌려줄 때도 맨 마지막에 빌려줬고 그 이외에 후원회장을 맡거나 해도 사실은 후원금을 아마 거의 안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출판기념회를 포함해서 심지어 축의금·조의금까지 다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국민이 축의금·조의금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신 것이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법을 제기하거나 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위원 마지막 추징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앞서서.....

○주진우 위원 2024년 1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러저러한 것들을 출판기념회 혹은 축의금·조의금으로 갚고 맨 마지막에 남아 있던 1억 정도의 추징을 어떤 수입원으로 갚았느냐, 수입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진우 위원 현금이나 아니면 계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대출했습니다. 24년 1월 31일 날 1억 8000을 대출해서 그중에 1억 정도로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그해에 있었던 저의 선거 비용으로, 선거 비용에 준비해서 썼고 그 선거가 끝난 연후에 선거 보전을 받아서 나머지를 다시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련해서 일체 걱정하실 내용이 없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주 위원님께서 복잡하게 그래프를 그려 주셨는데 사실은 저렇게 그래프를 복잡하게 그리기에는 앞뒤 다 통틀어서 제게 남아 있는, 부모님까지 포함한 2억이라는 재산은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너무 작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어서 그렇게까지는 수고를 안 하셨어도 괜찮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수입·지출 그 문제는 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맨 마지막 수입 부분, 대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그 대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거는 마지막에 추정금을 어떻게 갚았는지는 설명하셨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수입·지출은 나중에 확인해 달라니까 그렇게 확인을 다음 질의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선원 위원 주진우 위원 발언할 때 갑자기 노웅래 전 의원님의 자택에서 3억 언급을 하셨는데요, 출판기념회다 어쩌다 하면서. 지난 2025년 3월 18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노웅래 전 의원님의 자택에서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금원의 출발이 무슨 출판기념회였고 그 3억이 그때 사건이 있었는데 마치 후보자님도 무슨 출판기념회에 얼마 이상의 돈이 있으니까 불법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연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노웅래 의원 3억’ 처 보세요. 왜 이렇게 막 갖다 때려 붙이기 해 가지고 국무총리후보자님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인상을 주십니까?

○주진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김현 위원 얘기 중에 있잖아요.

○위원장 이종배 의사진행발언, 위원장에게 얘기하세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저도 간단히만……

○위원장 이종배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안 됩니다.

○박선원 위원 답변 끝났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이종배 제가 판단할게요.

말씀하세요.

○주진우 위원 저도 간략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주진우 위원 그 부분은 압수수색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노웅래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주 위원이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검사예요?

○곽규택 위원 들어 보세요, 좀.

○주진우 위원 노웅래 전 의원이 실제 주장하기로 발견된 현금 3억 원이 본인의 출판

기념회 돈이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거기 인터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판례를 애기한 것이 아니지요.

○위원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인데 지금도 검사처럼 저런 발언 해서 총리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여기 두 분 요구해서 한 분 하셨으니까……

○김현 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이 시간을 1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배 예, 알았어요. 1분 하세요, 그러면.

○배준영 위원 아니, 본인의 질의시간에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지금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들이 동일한 질문을 오전 질의 때 했고 그것을 소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또는……

○김희정 위원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요.

○김현 위원 김희정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거든요? 다선 위원님, 중진 위원님, 초선 위원님하고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초선 위원이 왜 나와요, 거기서?

○김현 위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현 위원 아까 막말 때문에 사과하신 곽규택 위원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곽규택 위원 동일한 질의 한 적이 없어요! 회의 내용 잘 보세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어요. 법사위처럼 하지 마시고요.

○곽규택 위원 질문부터 좀 잘 보세요.

○김현 위원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맞추어서 좀 해 주세요. 법사위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서 마구 끼어들지 마시고요. 보기 민망합니다.

○곽규택 위원 정청래가 그림네, 진짜.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이니깐요 사과한 것이 잉크가 안 말랐다는 것을 항시 유념하시고 오늘 인사청문회 하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잉크 말한 적 없어요.

○위원장 이종배 발언하세요.

○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후에도 이 인사청문회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어서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반론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 찍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인 일이었다손 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다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빙자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또는 과거의 직업에 근거한 그런

근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 말이 명예훼손이에요.

○**김현 위원**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앞서 야당 위원의 질의 내용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야인 시절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전용기 위원** 통상의 다른 정치인들도 야인 시절에는 많이 하지 않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왜냐하면 정치를 다시 하거나 정치를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쫓 살아오지 않았고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한 18년을 보내다가 저로서도 기적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온 케이스여서 그랬던 것 같고, 출판기념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작은 규모의 출판기념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야인 시절에는 안 했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음성적인 수입원을 위해서 출판기념회를 했다고 주장하시니까 저는 황당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익원이라고, 아주 악질적인 문제라고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정치 신인의, 그러니까 야인의 정치적 출정식, 자신의 홍보수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원의 인사들은 지금 국회의원님들처럼 후원금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정치자금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원외 위원장들, 원외 인사들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못 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음성적인 수입원으로 이야기한다? 재산이 수십억 원씩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할 수 있으나 돈 없는 사람도 정치 해야지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의금으로 시비 거는 것은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당신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많은 돈을 냈을 것이라라고 주장하는 건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현금의 유통이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책임, 과거에 문제 있었던 것 인정하시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족이 상을 당하셔서 그 돈을 가지고도 추징금을 납부하셨어요. 그 가슴 아픈 돈으로도 추징금을 납부할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전두환 29만 원 있다고 도망칠 때 비판 한 번 안 하던 사람들이 그 금액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추징금 납부하는 것을 현금의 유통이라고, 당신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검은봉투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폄훼하고 정치의 출발선 자체, 원외 인사들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막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른바 6억의 출처 이것 명쾌하게 해결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연도 이야기하면서 이 금액이 어디 있었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빙부상 조의금으로 돈 냈고 출판기념회 있는 해에 더 많은 추징금 냈고 그거 부족한 부분들은 본인의 세비의 절반 이상을 털어서 추징금 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후보자의 철학이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고, 교회 헌금 왜 이렇게 돈 많이 냈냐 하는데 그 돈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도 하느님이라고 하는 본인의 종교적 철학 때문에 돈 낸 겁니다. 그것까지 비판하실 수 있나.

그렇게 본인의 세비로 생활이 안 되니까 배우자는 후보자한테 말도 못 하고 친정에다가 생활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런 내용들 다, 그런 현실들 다 빼고 ‘후보자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현금 융통 있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 청문회가 도대체 인디언 기우제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해결됐으니까 제발 이 문제는 더 이상 흠집 내기용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수입으로 문제 제기하고 의심하는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6억을 장롱 안에 숨어 넣었다’ 이런 가짜 뉴스, 거짓말, 왜곡 현상, 왜곡 발언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스스로 책에 ‘돈에 대한 묘한 결벽증이 있다’, 이번 의혹에 그런 내용도 밝히셨고 건건이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PPT에 나왔던 내용 후보자님, 전부 사실입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느끼기에는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상 다 드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더……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래도 더 궁금하시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용기 위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고 그래도 의혹이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액을 숨긴 것처럼, 마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방식의 청문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날 때까지 터는 식의 공격은 이미 진행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먹고살기는 다 힘든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 플랫폼 업체에서 배달비를 무료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장에서는 9000원인 메뉴가 배달앱에는 1만 2000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되는 거지요. 소비자는 속고 자영업자는 플랫폼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인가를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그냥 다 생략하고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자영업 간의 수수료 부담 전가 문제를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국무조정실을 통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라든지 협업 방식의 자율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소비자는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 혼란 해소와 자영업 부담 완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공정한 거래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 방치하면 안 된다, 소비자 신뢰 회복해야 된다, 자영업 부담 완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플랫폼 문제는 얼마 전에 청문회와 관련한 정책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가와 연동해서 조사를 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음식 배달과 관련해서 실제로 배달이 아닌 픽업의 경우조차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후로도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저에게 제기됐던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비록 저의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의금과 조의금 전체를 문제 삼거나 또는 신고하는 방법을 선부르게 제기하거나 또는 정치에 있어서 신인들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또는 헌법적 제약으로 비쳐질 수 있는 출판기념회 그 자체를 액수의 투명화라는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전체를 죄악시키는 접근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가 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공정하게 다루어진다면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적어도 이미 아닌 것이 명료하게 된, 6억을 쟁여 놓고 현금으로 썼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에게 요청했던 사과 정도는 하거나 해명을 하고 후속 질문을 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라는 소회를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저도 야인 시절에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앞서 전용기 위원께서 출판기념회 또는 조의금·축의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마치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려고 무리하게 정치 공작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배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2024년 7월 31일 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전MBC 시절에 범카를 사용했다 또는 향응을 제공했다 그래서 배임과 이해충돌로 고발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11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공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봐서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와서도 압수수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를 세 번을 받았 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로부터.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어떤 영문인지 대전유 성경찰서에서는 이진숙 공인,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더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봐주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 눈높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것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대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 하는 국민들이 계신다면 이해하기 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될, 이재명 정부의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또는 헌법 정신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 금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당한 것이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있고 조율에 있다, 이것은 경찰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개편·개혁 그리 고 검찰개혁, 언론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총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특정 기구,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공정성은 어 떤 경우에도 총리의 역할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로 가자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을 이 루어 내고 계신 국민들의 바람이다 그리고 방향이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 다. ‘바이든-날리면’이라고 국민들에게 듣기평가를 했고 ‘날리면’이라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그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고요.

KBS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전광석화로 하면서 수신료 재원을 압박 해서 낙하산 사장을 보내거나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그런 희대의 명언을 남긴 사람을 현 재 KBS 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언론 의 자유를 제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공영방송 KBS에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TBS인데요. 서울시의회가 재원을 마련해서, 시민 참여형 지상파 공영 라 디오 방송국입니다. 이 방송사가 지난 9월부터 종사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YTN을 2인 구조에서 사영화하면서 불법행위를 했고 경찰의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통신위

원장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방송사들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계엄하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로 이어지면서 계엄을 찬양하는 그런 방송사로 개편하기 위한 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하에서 자행됐던 방송 장악 또는 미디어 장악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는 또는 임기가 보장됐다는 이유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는 어쨌든 내년까지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임명이 된다면 이러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 국회의 활동과 국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할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실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의 주인이신 국민들께서 방향을 정리해 주시면 정부는 또 제가 총리가 되면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덧붙여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방송통신위원장이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라는 걸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지금 감사원이 두 번에 걸쳐서 연기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윤석열 정부하의 감사원이고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요.

마치겠습니다.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정권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의 방향이 국민민복에 맞는 방향으로 또 국민이 원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도록 저희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아까 제가 ‘빛의 혁명’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혹시 빛을 혁명적으로 갇았다는 얘기로 착각할 만큼 제가 오늘 굉장히 헛갈립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다 의원 출신이고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 유권자한테 밥 한 끼만 잘못 사도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5억 원의 수입 그리고 13억 원의 지출을 어떤 의원님은 마법의 지갑이라고 했는데 그걸 입증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숫자는 나와 있으니까 입증할 책임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인데 후보자님이 계좌라든지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내시면 해결될 일이고 또 자녀의 유학 비용이라든지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여기 안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송금을 어떻게 했고 그런 거를 밝히시면 스스로 나올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분의 입시 관련된 일들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뛰어난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 그러면 앞서 말씀 드린 입시 관련된 국회에서의 활동이라든지 다른 학교에서의 인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실제로는 입학 서류에 안 들어갔다고 확인만 해 주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보통 외국 대학에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보내면 외국 대학에서도 원본을 갖고 있는데 보통 보내는 학생들도 사본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게 조국 장관이 그것 때문에 법무부장관을 그만두고 나라가 흔들렸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출국 관련해 갖고 좀 혼선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출입국 관리,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출입국 기록 했는데 여기 출국일자, 행선국, 목적, 입국일자, 존비속 이런 거 다 상세하게 내셨어요. 이렇게 내시면 오해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질의할 텐데……

후보자님, 지금 미국 변호사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했구요.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배준영 위원 미국 변호사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미국 바(Bar)에 회비를 계속 안 내고 제가 프랙티스(practice)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시점에서 미국 변호사 회원으로는 돼 있을 건데 오늘 현재 회비를 제가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미국 변호사세요, 아니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그걸 갱신하기 위해서 뉴저지주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데 2년 걸쳐서 계속 그거 해 오셨어요? 안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하기도 하고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미국 변호사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께서 며칠 전에 SNS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공유했는데 ‘95년 하버드대학에 공부하러 온 김민석을 만났다. 맨해튼의 무서운 눈 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유니온신학교에서 김민웅 목사와 셋이서 만났다’.

후보자의 형님도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후보자의 형님이 촛불행동의 상임대표입니다. 그리고 6월 7일에 이러한 글을 SNS에 올리셨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미국의 계속되는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권국가에 대한 주제넘은 간섭을 거리낌 없이 이어 가는 미국은 정상 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지난번에 미국에서 변호사 학위도 받으시고 하버드도 나오시고 그래서 미국 출신, 미국에 가까우셔서 적대적이지는 않다 그러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으셨는데, 글썄 광주사태를……

○오기형 위원 사태요?

○김현 위원 사태라니요. 사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배준영 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

○오기형 위원 제대로 해야 돼.

○김현 위원 ‘됐어요’가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지요.

○오기형 위원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알았어요.

○김현 위원 역사 인식이……

○오기형 위원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평가받을 만하고 저도 호남동행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는……

○박균택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배준영 위원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여튼 외교관계를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실 거니까 사과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 익스콘벤처타워라고 거기 거주하지는 않으시고 그냥 우편을 받느라고 주소지만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전체 기록을 안 내셨는데 간헐적으로 낸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면서, 출국하고 입국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기간에 우리나라에 사신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외국에 그렇게 오래 안 나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족들도 상당 기간, 네 살짜리 또 초등, 중학생 때 살았는데, 실제로 사신 곳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드릴까요?

○배준영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 하나가 6억을 쌓아 놓았다는 표현과 13억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계속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실 때 듣

는 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아이의 인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독립 인격으로서 제가 저의 일을 위해서 강권할 수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만 저도 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그리고 과거 총리후보자들, 특히나 국민의힘 계열에서 배출했던 총리후보자들의 예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감안할 때 제가 최상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기된 입법 활동을 애플리케이션, 즉 원서에 썼느냐 하는 것과 인턴을 직접 했느냐 하는 두 가지인데 인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인 홍콩대 교수가, 홍콩대인지 어딘지 하여간 교수가 직접 질문한 언론인들에게 보낸 메일이 있음을 말씀드렸고 아마 그 정도는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당사자의 원서에 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등등을 통해서 해당 학교에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다, 제가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여러 가지 이유가 담겨 있는 어떤 원서를 제가 작성해 주지도 않았는데, 명확하게 그 원서에 입법 활동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를 넘어서 그 원서를 내놓고 공개해라라고 말할 권리는 저에게는 없다, 그것은 적절한 다른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출입국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정리해서 보여 드리겠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사태와 광주민주화운동 문제를 적어도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그때 그때 이렇게 할게라는 표현으로 제기되는 것은 듣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미 문화원 점거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가 미 문화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습시다. 미 문화원에 들어갔던 학생들에 최소한 인권 내지는 먹을 것 또는 물이 제공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를 교섭하고 그 당시에 그 교섭의 중재를 했던 분이 현재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인요한 의원이 그때 젊은 시절에 오셔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때 저는 밖에서 서울 미 문화원 사건이 제기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미국 문화원 점거를 통해 알리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표현했고 그것 때문에 그 사건에 들어갔던 분들과 함께 구속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따로 사과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의 많은 미국 지인들이 개인적 관계 또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 왔던 미국에 대한 정책, 예를 들어 97년 IMF 비대위 당시에 제가 대변인으로서 아마 거의 전무후무할 텐데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미상공회의소 암참(AMCHAM)의 명예회원으로서 미국의 투자기업들의 규제개혁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포트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등등 미국의 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따로 저의 입장을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의 형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는 부자 간에도 각각의 정치적 판단과 입장 이런 것들은 다 자율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에 대해서 굳이 뭘 논평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겠고, 저의 형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의 대미관에 대해서 추정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안보와 관련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번에 미사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5중 방공망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켰고 또 러시아의 도움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공망이 KAMD인데 지금 우리 방공망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북한은 더군다나 러시아의 도움으로 더 개발했고 이번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서 드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KAMD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우연히도 제가 무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오래 가지고 좀 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그런 국방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좀 오래 갖고 공부를 해 온 편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나라도, 더구나 현대전에서 방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생각하시고 여쭙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MD 문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이 있고, 더구나 북핵이 사실상 고도화되고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북핵 보유국의 인정 문제와는 별도로—라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깊은 안보적 고민이 있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미동맹도 중시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상당한 목소리로 뭔가 독자적인 핵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런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방공망 중에 저고도 공격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라든지 드론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저고도에 대해서는 LAMD가 아직 구축 중에 있고—일부는 됐기도 했지만—그런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용산이 북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막 고도화됐다고 볼 수 없는 드론에 의해서 사실상 뚫린 것 같은 상황을 연출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지요.

○위원장 이종배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16년도에 사드 배치할 때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고 또 사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때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된다고까지 발언을 하셨는데 이 사드가 고고도 방어체계인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때로서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하나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중 양국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의 어떤 국민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졸속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현재 기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 연속성이라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국방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상 위에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외교적 관점에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국방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차원으로 계속 정책을 강화해 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사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현시점에서는 그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또 부족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미사일 공격할 때 보니까 한 1600km 날아서 하던데 우리는 북한하고 불과 한 5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공망도 중요하지만 탐지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앞으로 혹시 제가 총리가 되면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을 꼭 한번 긴히 뵙고 이러저러한 국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쭙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시는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답변하기는 너무나 중한 문제들을 질문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단답으로 하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총리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쉬운 걸로 하나 말씀드리지요.

칭화대 논문 중에 탈북자에 대해서 도북자 또는 반도자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또는 탈북하신 박충권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한 것 알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우선 반도자 또는 도북자를 정확하게 배신자라는 식으로 규정한 사전적인 규정이 있는 것을 한번 누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문제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 중국에서 쓰이거나 또는 그것을 영역한 영어사전에서 그렇게 쓰이는 용례를 저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다면 애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서 한국·중국·일본에서 각각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반도자, 도북자 문제는 영어로는 디펙터

(Defector) 그야말로 중립적인,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고 저는 적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썼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칭화대학에서 쓴 논문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중국의 탈북민들을 송환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잘못한다라는 비판만 하지 대안을 제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중국은 그것은 자신들의 국제적 난민조약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왔고 일정하게 그것이 일리가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제법적으로 그것이 일리가 있지만 더 나아가면 국제법의 실현에 있어서 반드시 송환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옳은데 중국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논문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탈북민들의 보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당시 제가 논문을 쓸 때 칭화대학의 중국 교수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중국에서 제기할 용기를 냈느냐라고 제게 질문 주셨던 사안이어서 저는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정책으로도 반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칭화대 논문은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성의 있게 쓴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총리 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중국과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반드시 인권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켜봐야 하고 바라보고 노력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과도 해야 할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국제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근거를 찾는 데 저의 작은 경험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반도자, 도북자 문제는 북한에 대해서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중립적인 입장에서 쓴 것이고. 저는 그때로서는 중국에서 쓰는 용어 등의 일부를 차용해서 쓴 것인데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2차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후보자님,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차분하게 몇 가지를 여쭙보

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11분기, 33개월 연속 내수경기지수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IMF 때도 5분기를 넘긴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외환위기 상황,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5분기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 11분기 이상 이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2023년에 약 98만 명 그리고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만큼 먹고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윤석열 정권하에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혹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비판이 가능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뭐가 제일 아쉽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특히나 70년대 산업화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어느 정부도 일정하게 그 시기에 맞는 일종의 산업정책을 썼는데 윤석열 정부는 참 이해하기 어렵게 어떤 사실상의 산업정책에 대한 집중점도 가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게는.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한국 경제의 변곡점에 있었는데 그 타이밍 몇 년을 놓친 것이 굉장히 속 쓰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으로 가서 일정하게 살리는 재정정책을 써야 할 때 긴축만 쫓 한 것이 오히려 경기의 일정한 조정 기능을 갖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등등이 겹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경제·사회·외교까지 포함해서 아주 최악의, 선진국에 막 안착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걱정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진다,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로 인한 착시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까 걱정이 있습니다. 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IMF 때에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경제는 상승했던 시기에 비해서 지금 경제 자체가 하강하고 침체하는 시기에 있고 특히나 경쟁 국가, 특히 과거에 우리가 중국이 따라온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중국이 거의 다 우리를 제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모든 것이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냉정하게 위기론을 정리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제가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부가 냉정하게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살피고 규정해야 한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이런 부분도 얘기되고 있지만 그것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현상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원인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결국은 지금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어서 이재명 정

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추경을 30조 가까이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지금 중동 전쟁 문제라든가 또 미국과의 어떤 관세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뭔가 새 정부가 위기를 잘 극복해 주고 잘 대처하리라는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오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다행입니다.

○박균택 위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었고 오늘 보니까 3100에 육박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신뢰나 기대에 기반한 어떤 경기 호조가 조금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위해서, 코스피 5000까지 바로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까마는 그런 안정적인 성장이나 어떤 신뢰 유지 이걸 위해서 혹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우선 신임 대통령 효과 내지는 정권교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안심 효과가 생겨서 사실 코스피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면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것 또는 그 이전에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만으로도 그 시기 이후에 이미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날아다니지 않아서 상당히 남북관계의 긴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주름과 압박을 주는 요인들을 최대한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성장률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AI 등을 포함한 혁신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중기적으로 뭔가 중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각종 뉴딜 같은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현재 우선은 워낙 민생고가 가파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부채 등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서도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현재의 딱 막혀 있는 소비 경색을 푸는 쪽으로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중기·장기 정책들을 적절하게 믹스를 잘 해서 펼쳐 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점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하고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 주신 취지가 한 2년 정도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느 책들이나 연구소 발표를 보면 사실은 지구의 지속가능한 적정 인구 이게 20억 수준이라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배나 많은 상황에서 인구가 줄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일 수 있는데 왜 출산율 문제를 걱정하는 것일까. 결국은 출산율 문제의 근본은 인구의 절대적 감소보다도 부양비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비율 이게 너무 악화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해서 이 문제를 걱정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라는 책을 쓰셨습니까,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님 책을 보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저도 봤습니다.

○**박균택 위원** 최근에 ‘청년이 없는 나라’ 이 책을 새로 쓰셨던데 부양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청년들에게는 물론이고 초로의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노년들에게도 제2의 직업을 갖게 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 시대, 국가 경제 이모작 시대를 만들어서 이런 부양비의 문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안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다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박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잠깐만요. 위원장님, 혹시 그 답을 드리지 않고 오전에 있었고 조금 전까지 있었던 여러 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종 자료에 대한 질문과 제기를 주셨는데……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혹시 보탬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우선 김희정 위원님 등께서 주로 제기해 주셨던 중국 출입국 기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애초에 취지가 조금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정리했던 취지에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중국 국내 항공이 포함된 것은 그야말로 단순 오기로 확인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실제로 백 몇십 일의 체류 기록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여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동의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만약 특정 시기,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유학한 시기에 해당해서 중국에 출입한 항공들에 대해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해서 전달드릴 수 있다라는, 기술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렇게 소팅을 해서 전달드릴 수가 있다면 그 전제하에서 제가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기까지 포함해서 다른 나라 간 것까지 다 제가 보여 드릴 이유는 없지 않은가 싶어서 일단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첫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칭화대학에서 학업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입국 기록만으로 충분히 입증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에 더해서 아주 쉽게, 아까 누가 말씀 주셨지만 칭화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기도 하고 제가 다닐 때도 각국,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에서 온 로열들도 있고 했는데 칭화대학의 성적표를 제가 차라리 보여 드리면 어떨까, 성적표를 위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왜 그러면 이것을 안 냈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고민했던 것은 성적표를 아시다시피 칭화대학 같은 데는 가서 떼어야 됩니다. 가서 떼지 않고는 방법이 없고 누구에게 동의해서도 되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보여 드려서 ‘이거 또 가짜 아니야?’ 이러실지 혹시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seal)도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보여 드리면 판단에 도움이 되시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저희 아이에 대한 송금 문제를 문제 제기 주셨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제로 제가 저 아이에 대한 학비 지원을 한 바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이후에 없

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애들 엄마한테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하는 방법조차 쉽지 않아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 계좌를 통해서 외환송금이 나간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 그런 외환송금이 된 바가 없다는 확인증은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조금 전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것은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2020년인가에 국회에 이러저러한 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저희 애엄마가 이메일로 저에게 친권이 조정되면서 실제로는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만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사실상 이건 친권과 상관없이 학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이 참고가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혹시 그것으로 될지를 여쭙보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주진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마지막 2024년의 수입원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제가 대출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찾아보니까 명백하게 1억 8000 대출 일으킨 그 대출 기록이 그냥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그것을 전달해 드리면 어떻게 해서, 우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미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을 다시 굳이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다섯 개 자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니 위원장님께서 지금 판단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판단해 주셔도 좋고 말씀 주시면 그에 맞게 저희가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각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받으시든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배준영 위원** 저희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모아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존경하는 박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택 위원** 지금 증인도 안 나오는 상태고 또 사실은 청문회 전까지 자료도 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기는 참 어려운 구조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총리 후보자 나오셔서 가지고 몇 가지 서로 문답하는 중에 세 가지 정도 새로운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출판기념회 두 번 해 가지고 약 2억 5000만 원 정도 현금성 수입을 얻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국회의원 된 이후에도 장모님 쪽에서 생활비 보조를 5년간 약 2억 정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2024년도에 새로운 대출 1억 8000만 원 받아서 추징금 잔액 1억 1500만 원을 전액 납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대략 맞습니다. 숫자가 정확지는 않지만 대략 맞습니다.

○**박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오늘 청문회 하기 전까지는 전혀 후보자께서 설명하셨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24년도에 새로운 대출 1억 8000 받았다, 그것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2025년도 금년에 총리 지명된 다음에 1억 4000만 원 사

인 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출 받았다 그것하고는 또 별개인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 대출 새롭게 받은 것도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 대출 받으신 내역하고 이것 대출 받아 가지고 1억 4000만 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송금해 준 내역 그것은 김민석 총리후보자 본인의 계좌에서 다 처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같이 제출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미 제출한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제출이 안 됐다면 우선 1억 8000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대출을 해서 바로 그다음에 선거 보전 등을 통해서 갚았고요. 그다음에 1억 4000은 이번에 또 새로 대출해서 송금을 한 것들인데 그 부분이 혹시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아마 실무적으로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후보자님, 과거와 전례 이런 것 따지시는데 과거에 1억 4000만 원을 이렇게 하루에 1000만 원씩 9명한테 빌렸다는 전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까……

‘믿지만 증명하라’는 말 아시지요? 총리 말하시는 것 믿지만 증명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믿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슬라이드를 한번, 화면을 보시면 출판기념회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나왔는지가 사실 의문이었는데 구두상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게 1억 5000, 1억 이 정도라고 오늘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출판기념회 해 가지고 원래 정상적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대한 인세겠지요, 작가에게 주어지는. 출판사에서 인세를 작가에게 지급하면 그것을 자기들 비용으로 잡아 가지고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하겠지요. 그것이 이 책 두 권 하는 동안에 총 13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책 하면서 1300만 원이고 두 번째 책은 아예 그런 신고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책을 정상적으로 팔아서 작가로서 받는 그 인세 수입만 따지면 두 번 출판기념회 했을 때 1300만 원 수입이다 하는 걸로 사실은 정리하면 되는데 출판기념회라는 걸 하면서 오신 분들이 책값보다 과다한 후원성 그런 돈을 주신 거지요. 그에 대해서 지금 1억 5000, 1억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출판기념회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본인의 뜻이라든지 살아온 궤적 같은 것 좀 알리기 위해서 출판기념회 하는 홍보성도 있을 것이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어떤 자금을 모으려는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님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신인으로서 나를 좀 알려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 2022년, 2023년 1년에 한 번씩 출판기념회를 하신 데에는 좋게 해석해서 추징금이라고 하는 그 돈의 공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두 번을 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출판기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시기상으로 문제의 소지가 좀 큰 것 같아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 하셨잖아요, 21대 국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난 국회의 전반기에 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전반기면 2022년 한 4~5월 그때까지 하셨던 거지요, 처음 시작해서부터?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럴 겁니다.

○곽규택 위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가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종료 시점을 딱 앞둔 시기였어요, 이 첫 번째 출판기념회가. 책 제목도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까지’라는 제목으로 도서를 발간합니다.

그 출판기념회에 확인해 보니까 상임위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남도간호사회 홈페이지, 여러 홈페이지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여기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출판기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충남간호사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출판기념회에 화환을 보내오신 분들 명단을 봐도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대한약사회 회장, 치과의사협회 회장, 서울아산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이런 분들이 화환을 보내와요. 또 이분들이 본인이 직접 오셨거나 아니면 누구 아는 분 통해 가지고 그 출판기념회에 당연히 봉투를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직무 관련성을 이용해 가지고 금전적 이득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신인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출판기념회를 했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제 삼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께서 이렇게 위원장 끝나 가는 딱 그 시기에 여러 관련 단체에다가 알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련자들이 화환도 보내오고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과연 납득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후보자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시기에 그런 출판기념회를 했던 것이 직무 관련자들에게 다소 부담이나 오해가 됐을 수 있겠다 생각하신다면 그런 언급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이게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 가지고 금전적 이득 추구를 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형식은 합법적이지만 실질은 편법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판기념회 한번 볼까요? 그게 2023년 11월 말이에요. 아무리 출판기

념회를 정치인들이 많이 한다고 해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출판기념회 하시는 분 잘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시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언론에서 ‘친명계의 핵심 전략가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후보자를 정책위의장에 지명을 하지요.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가지고 당의 중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이 열렸던 2024년 초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2023년 11월 20일에 당내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5일에 당내 예비후보자 2차 공모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께서 두 번째 출판기념회를 한 것이 2023년 11월 29일이예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그런 지위 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를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시기와 후보자의 당시 당내의 그런 지위와 지명도를 생각한다면 이 출판기념회를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닙니다. 설명드릴까요?

○곽규택 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곽규택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혹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다 또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출판기념회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제 느낌으로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을 하시거나 또는 법을 발의하시거나 또는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출판기념회를 하셨던 소속 정당의 동료 의원들 문제부터 정리하셨었다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해 보게 됐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향해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사실상 각각의 경우에서 실제로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기념회의 비용은 어차피 인세가 아닌 출판 축하금 형식으로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어서 그 적정 액수에 대한 것을 절제하면 되는 것이고 제 경우에는 다 사실상 평균 5만 원 정도로 돼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축의금에서 아주 용인할 수 없을 만큼 벗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약 그랬다면 저도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특히 보건복지위원장 때 쓴 책은 굉장히 저 스스로 내용을 자부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 때 꼭 내는 것이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출판기념회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관규택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출판기념회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입이 돼 가지고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글 쓴 것 다 모아 봤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2024년 1월 6일까지가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는 날짜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영입돼서 나오니까 몰랐어서 출판기념회를 못 했지만 다니기는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 출판기념회, 예비 후보까지 해서 열심히 11월, 12월 다녔었는데요. 그게 그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번씩 했다가 아니라 2024년 1월 6일 전까지 출판기념회를 하실 분은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다 몰려서 한 겁니다. 그게 무슨 후보자님이 상황실장 중책을 맡았다, 뭐 하다 이것과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꾸 청화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총리후보자님 친구분 중에 이창휘 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창휘?

○박선원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ILO에 있는 이창휘 말씀이신가요?

○박선원 위원 그렇습니다.

이창휘 박사가 하루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고 이창휘 박사는 아주 30여 년 가까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아시아 전담 노사관계 전문가로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와 있고 현재는 북경에서 ILO 북경 대표 겸 동북아 일부 몽골까지 커버하는 그런 고위직, 유엔 직원입니다.

이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와 자주 만났다. 그때 ILO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북경에서 일하고 있던 나를 찾아와서 종종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 경제·사회 변화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었고 그리고 인권·노동권에 대해서도 물었고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어렵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묻고 토론했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인이 그 힘들던 시절, 특히 정치적으로 어렵던 그 힘들던 시절에 시간을 쪼개서 외국에 나와 학구열을 불태우며 미래를 준비한 것이 무슨 죄냐?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창휘 박사가 후보님에게 서툰 학생 ‘일주일에 강의 들으러 자주 오는 서툰 학생이고 학기 중에 거의 매주 비행기 타고 와서 싸구려 숙소에 기거하면서 수업받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허겁지겁 한국에 돌아가서 정치인 노릇까지 해대던 그 친구 특유의 부지런함에 질렸던 적이 있다’라고 기억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공인입니다. 유엔 외교관이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위직이거든요. 레벨로 따지면 거의 ILO의 부차장급에 가까운 정도의 고위직인데 페이스북에 자기 이름을 걸고 기명으로 남겼다.

그러면 현장에서 보던 사람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공권이나 뭐냐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학위가 나왔고 논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매주 이

렇게 서틀 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가서 강의받고 수업하고 도서관 가고 논문 쓰고 또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이런 것을 지켜본 공인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내라 뭐 내라 하는 것은 참 가당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드님 입학지원서를 자꾸 내라고 그러는데요. 배준영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컬럼비아대 석사 어플라이할 때 보면 자기소개서, 스테이트먼트(statement)라고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가 거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사실상 내놓으라고 하는데 19세, 20세 되는 젊은 청년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겠다. 자신은 어떻게 커 왔다. 자신은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살면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대학교 들어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것을 매우 상세하게 적은 걸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자기소개서. 이런 것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청화대의 문제나 아드님의 학비 문제 그리고 입학지원서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답게 이제 그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미국 이야기 자꾸 하는데 아까 인요한 의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안보실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NSC에 근무하면서 2006년 백악관에 가서 고위 당국자를 만났습니다. 빅터 차하고 척존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80년도에 박 박사, 닥터 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교섭을 했고 미 문화원 점거를 우리가 주동했고 저하고 김민석 씨는 안 들어갔고 그래서 그 협의를 했는데 워커 대사를 만났다. 워커 대사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외교 방안을 찾겠다고 했고 우리가 반미가 아니라고 했고.

그런데 우리가 자진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미 문화원에서? 미 문화원에서 자진 철수했을 때 워커 대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반미가 아니고 애국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평화적으로 해산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산을 했어요, 조건을 걸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 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학생들은 애국심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거고 반미가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니까 빅터 차 박사하고 척존스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거니까 내일이라도 백악관 대통령 뵈러 가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 발전도상국 동맹국의 젊은이가 있었다는 것을 조지 W. 부시 대통령한테 꼭 알려 주고 싶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 대사, 워커 대사가 우리 김민석 후보와 그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무슨 반미니 사과니 이런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화대 논문도 중문과 영문으로 쓰여 있고 영문이 주요 파트고 이것을, 디펙터(defector)라고 지금 다 쳐 보세요. 노스 디펙터(north defector) 그러면 탈주자 그리고 배반자, 망명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스 코리안 디펙터(north korean defector) 하면 탈북자를 영어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도반자니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청화대에 가서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옳다라고 논문을 쓴 분에게 이렇게 마치 질타하듯이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3월 달에 후보자께서 코스피, 우리 주가지수가 부스트 업 되어야 된다, 자본 시장이 선진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상 법 개정을 해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 뒤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도 필요하다면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까지 했었지 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까 박근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초에 한 2330 하던 게 지금 31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 개정과 금투세 문제, 금투세는 조금 민감하시니까 조금 더 나중에 답변하시더라도 주식시장,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들의 주권을 강화한다는 관점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고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조성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한편으로 는 지난 금투세 논쟁이 있을 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금투세 유예 쪽의 입장을 당내에서 여론 조성을 해 가다가 불가피하게 그때의 상황상 우선은 폐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 다 하는 입장을……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고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대표, 이재 명 대표께서도 또 당도 그렇게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입장을 천명한 적이 있고 요.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똑같은 개미 주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상법 개정은 동시에 또 보 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상법 개정 논의는 매우 유의미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청화대와 관련해서는 청화대에 아마 당시에 다녔던 그 청화대 LLM 중국 법 코스에 1년 동안 다녔던 분들이 중국분들 외에 미국과 서방분들이 많습니다. 로 스쿨 출신의 또는 변호사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중의 상당 부분, 그리고 아마 청화대에 서 제가 조금 알려졌던 사람이어서 기억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청화대 석사 학위로 지금 한국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배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면 한이 없는 거지만 금투세 문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처음 후보로 나와서 언론에서 발언한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표현은 제2의 IMF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IMF라고 하는 것 아까 잠깐 설명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상

황 인식의 판단 근거는 뭐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97년의 제1 IMF는 어찌 보면 저희 경제 전체는 비교적 활력이 상승이고 역동인 상황에서 금융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생긴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현재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성장률이 역성장 또는 마이너스, 제로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금 곳곳에서 고통이 발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자유로운 환경하에서 무역으로 상당 정도 풀어 가는 나라인데 국제질서가 지금 전면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중국, 심지어 북한조차도 과거보다 훨씬 더 뻣뻣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서 과연 이 시기에 우리가 활로를 찾을 수 있나, 이게 거의 존망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골든타임이 6개월에서 1년을 과연 갈 것인가라는 것을 솔직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고.

윤석열 정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이유는 그 시기에 헤매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맡게 된 이재명 정부는 솔직하게 마치 IMF 때 상황을 드러내고 금 모으기를 했던 때처럼 ‘위기입니다. 열어 보니 정말 엉망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풀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사실 굉장한 위기감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그 지점에서 실제 지금 상황이 힘들다는 걸 국민과 함께,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큰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 인식 공유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정기국회나 예산특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쟁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계속 지적했던 게 당시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경제부총리가 달나라 사람들 같다.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민생의 처절함을 못 느낀다’ 그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추경 할 생각이 없다’, 상저하고 이야기하다 실제 상저저저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통령도 작년에 ‘확실히 더 잘될 것이다’ 또는 총리도 ‘우리 경제가 정상화됐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정책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도 엉터리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역대 정부들의 감세 정책, 증세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박근혜정부 증세 정책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예상되는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이 4~5%씩 되고 있는데 왜 절대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것은 감세 외에는 대안이 없고 실제 원인 설명이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기재부 분할을 이야기했고 기재부 관료들, 국장급 이하들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 지적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을 3년 동안 했는데 3년 내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 1.4%, 작년에 2.0%, 올해 본래 2.2가 되느냐 일 점 얼마가 되느냐 했다가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는, 심지어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감세 정책이었지만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라도 했느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이인데, 실제 어떤 정부든 잠재성장률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인식을 분명히 하고 국정과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고 있었냐, 이게 이제 반면교사로서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할 거냐 이것을 우리가 같이 국민들 앞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잠재성장률. 이 당시에 제일 논쟁이 됐던 게 R&D 예산 깎는 것 아니었습니까? 구조개혁을 하고 또는 기술에 기반한 선도 산업을 만들어 내고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R&D 예산을 이상하게 깎아 버려 가지고 과학기술자들로부터 좌절감 느끼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들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 실제 선진국에 진입해서 안착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놓쳤다,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시기에서 우리가 재정 기반도 좀 약화된 상태, 세수 기반도 약화된 상태고.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전체적으로 새롭게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터닝포인트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당장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 힘든 시기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놓고 솔직하게 ‘우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경제주체마다 창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중에 기본 가닥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잠재성장률, 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우선 저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위기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보다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IMF 때보다도 경제의 바닥이 어렵고 구조가 어렵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훨씬 까다로운 상태에 처해 있어서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재의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하게 해 놓은 상태여서 열어 보니 깡통이다라는 느낌, 게다가 최근에 부동산 문제 등등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권이 시작, 우리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정이 사실은 질러 놓고 무책임인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고민입니다.

말씀처럼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솔직하게 국민에게, 국민의 집단지성과 위기감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중·장·단기 다 취해야 되고요.

재정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이 예산 규모도 물어보시고 부채 규모도 물어보시는데 부채 규모도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48·49인데, 다만 제가 아까 다른 자료를 보다가 혹시 정부 부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20%대 24%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요.

다만 선진국은 거의 70%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긴축·확장을 넘은 회복 재정, 성장 재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기형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좀 할게요.

실제 지금…… 저는 제안입니다. 정부에서는 함께 계속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데 세수 기반 확대해야 된다, 그것을 국정과제로서 계속 가야 된다, 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무리한 감세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 지금 적극적 재정 해야 된다. 지난 2023년, 2024년 적절한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게, 기업부채는 IMF 이후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가계부채나 정부부채나인데 정부부채도 선진국 평균 비교해 보면 108%인데 대한민국 52.4, 아까 48.5, 대략 이런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가계부채가 제일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100%에서 지금 89%, 9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로 인해서 민간에서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 문제 풀어야 된다, 이 지점에 대해서 뭔가 좀 일관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은 금융관료들 그다음에 은행권들 전부 다 그 이자놀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뼈아픈 삶을 잘 못 느낀다, 작년 1년 내내 비판했습니다. 은행들은 50조, 60조씩 이득을 얻고 있는데, 그게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였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미국은 5%로 기준금리가 성장했는데 대한민국은 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큰 피해를……

계속 이따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행과 관련된 문제점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한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수 기반 확대를 하고 더 이상 실용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감세정책을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요.

장기적인 성장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선 현재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야 되는데 제일 큰 것이 가계부채 문제고 물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워낙 강하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고.

최근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죽 보면 물가, 가계부채, 예대금리 등등 국민들에게 직접 타격을 주는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기형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후보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장만 하시는 것 같아요.

논문 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논문 관련해서……

후보님이 저기 직접 사인하신 것 맞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왼쪽에 있는 사인이 제 사인입니다.

○김희정 위원 왜냐하면 논문의 내용 관련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논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고민해서 성의 있게 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50페이지 논문 중에서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45페이지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혹시 이 논문을 알고 계세요? 엘림 찬 & 안드레스(Elim Chan & Andreas)가 쓴 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다음 논문 보시겠습니다.

라이트넷(WRITENET)은 아시지요? 인권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저 논문을 쓸 때 혹시 관련해서 봤을 수 있는 논문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논문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인권 관련해서 유엔난민기구에서 늘 보고서 의뢰해서 쓰는 단체가 라이트넷입니다, 저기 보시면.

다음 세 번째 논문, CRS의 권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2007년 9월 26일 자 페이지를 제가 봤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희정 위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역시 UNHCR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 기억이 없으시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의 있다고 하신 논문, 카피킬러에서 돌렸습니다. 제가 빨리 속독하기가 힘들어서 문장을 그냥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단어를 좀 바꾸거나 하면 50%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논문에서 거의 복붙을 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각주부터 점 하나까지도 복사 붙이기를 했습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문입니다. 찬이 쓴 난민 관련된 레퓨지 로(Refugee Law) 학술 논문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시작하는 문장 양쪽에 표시를 같이 했습니다. 각주 표시도 같이 했습니다. 전체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전체 그대로 복사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복사가 아니라 저 컬러 세 부분만 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복사 앤드 붙이기가, 김민석 후보님의 저 논문 처음부터 지금 계속 4, 5, 6, 7 다 복사 붙이기입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부분이 라이트넷이라고 소위 권위 있게 유엔에서 의뢰해서 보고서 분석하는 그 논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페이지 그대로 복사 앤드 붙이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딱 하나, 단어 하나 바꿨더라고요. ‘however’를 ‘meanwhile’로 단어 하나 딱 바꿨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시 제가 시작하는 것을 표시하기 좋게 그대로, 문장을 그대로 시작하는 구문 했고 역시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역시 그대로 복사입니다. 보기 쉬우라고 문장 시작 구절, 절 바꾸는 것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해 뒀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U.S. CRS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전체 복사는 이 정도 발견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수치 조금 변환하는 정도입니다.

또 넘겨 보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논문에서, 카피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 논문에서 그대로 복붙한 겁니다.

네 번째 논문, UNHCR에서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쪽쪽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고민했고 성의 있게 썼다. 자부심 가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논문을 봤습니다만 다른 자료를 성의 있게 내면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하다가 아까 답변을 듣고 이 자료를 오픈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드님이 표절방지교육의무화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래서 아드님이 표절방지법 발의하는 데 함께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아드님과 함께 이 동아리 관련해서 소통을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우선 제 아이는……

○김희정 위원 아니, 아이 말고요 본인 논문.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기 때문에, 제 아이는 본인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닐 때 받았던 표절교육에 비해서 국내에서 저런 논문의 표절 등에 대한 교육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그 아이가 대학 입시에 그것을, 입법 활동을 활용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 제가 그 질문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인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드리는 것입니다.

저 논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 쓰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학위 논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정 위원 그러면 보는 분들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표절 기준이 있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희정 위원 그래서 표절예방 교육까지 하시겠다고 법안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표절 기준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단 인용하거나 어절이 동일한 경우 이런 건데요. 그런데 하여간 그냥 그대로 페이지 전체를 옮기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

이런 단어를 선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중국어 보는 데 있어서도 세심하지 못했지 않나라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논문 표절 넘어서서 앞으로도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중국에 온 이탈주민에 대한 이런 것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자나 도북자라고 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제기하신 네 편의, 제 논문의 바다, 즉 내용의 일부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혹 논문 작성 요령과 무관하게……

○김희정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무관하게 옮겨 쓴 부분이 있다면……

○김희정 위원 도북자나 반도자……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논문의 결론과 제 논문의 결론이 같은지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와 같은 결론을……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 질의시간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김희정 위원 앞으로도 도북자나 반도자라는 단어를 쓰실 거냐고 여쭙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논문과 같은 결론을 다른 어떤 논문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논문의 결론과 방향에 대한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번역 과정에서의 반도자와 도북자 문제는 저 논문의 내용과 상관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용례의 예이기 때문에 논문의 내용 또는 흔히 비판하고 있는 반도자·도북자를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쓰시겠냐고 여쭙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반도자·도북자 문제를 다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법을 바꿔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뭔가를 만든 걸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어떤 걸 만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정 위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올해부터 국가 기념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혹시 며칠인지는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7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면, 그 법에 나오는 내용이 이 논문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제삼국으로, 해외로 망명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북한으로 송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거기에서 중국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법입니다.

제 생각에 정말로 이 논문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그 법이 통과될 때 굉장히 본인의 논문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념비적으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국가 기념일 제정까지 우리가 작년 겨울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수많은 다른 단어가 있는데도 중립적인 단어를 영어에서는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광주민중화운동’이라는 좋은 단어를 놔두고 ‘광주 땡땡’ 이런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2010년에 제가 썼던 논문의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법으로 반영된 것이고 내용이 유사해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2010년에 제기했던 방향이 역시 옳은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고요.

역시 다시 한번 도북자 문제는 저는 앞으로 쓸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말씀하시고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용례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계속해서 정책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이 아마 지난해 5월 달엔가 이렇게 되고 지난해 7월에 처음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저 외통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후보님도 모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초저출생 인구 위기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379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약 380조이지요.

물론 이 380조라고 하는 저출산 예산에는 저출생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이 붙고 실제로는 저출생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 내용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이 1.43인데 딱 절반 정도, 2024년에 0.75 정도에 불과합니다. 2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나아지고 있지 아니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2023년 말에 한국은행에서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그다음에 저출생,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종합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OECD 35개국 패널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실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거나 또는 수도권에 있거나 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은 일단은 구조적인 경쟁 압력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 일자리·교육·문화 이런 것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 팬썬은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지는데 지역에 있으면 그 일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 수도권으로 일단은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수도권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50%를 넘어선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느끼는 경쟁의 압력이 그냥 우리가 지역에서 느끼는 경쟁의 압력에 비해서 8배 이상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의 압력이 큰 상태에서 이들이 편안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심리적인 이것이 되지 않는다, 경쟁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고용과 주거와 양육이 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결국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그러니까 저출생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마 이것을 모두가 다 알 겁니다. 과연 그러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이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말로 과감히 제대로 된 정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존립과 인구구조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고령화가 지속된다고 하는 건 결국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청년층이 느끼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과감한 산업정책, 인구정책,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데요. 다 말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디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부족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미루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과감하고 강력한 구조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너무 큰 문제고 모두가 여러 노력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여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집, 둘째는 교육, 셋째는 생각,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집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확보해 줘야 되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는 흔히 이야기하는 베이비붐세대인 86세대 플러스 위 세대의 은퇴 시기와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이어서 연금 외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종의 시니어 하우스링 문제를 반드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플랫폼 문제입니다. 교육, 주택, 결혼, 출생, 연금 등등 사실상 오늘의 청년층에게 중장기적으로 당장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을 할 때 청년층의 참여 비율을 확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 배심원제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회적 토론 기구를 만들 때 이런 청년성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한 청년 참여를 확 높이는 것이 저는 이재명표 사회적 문제해결의 특징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의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해 왔고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 일단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 기존 정부와 다른 점

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수도권 집중화를 막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막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속도로 가게 되면 앞으로 15년 후인 2040년 정도 되면 우리 전체 기초지자체의 3분의 1인 82개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느끼는 경쟁 압박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균형 발전 부분에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아주 과감한 정책들도 같이 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금방 말씀드렸던 저출산 문제와도 조금은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득세를 내는 방식이 현재 혼인이라든지 자녀의 유무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과세되는데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 등 어쨌든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단위로 세가 과세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세부담은 더 무거운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조세 응능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측면을 감안한다면 가족 단위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우리가 프랑스식 가족친화적 계수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인구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외국의 석학들이 프랑스의 과세 정책, 가족 단위의 가족친화 과세 정책은 성공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게 현재의 세수에서 바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아마 세수 손실이 크게 될 겁니다. 30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 항목, 공제 항목 이렇게 해서 대개 공제 제도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을 좀 정비를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너무 세수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우리가 380조를 퍼부었습니다. 그 사업에는, 일반회계 예산일 텐데요. ‘이게 정말 저출생 사업이 맞아?’라고 하는데 그냥 자꾸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한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구조조정한다면 충분히 과감하게 가족친화적 계수 제도도 도입이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거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계속 답변해도 되나요?

○**한정애 위원** 짧게 해 주시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한정애 위원님께서 소득세 문제, 월급쟁이 관련 세제 문제 등등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에 대해서 영점 이동을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해 온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경청하면서 현실에 맞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분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즉 초기에 적폐 청산이 불가피했었지요. 그 적폐 청산,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당시에는 적폐 청산을 검찰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물론 돌이켜 보면 꼭 검찰 손에 맡겼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검찰 특수부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 특수부가 오히려 비대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이 됐고, 그 특수부 수사를 주도한 특수통 검사인 윤석열은 공정과 정의의 화신처럼 등장을 해 버렸지요. 그러다가 윤석열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 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해 가면서 직접 청와대를 겨냥하고 수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 거리도 아닌데 톱 하면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 같으니까 이것 막아야겠다. 또 그 당시에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이제 내가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 이쪽 당에서 될지 저쪽 당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놓고 보면 그중에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가 조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수사·기소 분리는 결국 실패하고 검찰정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우선 검찰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으로 해야 할 일이어서 총리로 취임하신다 하더라도 총리님의 의지, 대통령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이지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입법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역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입법 후에도 또 유예기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좀 뒤야 한다, 이게 큰 변화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사이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입법적인 사항들, 시행령·시행규칙·예산·인력·직제 등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또 신속하게 개혁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기억하시겠지만 21대 국회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던 과정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황운하 위원 21대 국회 끝날 때쯤에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안도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황운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박병석 의장님 주재로 했던 합의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또 합의안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황운하 위원 즉 예전에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이는, 대폭 축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수사권을 다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황운하 위원 사실상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된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 정권 인사 수사에 나섰어요.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만든 법인, 부패·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직권남용, 정당법 또 위증교사 이것이 한동훈이가 늘려 놓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늘려 놓은 것이지 국회 입법 취지대로 부패·경제에 한정하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총리로 취임하시면 이런 위헌·위법적인 시행령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시절에 가장 잘못된 일이 시행령 통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인데요. 그것의 후과를 바로잡는 개선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깐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는 각 당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진행을 우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황운하 위원 시행령은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더 모아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당연히 시행령은 정부에서 할 일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바로 속히 개선하고 원상으로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바꾼 후의 시행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을 바꾸기 전에……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행령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운하 위원 현재의 법은 부패와 경제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모든 범죄로 늘려 왔습니다. 부패·경제 외에 모든 범

죄를 넣어 버렸거든요. 이것은 즉각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대통령령과……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 건에 대해서, 지금 딱 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행령으로 했던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저는 그것 전체를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선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 그렇게 이해하면 그 문제는 속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예컨대 시행령 통치 전반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이해했습니다.

○황운하 위원 정부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부패·경제로 줄여 왔는데 이것을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게 늘려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헌·위법한 시행령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도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황운하 위원 마지막으로 부패·경제로 대폭 수사 범위를 줄여 왔기 때문에 이에 수반해서 인력과 예산을 또 줄여야 됩니다. 인력과 예산, 이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금년 예산부터 이것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부터 수사 대상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수사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에 안 줄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줄여야 되고, 인력도 줄여야 된다…… 일이 줄었는데 왜 인력이 그대로냐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것은 정부가 즉각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황 위원님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잘 마치고 일을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고 저것을 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논문에 대한 표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카피킬러라는 것도 있고 턴잇인(turnitin)이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논문 같은 경우도 10~30%까지는 유사도, 표절률이 걸립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인용, 각주 그런 게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문적 표절이라는 것은 출처가 없이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 또는 분석 결과를 도용하는 겁니다. 단순히 유사한 문장의 비율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후보님 것을 한번 저 개인적으로 봤는데 그 정도 비율은, 또 조건을 어느 정도, 6음절이냐, 4음절 기준이냐, 8음절 기준이냐에 따라서 표절률이 나오는 결과가 다릅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후보 논문 같은 경우는 각주, 참고, 인용, 주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 청화대에서 어떤 기준과 실질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학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권위적으로 판정을 했느냐는 건데……

후보님, 대학 판정할 때 표절이라는 판정 또 CNKI 이런 검증 프로그램을 대학 내에서 돌렸을 거고 또 교수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전혀 없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전혀 없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현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접근과 결론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고 좀 색다른 결론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그런 인용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돌려 보니까 다른 데서는 20% 정도대의 비율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 것 같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채현일 위원 제가 돌려 보니까 10% 후반에서 20% 초반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이 다르고요.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판단하는 게 학계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탈북자 인권 문제라는 논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지 항상 걸다리를 언급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청문회에서.

특히 후보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이라서, 청화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북미나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문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본문을 보니까 92%가 영문이고요 8%가 중국어입니다. 문제가 됐던 도북자라는 것도 영어로 노스 코리안 디펙터, 한국말로 북한이탈주민, 짧게는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혼용돼서 쓰는 단어 중의 하나가 도북자입니다. 그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보가 했던 그런 단어 몇 개, 내용과 맥락은 보지도 않고…… 후보자가 진짜 이것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땀과 노력이 담긴 논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색깔론이니 아니면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탈북자 인권 문제 개선책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그 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국과 유엔난민기구의 협력이 핵심이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자국을 떠난 사람, 탈북자에 대해서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탈북민 보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래서 전혀…… 하여튼 일부 언론이나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한 탈북자 비하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탈북자에 대해서 귀순자, 북한이탈주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써 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실패, 구체적으로 후보가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제2의 IMF 위기라 할 정도로 상당히 경제가 망가졌는데 구체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께서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사실 우리나라 같은 무역과 수출이 중요하고 중규모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전략적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고 IMF 극복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한미 FTA 구축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사실은 국가가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국가 전략을 쓴 것도 크게 보면 당시 경제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의 경제를 살리는 국가 전략 내지는 집중력 또는 경제에 집중하려는 실질적인 대통령으로서의 행보 이런 것은 찾기가 쉽지 않고 좋은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든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경제도 참 어렵고 한테 누구도 이것을 내놓고 역동성을 가지고 살리도록 풀어 나가는 그런 구심이 형성 안 된 채 지난 3년, 가장 어려운 3년, 가장 중요한 3년이 지나간 것이 우리로서는 뼈아프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저는 후보가 갖는 강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감각,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통합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그리고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면 위기 관리 능력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께서요.

새로운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로서 국가도 통합하고 위기를 관리할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후보의 경력을 보다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MF 외환위기 극복,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극복, 세 번째는 불법 계엄 저지입니다.

첫 번째, IMF 외환위기 극복,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IMF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IMF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여를 해서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지금 민생 위기,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백신 공급 문제로 상당히 어려울 때 정부, 청와대와 협의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제일 먼저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방역을 성공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선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계엄 저지입니다. 2024년 8월 17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당시 국방위에서 후보께서 계엄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다,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찰력입니다. 정치적인 통찰력이라고 보는데 국방부장관 교체는 국지전, 북풍조성을 통한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최초로 공론화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이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후보가 18년 동안, 그간 겪은 고초와 역경 그런 것이 결국은 준비된 리더십, 내공,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책 속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치인 이재명과 김대중의 삶이 닮았다. 지독한 고난의 개인사에서 쌓인 내공이 국가의 어려움 극복에 절묘한 자산이 됐다’. 저는 이 구절이 김민석 후보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후보께서 제2의 IMF라고 이렇게 규정했을 때 IMF를 경험했고 그러한 자산이 아마 총리가 되시면 큰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아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시면 이 제2의 IMF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대비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를 국민과 함께 정말 어려울 때 극복했던 것처럼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극복하고 돌파하고 위기를 극복해서 선진국으로 정착시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때 김대중 대통령과 보수의 지도자들이셨던 김종필, 박태준 이 지도자들께서 손을 잡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셨던 것처럼 지금은 보수 정치를 해 왔던 정치인들과 그것을 지지해 왔던 국민들도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소한 2년 전력으로 힘을 합쳐 주셔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기는 극복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작은 힘을 보태면서 참모장으로 역할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저희는 K-민주주의 또 K-문화국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에서 우뚝 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저는 원래 논문 표절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기준은 좀 명확합니다. 인사 검증을 할 때 각주랑 인용 여부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각주나 인용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은 아까 제가 화면에 뜬 것만 보더라도 거의 많은 문장들이 제대로 된 인용이나 각주 없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는 건 제가 존중하는데 그 기준이 무너졌으면 사실은 통상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그렇게 표절을 판단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어떤 인사 검증을 할 때 또 인사청문회를 할 때 같은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후보자로서 기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2010년 시점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별로 제기를 안 할 때 그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중국의 대표적인 대학에서 저 문제를 제기할 때 저 나름으로는 탈북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저 문제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진우 위원** 그건 존중하는데 반대 시각에서 보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청화대에서 논문을 심사할 때 왜 저런 것도 못 걸렸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국내에서 탈북민들과 비교적 깊게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논문을 쓸 수 있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희가 재산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은 사전에 자료가 제출돼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증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핵심 내용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을 때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청문회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쭙볼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6월 16일에 처음으로 후보자께서 페이스북에 입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에서 수입과 지출 차이가 딱 봐도 너무 차이가 난다, 스스로 신고한 내역을 보더라도 공식 수입 외에 2배 이상의 지출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해명이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썼다 이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저도 그렇고 ‘아, 기타소득인가 보다’, 기타소득이라는 건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출판기념회의 현금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사실 출판기념회가 제일 큰 금액인데 또 배우자의 처갓집에서의 어떤 지원 같은 내용이 하나도, 제일 큰 부분이 빠지고 나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3일 뒤인 6월 19일에 언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는 금액의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해졌을 텐데 축의금·조의금, 출판기념회 2개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배우자 얘기가 없었거든요. 액수가 지금, 그러니까 뭐 차치하더라도 대략 오류억 정도의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돈들이 있는 건데요.

그 돈에 대해서 해명이 이제 와서, 여기 청문회장에 와서 이제는 또 장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2억 원이나 됐다라고 하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명이 자꾸 바뀌면 가뜩이나 현금이고 무슨 공식적인 입금 계좌나 이런 것으로 확인도 안 되는데, 자료도 제출 안 되고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시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소명됐다고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2억 원 정도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는 되어 있는 건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사실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그런데 그게 이번 과정에서 총액이 제법 돼서 그에 대해서 증여세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증여세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처리가 된 건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제 발견해서 처리를 한 것이네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렇게 손을 좀 벌렸다 하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배우자의 수입원에서 후보자님의 무슨 추징금을 변제하도록 한

다든지 이렇게 돈이 섞인 건 없이 그냥 배우자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쓰인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거기서 저의 세비가 보셨다시피 매달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다 잘라서 들어가는 식이어서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 갖고 나머지는 분납하는 식이어서 그것으로 다 추징금에 썼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남은 돈을 갖고 생활하는 것을 딱딱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생활비를 이렇게 요청한, 지원을 받은 것이어서 거기서 무슨 추징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증여세 납부는 언제 얼마를 했는지 여쭙볼 수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2억 원 정도 중에 1억 원 정도는 계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은 제가 믿는데요. 내역이…… 그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계좌번호 다 가지고. 지금 현재 의혹이 불거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무리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소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 금액의 계좌번호 다 지우고 액수만 확인되고 입금자 이름조차도 다 지워도, 그 내역은 좀 추려서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모님하고 아내하고 사이의 입금 계좌가 송금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있던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당사자들이 다른 이유로 이걸 좀 불편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 송금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방식으로 최대한도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현금 1억 원이라는 말이,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지만 현금을 막 5000만 원, 1억 원씩 집에 쌓아 두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현금이 있으면 사실은 이자가 붙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현금 보관할 때 도둑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는 당연히 보관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현금 부분 중에서,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장모님께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따로 전달했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희 장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축의금을 처음에 전달해서 그냥 가지고 계셨던 것도 있고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부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하셔서,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 것을 현금으로 두고 이런 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현금 1억 정도는 한 번에 전달이 된 것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건 당연히 아니지요.

○주진우 위원 어느 정도씩 전달이 된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5년 동안에 걸친 것 아닙니까?

○주진우 위원 대략 어느 정도……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5년이니까 한 달에 해 봐야 많으면 몇백 이런 식이었겠지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데 현금을 쌓아 두고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금원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런데 장모님, 한 할머니님, 이제 팔십 넘은 분의 그걸 가지고 저한테 여쭙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아들 유학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배우자께서 내셨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제가 아까 이미 소명 방법으로 간접적 방법……

○주진우 위원 소명 방법을 듣고 나서 제가 반론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원래 우리가 딱 코넬대 입학 자금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한 몇천만 원 단위이지 않습니까, 학비를 내는 것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뭔가 달리를 바꿔서 들고 가거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무조건 송금이지요.

○주진우 위원 예, 무조건 송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받은 자료를 보면 뭐가 오류가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왔느냐 하면, 아드님의 외국환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준 쪽과 받은 쪽이 전부 다 나올 수가 있고 실제 아드님 계좌만 보더라도 바로, 예를 들어 복사해서 가릴 것 다 가리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건 이겁니다. 저로부터 송금된 아들에 대한 외국환 신고 내역이 없다는 그 확인서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진우 위원 그러면 아드님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전 배우자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보낸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진우 위원 그래도 지금 인사청문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그런데 애 엄마가 아이한테 보낸 것은 확실한데……

○주진우 위원 계좌에 찍혀 있는 것도 그러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애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보내 달라, 말라 할 만한 처지는 아닙니다.

○주진우 위원 아드님한테 여쭙볼 수 있잖아요, 아드님한테. 아드님에게 말씀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 아이는 이번에 인턴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주변의 이러저러한 기자 등등등등 때문에 한 백여 명씩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메일을 보내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 형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아드님한테도 말씀 못 드렸다는 건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추정컨대 애 엄마가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FM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별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제가 ‘이

걸 계좌를 공개해 주시오'라고 전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 많은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방금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아들 유학비 관련해서도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사실 전 배우자한테 아들 잘 키워 줘서 고맙다 해도 모자랄 판에 전화해 가지고 잘 키워 준 건 고마운데 애 유학비 어떻게 보냈는지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배우자도 TV를 통해서 청문회 장소를 보고 있을 텐데 계속 전 배우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아들 문제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항 속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규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시간까지 후보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저는 굉장히 좀 정치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소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전용기 위원 그리고 배우자가 생활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후보자한테는 말도 못하고 친정에 연락해 가지고 생활비를 좀 받았답니다.

사실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장소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야기했나, 과거 언론보도에서 당신 배우자가 친정에 생활비 받은 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지금 얘기하니까 답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야당의 주장에도 청문 정국이기 때문에 심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고 생활비 내용에 대해서 나왔고 심지어 방금 전에는 증여세까지 납부했다,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어서 그것까지 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한 거, 엄마하고 딸 사이에 있었던 거래 내역까지 이름 지우고 금액 지우고 보내 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금의 융통 문제, 당신이 장롱에다 몇억을 넣어 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세상을 선과 악으로 그리고 저는 뭐든지 1원 하나까지라도 증명해야 되는 사정 정국, 감사의 시각으로 봐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국무총리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생활비 문제, 가정사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 사람의 논란을 사실상 없는 사실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는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해당 부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얼마한테 딸이 요청해서 받은 것까지 증명한다 그러면 저는 저희 의원실은 안 보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제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 문제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표현의 자유를 매개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 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사이버 레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실 겁니다. 백가, 탈덕수용소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사이버 레커다라고 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한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차별 회장들—최태원, 정용진—대기업 총수들도 사이버 레커들에게 굉장한 명예 실추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강력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후보자께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굉장히 모욕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 처벌 못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미국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잘 아실 겁니다.

백가, 탈덕수용소 이분들이 연예인이나 셀럽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다 보니까 국민이 결국에는 고발했고 미국의 사법 제도까지 이용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예로 들면 법원에서는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해서 미국 법원에서 오케이를 받아야만 그 사람의 신상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이버 레커들은 그 법망을 피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전용기 위원 한국 플랫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사실상 수사 협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플랫폼에 있다가 약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외국 플랫폼으로 숨어들어 가요. 단순히 유튜브뿐만 아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대리인 제도가 똑바로 안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징벌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똑바로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고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따르겠다라고 해외 법인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 저는 그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 마지막에, 쓰셔야 되니까 막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예.

사실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구태여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이용을 해서 우리

가 타인의 자유를 훼손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사이버 레커를 포함한 최근의 여러 가지, 일종의 각종 미디어 환경이라든가 문명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용기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당내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관심 갖는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미국 말씀하셨지만 제가 미국서 법 공부를 하면서 제일 크게 하나 느꼈던 것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명예훼손, 특히나 공인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폭을 넓게 하지?’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 폭도 넓고 많이 참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을 해서 우리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그것이 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공인이건 아니면, 그러니까 정치적 공인이 아니더라도 또 일반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은 조금 환경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이용하려면 또 수억대 들어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대응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은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 굉장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느껴서 자살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 사회적 현상을 낳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전용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애인들, 그러니까 와상장애인들이 비행기 탈 때도 여섯 자리를 예약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네 자리인가 여섯 자리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누워서 가야 되니까 사실상 의자 여섯 개를 빼야 되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단순히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지금 사실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법이라도 통해서 자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께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 종교계도 방문하시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랬습니다.

○전용기 위원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도 만나 뵙고 하셨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전장연분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방법이 이게 맞나 싶은 상황이 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절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임 한덕수 대행께도 몇 번 만나고 찾아가고 우리 사회 각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총리가 되면 작더라도 명확하게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사실 지금 정치권의 논란이 이 장애인분들이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출근 시간에 바쁜데 왜 이것 계속하냐, 이것 못 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화돼서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저도 휠체어를 타고 광화문역을 가 봤는데 그 큰 역사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어요. 사실상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작더라도 최대한의 그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전용기 위원님께서 아까 그 신상 관련한 자료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할 상황이 되더라도 전 위원님께서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감사하게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께서도—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제가 여러 가지를 믿지만 검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포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털릴 만큼 털린 사람이고 널 만큼 다 낸 사람이고 그래 봐야 2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보시고 더 큰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종배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청문회가 시작해서 이제 곧 저녁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기간에 두 가지 뉴스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는 숙명여대 김건희 씨의 논문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들이 과연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표절에 대해서 얼마나 온당하게 지적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란 종식, 국정 안정이 이번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배경입니다. 특검에 의해서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란을 선전·선동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국민들 사이에서 퇴근을 왜 안 하느냐—출근 안 하는 대통령은 봤는데—제때 퇴근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앞서 5·18 사태,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헌법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 사이에 5·18 민중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을 하자라는 게 여야 합의된 내용이고 향후에 국무총리께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과 함께 이 헌법전문에 5·18 민중항쟁을 수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5·18 민중항쟁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그런 물역사적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2022년 4월은, 검찰 특수부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된 게 3월 9일이었고요. 4월 달은 문재인 정부이긴 하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매우 날카로운 시기였다는 점과 아울러서 2023년 11월은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셨지만 2024년 1월 9일 전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또는 출마할 생각이 없는 대한민국 누구라도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참사를 세 가지 꼽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18 민중항쟁,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실에서 이태원참사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명단을 받았는데 이게 최초로 나갔다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께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최초로 나갔다는 사실은……

○김현 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22년도에 이태원참사가 나고 난 뒤에 영정과 위패가 없는 추모제를 지냈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국회의장장을 지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에 의한 제대로 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지 못했고 희생된 영령들의 위패 또는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개인정보라고 하는, 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 앞 번호, 남녀 구분 이것은…… 왜냐하면 산 자와 죽은 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남녀와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부는 이름이 마치 개인정보인 것처럼 그것을 공개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미디어인 민들레는 그로 인해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유포 경위 때문에 해당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모진 고초를 겪었던 일이 바로 이태원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둘러싼 윤석열 정권의 패륜행위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임명이 된다면, 대통령께서도 지난 후보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 되어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하고 이태원 문제와 관련해서 예고하지 않고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올해에는 10·29이태원참사가 정부 차원에서 추모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후보자의 생각을 여쭙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지금 김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국가 재난·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태풍, 홍수 그다음에 가뭄 그리고 봄 되면 또 화재로 인한 참사, 자연재해가 있고요.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대응을 잘하느냐 또는 대응을 잘 못했을 때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문제가 결국은 제2·제3의 피해를 막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참사 문제와 아울러서 오송지하참사 문제도, 사실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자연재해, 사회재해가 곧 또 계절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시간에도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또 비·눈이 안 와도 걱정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모든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보고 이런 재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총리가 해야 되는 일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께서 국정에 전념하시는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재난의 가능성부터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챙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예. 최근에 벌어졌던 일 중의 하나가 SK텔레콤으로 인한 통신재난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 구분에 보면 통신재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기부에서 국민들에게 해킹이 됐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문자를 발송해야 되는데 그 발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 지진 그다음에 태풍, 홍수 이런 자연재난에 대한 또는 사회재난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지금 통신재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의원발의를 하면 그것이 국가 위기체계 안에서 잘 관리돼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2500만 명이 지금 사실상 잠재적 그런 피해가 있고 해킹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킹 사건은 예를 들어 과기부에서 관리한다 내지는 국정원이 어디까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느냐라는 걸 놓고 유심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국정원에서 초기에 유심을 빨리 교체해라라고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에는 유심이 없어서 교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교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SK텔레콤은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유심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SK텔레콤이나 과기부는 그 전 단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임명이 된다면 바로 그 SK텔레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국무총리 단위에서 과기부하고 방통위하고 개보위와의 그런,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 영역에 있는 통신사업자하고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말씀 주신 통신재난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사안이자 재난이자 안보에 관련돼 있기도 하고 나아가서 책임성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문제여서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발언하기에 앞서 아까 질의 중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제가 올바르게 못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배준영 위원 후보자님은 제가 인생 역정을 보니까 정말 18년 동안 고진감래의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도 많으셨는데 여기까지 오시려고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께 우리가 질의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정책 질의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책 한 권을 만들어 갖고 정책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증인 채택을 저희가 못 하고 자료도 채택을 못 하고 그리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현장에서 물어보라고 총리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에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때는 3일을 했습니다. 이틀을 하고 3일째는 증인으로 채택한 분들과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리후보자가 공직기강에 대해 총괄하는 임무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감찰 활동을 총괄하시고 감사원과 협조해 갖고 정부합동 감찰반 등 감찰기구 운영하시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에 따른 제도개선도 하시고 청렴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등 공직윤리제도 관리감독도 하세요. 그리고 공직자의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대국민 사과와 대응 지시도 하십니다. 그리고 실무 조력 기구도 있는데 맞는지 한번,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라고 있고—공직기강 감찰입니다—반부패비서관실 청렴 정책 이것도 지금 있습니까? 이런 것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모든 공직자들이 총리님을 정점으로 총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기강과 청렴 업무를 담당하시려면 거치지 않고는 죄송합니다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지만 일선에 계신 공직자들이 총리로 정말 존경하면서 따르고 지휘 방침을 인정할지 그런 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배 위원님이 그런 선의와 공적인 의무감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합리적 의심들에 대해서 다 짚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부금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독실하신지 잘 알고 교회에 많은 기부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기부금을 통해서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채무 관계를 해결하시려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저기서 돈을 조달하고 갚아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5500만 원을 기부하시고 21년도에는 2300만 원, 22년도에는 4300만 원, 23년도에는 3500만 원, 24년도에는 3600만 원, 이렇게 큰 기부를 하는 게 참 좋은 일이고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적 채무를 비교적 최근에 해결하셨고 사적인 채무도 최근에 해결하셨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으로는 빚을 받기를 기다리는 개인 또는 정부에게 먼저 하는 게 상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한번 여쭙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중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을 기부하셨는데 4800만 원은 교회에 하시고 700만 원 정도 다른 데 하시고, 21년도에는 2300만 원을 하셨는데 교회에 1900만 원 하셨으니까 한 400만 원은 다른 데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4300만 원을 토털 하셨는데 2900만 원 하셨으니까 한 1400만 원을 다른 데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어디에 무슨 이유로 얼마씩 기부를 했느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아시겠지만 기부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을 제가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행위를 저희가 밝히려는 게 이 기부를 예를 들어서 지역구나 지역구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 하시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명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기부금이 과연 무슨 기부금인데 빚도 갚지 않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밝혀 달라는 거고.

이것은 좀 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의원 되시기 전에는 교회에 거의 기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부 내역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통계상에 잡힌 게 없습니다. 이 기부금 영수증을 보니까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부 내역이 전부 의원이 되신 다음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되기 전에는 힘들었고 그랬으니까 의원이 되시고 나서 소득이 생겼으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또 어떻게 다르냐면요 평상시에 하는 비슷한 수준의 현금은 용인하지만 갑자기 기부를 많이 한다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게 정말…… 중앙선관위 아시지요? 굉장히 까다롭고 규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선 교회 헌금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기부금을 어떤 이유로 어느 곳에 얼마씩 했더라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쪽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답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 있는 기부가 있었다면 그것은 선관위에서 이미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선관위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통상적으로라면’이라는 전제를 다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공적 채무나 사적 채무를 다 갚은 후에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공적 채무나 사적 채무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납부 안 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배준영 위원님께서 아까 이걸 조금 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걸 조금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기부금 기부처에 대해서 자료제출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기부금은 물론 헌금 등에 대해서도……

○배준영 위원 아니, 헌금은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미 언급,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배준영 위원 예, 알았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런 유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기부처를 밝히지 않으시겠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후보자께서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 좋은 일로 한 걸 꼭 구태여 밝히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헌금 외에……

○배준영 위원 좋은 취지라도 지역구에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 이종배 아, 그렇습니까?

○배준영 위원 예.

○위원장 이종배 한번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저녁 늦게까지 식사도 못 하셨지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요.

○위원장 이종배 저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은 한 70%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또 오기형 위원님은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08.5%라고 아까 도 표에 제가 봤습니다.

선진국의 규모도 그렇고 이게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 말씀하셨던 취지가,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던 취지가 우리는 좀 낮으니까 더 국채 발행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들려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게 국가신인도, 국가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신인도도 떨어지고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같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수출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고요.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정하려고 지금까지 기재부 등 또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온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국가채무비율을 50%로 제한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작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60%로, 관리재정수지비율을 GDP의 3% 이내로 하자 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기재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재정건전화법을 낸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결국 합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했는데 이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선진국 중에서 상당한 나라들이 자기들이 화폐를 찍어 낼 수 있는 기축국가들이에요. 우리는 비기축국가 아닙니까? 기축국가들은 채무 비율이, 국채 비율이 높아도 해결이 가능하지요.

국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 한 250%대 그렇고 미국도 한 120%대 됩니다. 또 많은 EU 국가들이 70~80% 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이건 기축국가잖아요. 비기축국가, 우리 같은 비기축국가는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기축국가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우리가 중간보다 좀 높은 상태거든요. 현재 발표된 거에 의하면 우리가 54.5 또 비기축국가 평균이 54.3%. 그래서 우리가 조금 높은 편인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령화 문제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의무적 부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 발행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번에 아마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19.8%인가 그런데요…… 아니, 19.8조. 그래서 20조에 가까운 금액이

국채가 발행이 돼서 이제 우리 정부 채무가 1300조를 넘어서는 겁니다, 1300조. 그래서 국가 채무를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2차 추경인데 앞으로 추경을 또 할 때 우리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 소비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이 한 13.2조, 국비가 10조 3000억인데요. 이런 거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점도 있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민생이 좋고 경제만 잘 돌아간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재정 여력이 있다, 부채 여력이 있다, 국채 여력이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내도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우리가 부채가 느는 속도, 추세, 전망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건전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큰 그림에서의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파이를 올리고 성장 자체를 돌아가게 하는 고민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이제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득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심을 한 건데 KDI 등 연구기관에서 한 것 보면 한 20~30%밖에 추가 소비로 안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잘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재정건전성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너무 부채를 많이 발행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국가경제 살리는, 내수를 살리는 문제도 우리가 중점을 뒀야 되지만 경제 전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얘기 좀 드리면 일본이 작년에 이런 경기회복지원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지원금을 주려고 했었는데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전에 너무 많이 발행했던 것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니 그런 얘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뒤쫓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재정 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OECD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낫다, 재정 여력이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OECD 보지 마시고 비기축국가 보시고 재정 여력이 우리가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후보자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것 같고 내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금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확장재정이나 긴축재정이나의

관점보다는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회복 재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말씀처럼 비기축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있으면 지켜 나가는 노력은 하는 것이 재정준칙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아까 부채비율 잘못 얘기하셔 가지고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아까 정부부채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런 부채비율에 대해서 개념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운용을 하실, 앞으로 총리 되시면 그렇게 운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에 속개해서 3차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3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보충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후보자님, 아까 출산율 감소 문제 질문을 드리다가 중단이 났습니다.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율 저하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보다도 청년들이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양비 문제 이것 때문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머지않아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태유 교수님, ‘청년이 없는 나라’ 책을 최근에 출간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 부양비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비롯한 이모작 사회를 제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직업을 부여하자,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유동지능이 요구되는 창의적·기술적 분야에 종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노년들은 결정지능이 중요한 상담·행정·교육·돌봄 분야 등에 진출하게 한다. 즉 세대별 분업을 통해서, 국가경제 이모작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 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던 구조에서 청년과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없는 노인 1명을 부양하기 때문에 부양구조가 역전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 이모작 그리고 국가경제 이모작을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채용을 하는 기업이 또 노조가 협조를 해 줘야 하고 또 교육기관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를 해 줄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우리 민주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순

히 5년 앞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 방안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이 문제는 국가적이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김태유 교수님의 책을 마침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원래 이모작 사회라는 문제의식을 오래전부터 제기하신 분이요 굉장히 탁월하고 존경받는 학자신데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 주신 것을 다 저희가 감안하고 그중의 핵심이 세대별 분업으로서의 이모작 경제를 살리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안되는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잘 정책화하는 노력을 하고.

다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관심과 연계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상의 노인 직업—노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이 직업의 개발과 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평생학습을 강화하는 문제와 연동돼 있고 이 평생학습이 대통령님의 어떤 철학 또는 지금 소속하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기본사회, 기본소득과도 연동돼 있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 서비스로서의 평생학습과 연동돼 있어서 이 문제를 조금 정책화해서 강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산율 또는 출생률 문제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적으로는 집, 교육 그리고 생각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거냐 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제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기형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위원회에 올라 있습니다. 이미 드린 질문인데 또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징계 일자가 내일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내일 징계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고위공직자가 헌법 파괴 사범에 대해서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기계적인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저는 오히려 전 정부의 장관들, 총리가 전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방치했다가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기를 흔들었던 이 상황을 감안을 하면 고위공직자에게는 어떤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보다도 헌정 질서, 법 질서 또는 국민의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가 만약에 내일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공직 사회에 불러오게 될 부작용 이게 얼마나 클 것인가 이 측면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의인이 오히려 징계를 받고 불의에 타협했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잘못된 구조 이런 것들이 형

성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아직 취임은 안 하셨지만 사실상 총리가 될 걸로 다들 짐작하는 분의 입장에서 한마디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인사혁신처라든가 징계위원회의 판단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 혹 다른 이유는 전혀 개재되지 않고 제기하신 그야말로 현재의, 최근의 헌법적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정당하다고 지금 국민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로 만약에 징계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라면 굉장히 국민적인 이해를 얻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라면 저는 현재 정식으로 인준을 거쳐서 취임되기 전이지만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정부의 여러 관계된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겠는가 짐작을 하고 있고요.

혹시 또 그에 더해서 그것이 정녕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도 저는 사후적으로도 계속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극우 유튜버들 또 사이버 종교 세력 등이 함께 법원에 난입을 하고 또 경찰관들 56명을 다치게 하고 기자를 포함한 민간인 40여 명에게 부상을 가하고 또 재산적인 피해만도 7억에 이르는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그게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 질서를 농락을 했던 윤석열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었던 것이지만 또 여기에 야합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어떤 사이버 종교인과 또 돈벌이에 나선 극우, 수구 유튜버들 여기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어떤 사이버 종교인 중에 유명한 전광훈이라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경찰이 여기를 제대로 처벌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나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것들을 가볍게 방치했을 때 언제든지 이런 불법 폭력 세력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제보받았던 바에 의하면 이 사이버 종교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야당—그당시에 이재명 후보였지요—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어떤 테러를 가하겠다는 의사 표명까지 해서 그 얘기가 우리 당에게까지 제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국민들과 악수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가져오게 했는데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시면 경찰에 이 문제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지시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위법의 요소가 명료하고 또 그 위법이 국민들께 끼치는 해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조치가 이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여부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그러한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요청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후보자가 얘기한 자료제출 관련해서……

○위원장 이종배 박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좀 의견을 나눴는데 제가 메모를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성적표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 청화대 성적표 말씀드렸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내 주시면 좋겠고.

항공 관련 자료도 내신다고 그랬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중국 관련한 것만 국한해서 요청해서 그것이 그렇게 국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출입국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배준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 주십시오. 그것도 내 주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다만 그 전제에서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렇게가 아니라 몽땅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하기가 어렵고, 그 시기를 특정해서 제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단지 자제분한테 학비로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안 보낸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제삼자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가 당초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처분이 내셨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명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받았다고 하시는 1억 8000에 관련해서 대출받은 사실이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1억 8000을 언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잠깐만요. 그것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억 8000 대출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드리고 그것은……

○배준영 위원 그것은 확인, 어디다가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추징을 갚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또 선거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해서 가능한 선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죄송한데 아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학비 부분은 그러면 제가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혹시 애들 엄마가 보낸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저에게 의사 표명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또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이해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또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해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해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요청하신 것은 이해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요청한 걸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됐지요?

○주진우 위원 제가 그러면 한말씀……

○위원장 이종배 자료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주진우 위원 예.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시지요.

○주진우 위원 아까 1억 8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해에 제가 재산 등록된 걸 확인해 보니까 1억 8000만 원 금융채무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억 8000만 원을 빌렸다가 또 그해에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갚은 변제 내역까지도, 그 자금원까지도 우리가 해야지 돈의 아귀가 딱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선거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서 대신에 추정금을 1억 1500만 원 갚은 것은 선거 비용에서 보전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그 돈에 관련해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 8000만 원에 변제 내역까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찾아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유학비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딱 그것 하나입니다. 사실 아드님…… 그러니까 전 배우자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외환 송금이어서 양쪽 다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양쪽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선원 위원 적당히 해요, 적당히! 왜 후보자한테 하고 그래요. 자료제출인데 적당히……

○위원장 이종배 뭘 적당히 합니까? 뭘 적당히……

○주진우 위원 아니, 물어보셔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한테 해야지요. 지금 질의가 아니잖아요. 후보자한테 하면 안 되지요.

○주진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종배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에 대한 답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진우 위원 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되지요.

○위원장 이종배 그래도 되고요.

○주진우 위원 저는 아들 유학 비용은 프라이버시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 배우자한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외환 송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에다 돈을 보내면 아드님 계좌에도 돈이 송금이 되는 거거든요. 아드님 계좌의 반쪽 사본해서 내는 게 왜 어렵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삼자가 그 돈을 댔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자는 건데 내가 안 냈으니까 제삼자가 대지 않았다?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되도록, 다 현금 거래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제대로 저희가 검증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있던 기준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의 의사, 동의에 의해야 되거나 해서 제 권한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 자료에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서 국민의힘 인사청문 위원들이 열 가지 정도의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중에서 뭐 하나 지금 시원하게 자료로 입증이 되거나 해명이 되거나 한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한 3개 정도가 더 붙은 것 같아요. 청화대 논문에 대한 표절 그리고 출판기념회 때 직위를 이용한 금전 이득 그리고 한강빌라에 대해서도 그냥 ‘모친 소유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됐지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열 번째 반미 전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후보자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또 기왕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는 정도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까지 말씀하신 전체에 대해서 맞냐고 여쭙보신 거면 동의하기 어렵고요.

○**박규택 위원** 아니, 반미 전력 이 부분에 대해서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반미 전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굳이 다시 반복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려도 그 설명을 별로 반영해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박규택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과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드에 대한 입장.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을 당연히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기배치되어 있는 상황과 그것이 부족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배치되어 있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규택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지금 후보자의 과거 전과를 보면요 본인은 직접 가지 않았다 말씀하시지만 미 문화원 점거 이 사건 때문에 실형도 복역하셨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반미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변호사라고 해 가지고 반미가 아니다 이렇게 바로 단정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보도 난 것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미국 로스쿨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합격한 다음에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위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단계에서 과거의 미 문화원 점거로 인한 유죄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과연 후보자가 지원 당시에 이런 자료들을 냈는지 이런 것을 요청하니까 자료제출을 안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한 이후에 각 주 변호사협회에 등록할 때는 인성 및 자질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거 전력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히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자료를 냈다면, 이와 같은 전과가 있는 전력이 담긴 자료를 냈다면 과연 그 주 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됐겠느냐 하는 이런 의혹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어떤 언론이라고 표현되는 잘못된 보도에 근거하셔서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문화일보예요. 안 보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고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미국에서 로스쿨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변호사협회에 등록할 때 이런 과거 전력에 대한 자료는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갈 때부터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미국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본인 기억하시겠네요. 그런 자료 요청 내용 중에서 과거 형사재판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래서 문잖아요, 제가 지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래서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답변을 특이하게 하시네요.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오늘 광주민주화운동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조금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거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그것도 범행 동기가 5·18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000년 5월 17일 5·18 전야제에 참여하신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곽규택 위원 그리고 그 추모식 다음에 새천년 NHK ROOM 가라오케 유흥주점에서 술 드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술을 잘 먹지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간 적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간 적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때 현 정부수석 우상호 그리고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등등 10명 정도가 참석했다 하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서 참여해서 활동하신 장성민 전 의원과 그다음에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으로 활동하셨던 김성호 전 의원이 각종 기사에 그때의 상황이 특히 저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글을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때 현장에서 후보자를 직접 보고 언론에 기고까지 한 임수경 씨의 글이 있어요. ‘386 그 두 얼굴의 위선을 알린다’ 제목의 기고 글을 통해서 ‘술집에서 술집 아가씨들을 끼고 술에 취한 채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그날만은 정말로 그럴 수 없는, 가장 엄혹한 역사의 칼날로 단죄받아 마땅하다’. ‘김민석 후보자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내가 들어선 것도—임수경 씨 같아요—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사라는 취지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2002년 7월 ‘월간 말’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에 계셨던 장성민 전 의원이 그때의 상황이 임수경 씨가 얘기했던 것과 사실과 다르다고 이미 기술한 글이 있고 역시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도 최근에 그와 동일한 취지의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5·18 하루 전날 5·17 전야제에서 끝난 다음에 NHK 유흥주점 가 가지고 술자리 한 건 맞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질문하시는 문제의 본질이 그 술자리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정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오기형 위원** 취조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묻는 말에만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오기형 위원** 기사예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묻는 말에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곽규택 위원** 그 사실 자체가 틀린 사실이에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틀립니다.

(「틀려요」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총리후보자가 여러 분 등장하시네.

그리고 부산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정치 경력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같은 정당에 있었던 분들 사이에서도 과거의 글들을 찾아보면 서로 비판하는 글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후보자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그때는 잘못 판단해서 그랬습니다’라는 건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하는 문제가 21대 국회 때부터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 때는 부산에 있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하자 하는 법안을 냈었고요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법안을 냈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전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공약 사항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찬성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선일 때.....

○**김현 위원** 계속 띄우고 가는 게 맞습니까?

○**곽규택 위원** 바꿔 주세요, 좀 이따가.

○**김현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질문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계속 띄우고 가는 게 맞냐고요, 진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 위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 과거에 반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일관되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산업은행 이전 저지’ 지난 총선 때 후보자 본인이 지역구에 걸었던 현수막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뭐가 대답이 그래요?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은행 문제에 대해서 금융계와 또는 관련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시간만 자꾸.....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뭐에 대해서 하시려고요?

○**김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지요. 그것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내용하고 상관없는 걸 계속 띄워 놔서 망신 주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그건 위원장이 잡도록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행정실에서 제대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배**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분은 2020년의 40억이 작년에 52억으로 재산이 늘었고, 어떤 분은 변호사업 중단했는데 자식 유학 보내는데 큰소리치고, 어떤 분은 선거 두 번 떨어져도 30억 넘게 재산이 불고, 어떤 분은 70억 넘게 있고 2년 동안 2억 4000만 원 재산 늘고 자식한테 7억

4000 증여해도 후원금 빼고 단돈 6000만 원 있는 총리후보자께 하루 종일 인신모독에 흑색선전에 왜곡·허위 사실로……

이게 청문회 맞습니까, 위원장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 발언 시간에 말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종배 박선원 위원님, 동료 위원에 대해서……

○박선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동료 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뜨끔하겠지요.

○위원장 이종배 청문위원회에 대해서 또다시 그렇게 비난하는 말씀 하시면……

○박선원 위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발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위원장 이종배 경고합니다, 경고.

○박선원 위원 ‘악한 자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사과한 것 취소해야겠네. 사과한 것 취소해야겠어.

○박선원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출산율에 대해서 질문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님이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총리후보자로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에 다녀 보면 어린이, 아이돌봄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형태의 유아원도 있고 한테요. 0세에서, 그러니까 만 1세가 아직 안 된 아이들도 돌봄에 맡기는 부모들이 계시고, 젊은 부모지요. 5세까지 가장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과연 우리 국가에서 얼마큼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육이 넘어오면서 유보통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변 이웃에서 정말 아이들, 만 1살도 안 된 아이들부터 해서 이 아이들의 우윳값 그리고 하루 간식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까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그 이후부터는 유치원으로 가면서 상당히 돌봄이 좀 수월해지는데 후보자님께서도 지역에서 이런 현장을 많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는데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덜 넘기려고 하고 교육부에서는 이전에 돌보지 않았던 그 대상에 대한, 대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투자가 오히려 줄어 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집, 교육, 생각 모두 다 중요한데 특히 5세 미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느냐. 5세까지의 아이들을 키우는 데 손이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 교육, 생각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의 보육에 대해서도,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에 갈등이나 아니면 일종의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 1월 2일 발생한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에 방문했을 때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국정원의 부산지부장이 지역 대테러본부로서 활약을 했고 또 그래서 그 사건을 국정원 본부 대테러국에 보고하고 그것이 총리실에 있는 대테러센터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 있는 대테러센터에서 제1보와 달리 제2보부터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약간 흐트러트리는데 그런 흐름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총리실과, 당시 총리실의 대테러센터와 대통령실의 안보실에 어떤 식으로 보도자료들이 사건을 왜곡하고 축소시키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이런 것도 받아 보시고 할 텐데 윤석열 정권 내란의 여파로 과연 정부 부처가 일하는 태도, 기강이나 역동성 그리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등장을 맞이하면서 의욕 있게 일할 태세가 되어 있었는지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공무원사회부터 분위기가 전환되고, 국정을 살피는 맨 첫출발이 결국은 총리실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철폐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알박기 인사로 비롯된 업무의 지체 또 공기업 본연의, 각 기관마다 임무가 다 다른데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기업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고 마땅히 해야 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간단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정책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의대 정원 문제, 국민연금 문제, 유보통합 문제 등 주요한 현안들을 다룬다고 하고 실제로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면입니다.

유보통합 문제는 말씀처럼 사실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매우 중요한 조정 사안인데 논의를 시작하고 나서 진전이 잘 안 돼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당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속하게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당시 야당지도자의 테러와 관련했을 때 혹여 의혹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지 짚어 봐야 한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일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문제는 지금 어찌 보면 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일은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내란으로 인해서, 잘못된 최고위공직자들로 인한 피해로 불필요한 주눅이 과하게 들지 않고 빨리 극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과 또 새로 총리가 될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관들이 다 유념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통령 정권 교체만으로 코스피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빨리 이 문

제를 해결하면 공직사회가 다시 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운데 알박기 인사가 특히 지난 정권의 마지막 시기에 된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 그 자체에 있어서의 개선점은 어떻게 할 건지도 짚어 보겠지만 기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리를 잡고 시간만 때우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업무를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각도에서 지켜보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자꾸 학창시절, 벌써 40년 가까이 된 일인데요, 반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후보자께서 젊은 시절에 케네디스쿨에 가서 수학을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가서 석사 과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스쿨 측에서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나 이제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겠다 해서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영어학원도 다니고 어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까지 제가 아는데 케네디스쿨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미 국무부를 비롯해서 주한 미대사관 등에서도 이미 이 젊은 영재, 이 젊은 인재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가, 판단까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케네디스쿨의 초청을 받은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때는 저의 어플라이와 그다음에 그 학교 측에서 관계 있는 분의 추천이 같이 연동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원 위원 추천이 있었나?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박선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질문 끝에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박선원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 말씀 주신 중에 박선원 위원님도 지적하신 40년 전 젊은 시절의 반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젊은 시절에 미국과 연동된 광주민주화운동에 있어서의 올바른 한미관계를 제기했던 것은 오늘 이 시점까지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일구어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가 공정한 균형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제에 부역했거나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반대 편에서 학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번 내란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한 그러한 비양심 문제와 비역사성 문제에 대한 공정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방금 그 이야기 이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광주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웃에서 사람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 학살을 지휘했다면 저는 반미운동 할 겁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 지휘를 하는 작전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게 미국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풀어 가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반미냐 아니냐 이렇게 기계적 잣대로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번 2024년 12·3 내란 당시에 미국은 윤석열 내란을 개입하지 않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지지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그 스탠스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확고한 한미동맹의 기반이 됐다.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바 시험 봤거든요. 미국 갈 때 저도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냈고 비자 발급받을 때 인터뷰 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냈습니다. 저도 전과자이기 때문에 판결문 다 번역해서 왔습니다. 영문으로 다 번역했고 다 조사받았고 그 과정 중에서 심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 시험 볼 때도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 다 냈고 바 시험 보고 나서 좀 이따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러 법원에 가면 뉴욕주 주도 갔을 때도 선서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저도 장롱면허여서 실제 프랙티스(practice)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면허증을 장롱면허라고 하지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제대로 일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바 시험 제대로 봤냐, 선서할 때 하고 왔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아주 그냥 상식적인 답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보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해하실까 봐, 이것이 특별히 논쟁할 지점이 아니다, 이것 너무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내용이 사실은 청문회의 취지에 맞지 않게 40년 전의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한미동맹에 대한 정당한 지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환기시킨 사건을 반미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만 보고 또 그 문제를 다시 지금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사상 검증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그래서 보시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던 것이고 실제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갈 때 비자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학교 그리고 바 시험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 각종 관련 재판기록 등등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것이고 내용도 다 파악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당연히 거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저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을 겁니다.

○오기형 위원 오히려 이번에 내란 과정에서 미국의 이런 스탠스가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이나 또는 지금 현재 내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 분명히 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늘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 아까 하다 만 이야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다음, 바로 그 앞의 화면 잠깐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한민국에 부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은 정부부채가 중요하다, 재정건전성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부부채보다 중요한 게, 우리 뇌관과 같은 게 가계부채다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이 일관되게 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계부채 논의하는데 특히 이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지금 현 새 정부까지 그런 과정에 지난 한 4개 정부 속에서 다 잘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관되게 정부의 금융 당국자들과 은행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최근에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 지점이다라고 이 화면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만년 일찍 인상을 했지만 3%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미국의 경우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 금리인상의 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이나 일반 차주들에게는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내수에 대해서 부채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80%가 변동금리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그 리스크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중산층에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자를 계속 고스란히 100만 원 널 사람 200만 원 내고 또 50만 원 널 사람 100만 원 내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호주머니가 말라 버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의 금리인상 시기를 보면 한 3년 동안 5대 시중은행들이 60조, 50조씩 계속 예대마진이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횡재세 이야기도 나오고 예대마진을 줄이자 이야기도 하고 또는 이 금액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금융……

금리 변동의 리스크라는 건 되게 고도의 시장 변동의 리스크인데 그것을 전문가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안아야 되는 건데 왜 그런 리스크를 다 소비자가 떠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도 이 지점은 좀 직시해야 된다. 서민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일반 시민들이, 차주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절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이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내지는 이 문제점, 안이하거나 이 리스크를 전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일관되게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새 정부도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가계부채 중요하다.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가 다 엮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표현을 좀 보면 코로나 부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던 분들은 온 국민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한 것 아니냐, 그러면 특별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가 돈을 빌려라 그리고 그 코로나 부채를 떠안게 했었습니다. 그게 한 600조 됐고 그것을 떠안은, 푸는 방법을 새출발기금으로 해서 5% 정도, 30조 정도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만들었지만 그게 성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일정 정도의, 한 7년 이상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규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 채권을 일부 상각하자고 하니까 다시 도덕적 해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낸 사람들이 손해만 보는 건 적절하지 않지요. 그러나 은행권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같이 통합되고 같이 가려면 특별한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못 해 줬던 우리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통합하면서 일정 정도의 그 부담을 덜어 줄 것인가는 정책적인 재량의 여지가 좀 있지만 기본 발상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일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정부가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요청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빚내서 집 사라’처럼 무조건 대출이 아니라 DSR 정책이 일관되게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약간 희생했거나 또는 힘든 사람들, 한계차주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포용적 금융이라는 형태든 포용 정책이든 어쨌든 좀 고민하고 포용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은행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후보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회복 그리고 중기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앞서서 민생의 각박함을 풀 수 있는 초단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그중에서 핵심이 물가와 가계부채라고 봅니다. 그에 더해서 물론 민생지원금 또는 소비쿠폰 문제가 있겠지요.

가계부채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실제 정부부채보다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가파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발생과 증가의 원인을 꼭 가계 측에만 돌리기 어려운, 더구나 최근에 코로나 이후 내란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고 역사적으로도 꼭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라든가 부채 조정을 해 줬던 경우가 국내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규모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조조정 또는 재조정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통령님도 그 문제의식을 매우 강하게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가계부채가 계속 빨리 증가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어떻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또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배드뱅크도

만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도덕적 해이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을 잘 정해서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김희정 위원 이 정책에 후보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토론할 대목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지하느냐……

○김희정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틀에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2차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말씀을 주시면……

○김희정 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동의하고 안 하겠다라는 거고 포괄적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큰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희정 위원 가려서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앞서 제가 존경하는 광규택 위원님하고 산업은행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후보님의 자꾸 바뀌는 답변이랑 입장을—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봐도 그렇거든요—재차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산업은행 이전 반대 소통관 기자회견을 명확하게 22년도에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터뷰도 하시면서 ‘금융중심지 만들려던 세월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중심지 되기 위해서 산업은행 말고 여의도에 또 뭐가 있지요? 공공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융중심지를 구상하고 있는 곳은 여의도가 있고 또 부산의 문현지구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여의도에는 지금 다른 금융 공공기관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본인 지역구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금융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정 위원 은행 중에서도 공공은행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외에 등등이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부산에는 어떤 금융 공공기관이 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현재 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하시고 2005년도에 지방이전 하고 그리고 금융에 특화된 혁신도시로 부산이 결정된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금융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금융중심지 만들겠다고

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금융 공공기관이 뭐 있는지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의 산업은행 관련된 논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산업은행이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에 다른 금융 공공기관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희정 위원 예, 한국거래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있고요. 예탁결제원도 있고 주택금융공사, 해양보증보험 등 거의 다 옮겨져 있습니다. 20년 동안 계획에 의해서 옮겨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이전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지속해서—다음에도 보시면—이렇게 산업은행 이전 저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과 상관없이 그냥 산업은행 이전 하나만 붙들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후보가 바로 며칠 전에는 부산 지역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산업은행 이전 대신 대안으로 내놓은 동남권 투자은행이 산은을 대체할 수 있을지 지역의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산업은행 이전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다’라고 잡아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 반대한 거 나왔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잡아떼지 않았고요. 정책을 다루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산업은행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단순하게 반대냐 아니면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놓고 금융 논의를 해야 하느냐……

○김희정 위원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후보님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산업은행 이전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워딩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금방 들통날 일을 매번 말을 바꾸는 거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장을 여쭙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런 금융특화구역이고요. 부지 조성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공터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들과의 연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도 전향적으로 열어 놓고 토론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산업은행 이전 저지’ 이렇게 하는 게 총리가 되고자 하는 분의 입장에서 맞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확정됐던 지방이전에도 금융기관과 방송 등은 이전 대상으로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방 결정을 한 이후에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저는 정무위에 속해 있지 않았고 제가 지역구 차원에서 정무위원회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정무위원회의……

○김희정 위원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가 팩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정무위원회의 반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동남권 금융기관이 가는 것이 부산의 금융과 또 취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동남권 금융공사 이전이라는 공약을 만드는 데도 제가 상당한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제기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산

업은행보다는 동남권 금융공사가 부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부산의 박수영 의원 등도……

○**김희정 위원** 후보님의 말씀 충분히 알았으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내용을…… 제 질의 시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대표발의를 하신 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세요. 박재호 의원님, 부산 금융지에 둔다라고 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님은 포괄적으로 그냥 대한민국에 두자라고 발의를 했고, 송기현 의원님은 법에 두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자라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희와 뜻을 같이하면서 이런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김희정 위원님도 법이 발의가 아니라 통과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김희정 위원** 왜냐하면 통과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국회에 들어서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동남권 금융공사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산업은행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거를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기자들한테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또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데 열어 놓고 챙기셔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출마 준비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김희정 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부산의 아들이고 앞으로 부산에서 살고 부산에서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은 자기 지역구가 영등포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모든 국가균형 기관들과의 그런 연대나 합을 생각하지 않고 또 열어놓는 자세도 가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작은 이익 지키기에만 앞선다면 과연 국가 전체를 놓고 하는 균형발전이나 같은 금융기관끼리의 시너지 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자 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속했던 여러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도 역시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를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입니다.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신공항 사업,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국토위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늘리겠다고 하면서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는 감액예산 올라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정 위원 감액예산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마치 해수부 이전 등 하면서 무슨 지역구에 선심 쓰는 듯이 하지만 실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실제로 이미 배정된 예산도 깎는 이런 표리부동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지역 민심에 부합하고 실제로 가고자 했던 계획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해수부 이전과 HMM을 포함해서 동남권 금융공사 등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부산 지역에 윤석열 정부의 지난 시기보다 훨씬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내일 올라오는 가덕도신공항 관련 정부 예산 깎이지 않도록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후보자님,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아시겠지만 해당 기업이 이 공사 못 하겠다라고 발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올해 예산을 책정해도 사실 그게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 정도를 감안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해당 기업의 사정 때문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 예산은 배정을 했지만 쓸 수 없다면 그 예산은 다른 곳에서 불요불급한 곳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지요. 그러니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0대 의혹이라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애초에 의혹이 아닌 것을 10대 의혹이라고 해 놓고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오늘 정도에서 이런 정도로 마쳐 주시고 내일은 정책질의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문화원 사건만 하더라도 당시 학생들이 내걸었던 것이 광주 학살에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였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미국 정보력이 대단하고 대한민국이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하에 광주 학살과 관련해서 미국이 그 정보를 몰랐을 리 없다, 아마 48시간 이내에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왜 빨리 이것을 정리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미국이 이걸 알았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지금 와서 우리의 역사를 뒤집고 하는 식의 질의가 나오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발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본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이 휴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코스피 3000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았습시다만 오늘 3100을 뚫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3년 9개월 만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나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 소액주주들이 다들 동의를 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인데요.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예전에는 퇴직금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2006년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퇴직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이제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이 되었지요.

문제는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현재 운용수익을 보면 5년 평균해서—2024년 기준입니다—2.86%,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익률은 동기간대에 8.13%,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될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동일한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그냥 제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과연 노후소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냥 원금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좀 한 상태이고요. 일부 개혁을 한 상태이고, 국민연금의 수급 그것만 가지고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다 퇴직연금까지를 더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원으로 보면 이제는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구조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이 또 자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국민연금은 큰 메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굉장히 건강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퇴직연금 역시도 기금화가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퇴직연금의 기금 규모가 한 431조 정도 되는데요—2024년 기준 해서—10년 내에 1000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큼니다, 지금의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용해서는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아주 오래된 제도인데요, 1968년에 도입된 우리사주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종업원들,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업에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면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을 하고 이것들을 해당 종업원들이 매입해서 유지하게 되면 그걸로써 어떻게 보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자산을 늘리는 방식인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시다만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에 우리사주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2024년 기준 해서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은

거의 80%에 이르는데요 실제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의 지분 평균도 한 1%, 1.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사주를, 예를 들어서 우리사주조합에 대주주가 매각을 하는 경우에 기업에도 그렇고 근로자들에게도 그렇고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제도를 취하고 있는 ESOP,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미국의 종업원 지주 제도라고, ESOP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시장에다가 이것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종업원들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대주주로 보면 어찌 보면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약간 윈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흔히 말하는 생산성 향상,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더 잘되면 결국은 내 주식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노사관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생산성 있게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게 한쪽에서는 부자감세 아니냐, 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산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의 자산을 늘 수 있게 하느냐, 근로자들이 하는 데 방점을 두시면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냥 다른 데 비교하지 않아도 자본주의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제도만 좀 본받는다고 하면 좋을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24만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미국의 퍼블릭 슈퍼마켓 체인이 있는데요. 여기가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부분을 종업원들에게 매각했고 장기근속한 종업원의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한 14억 원,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과 이익을 종업원들과 같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종업원들에게는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법 개정 하면서 3% 룰 이것에 대해서 대주주들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주요 승계 방안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한다, 경쟁사의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합원 자격 확대나 대주주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한다면 어찌 보면 훨씬 건강한 승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퇴직연금의 기금화 그리고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산시장의 평가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주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의 기금화 문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재난에 대한 대처를 기금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몇 해 전에 국회에서 해 본 적이 있을 때 당시 기재부가 취지는 이해하나 기금을 자꾸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기해 주신 취지가 굉장히 타당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우리사주 문제를 장기적으로 존재하나 실효성이 없는 문제로 활성화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총리의 영에 의해서 당정협의를라는 제도가 주로 정부와 여당 간에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책적 역량이 있으신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제가 총리가 된다면 총리실에서…… 불가피하게 여당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어떤 TF를 같이해서 정책을 의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께서 오늘 제기해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워낙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꼭 한번 그러한, 당정협의를 뛰어넘어서 개별적으로 총리실과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미 문화원 관련한 말씀을 여럿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저보다는 그때 그 사건의 직접 주역이었던 함운경 위원장께서 그 당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직접 여쭙보시면 훨씬 더 소상하게 상황과 의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배 한정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이번에는 개헌에 대한 후보자의 정견을 한번 들어 보고자 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은 국민주권헌법이라는 말도 쓰셨더라고요, 민주연구원장 하실 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2018년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헌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명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요. 국민주권이라는 말에 이렇게 후보자님이 일찍이 이런 말을 쓰셨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해 2월 달에 국민헌법콘서트에서는 ‘국민참여는 개헌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참여개헌이라는 용어도 쓰셨더라고요. 이것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황운하 위원 저는 이러한 국민주권헌법, 국민참여개헌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국민이 주도하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칠레 등이 시도했고 성공한 나라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 주도 개헌을 위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필요한 절차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국민 주도를 위한 개헌절차법. 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개헌절차법?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들어 봤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게 발의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발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

에 있습니다. 개헌절차법 이것 국회 합의로 통과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후보자님, 개헌은 국회가 합의해야 하고 국회가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또 후보자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국민주권, 국민 참여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개헌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 말씀처럼 국민주권 개헌,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 과거에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 포인트 개헌을 사실은 제가 정책위의장 시절에 당에서 처음으로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개헌을 절차법으로 해서, 개헌절차법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문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 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황운하 위원 예, 그렇군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있었고요. 저는 그때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처럼 무슨 세컨드 어멘드먼트(Second Amendment) 이런 식으로 쪽 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러운 절차에 의해서 즉 이렇게 개헌을 해 나가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오히려 개헌을 어마어마한 정치적 논의를 해야 되는 국가적인 특별 정치행사로 만드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것이고요.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여러 정치 세력과 정치지도자들의 제안을 거쳐서 다음 지방선거 또는 총선 때 개헌을, 합의만 된다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만일 제가 총리가 된다면 제 소신 여부라든가 제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이미 국민적으로 개헌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당한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혹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일정 부분 해야 될 영역이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개헌절차법을 정부 입법으로 하는 건 좀 무리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개헌절차법은 정부 입법으로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개헌절차법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이걸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절차를 이렇게 입법부 사항으로 규정을 해 놓고 제가 발의하려는 건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는, 개헌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그것이 일정을 확정하는 법안이지요,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이러는 것을. 그런 법안인데 이것이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되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꼭 개헌이 성사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 시행령,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 검찰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만 행안부 경찰국 이것 빨리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행령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시점 저의 신분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신분이 확정되고 나면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작년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수사 이걸 내가 검수원복 시행령 만든 덕분이다. 이렇게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게 검수원복입니다. 한동훈의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가 수사 범위를 줄여 놔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수사권을 늘려 놓은 게 검수원복 시행령이지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경제·공무원·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그것을 머리글자만 따면 약칭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입법을 했던 것이지요.

과거 부경공선방대에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 놔있어요. 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국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에 있던 공선방대가,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범죄도 삭제되어야 맞는데 이것을 다시 부패와 경제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것인데 한동훈은 또 그것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가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시행령은 하루빨리 원상복구시켜야, 원상복구라는 것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국회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그 부분 아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말씀 이해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이해도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딱 좁혀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말씀 주신 과정에서 소개된 검수원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을 시행령으로 진행되게 한 것을 자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뭐 자랑하면서 검수원복 덕분에 이재명 수사받게 했다, 재판받게 했다 이것 대단히 참 잘못된 일입니다.

시간이 좀 없기는 한데 짧게 가계부채 탕감 대책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탕감 대책에 대해서 아마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칭 위기극복기금, 어떤 기금, 위기극복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마는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이 엄청난 예대마진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예대마진에서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의 다중채무자, 이게 9만 1724명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원금 감면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보유한 무담보 장기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변경한다든지 이와 같은 좀 적극적인,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방안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소득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문제는 아까 오기형 위원님께도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포괄적인 필요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새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기극복기금이라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있는 금융시스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고 적절한 방식으로 원래의 문제 제기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님, 팩트 체크를 좀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새천년 NHK 주점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날 후보님께서 방송이 있어 가지고, 그것 들르기 전이었던가 전화가 와 가지고 불러서 잠깐 들렀다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김성호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의 기사를 보니까 여종업원이 과일을 깎으러 다가가자 자리를 피했고 종업원이 다가오면 자리를 피해 결국 나중에는 맨 끝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술판의 주범으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현일 위원** 예.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다면서 의원님께서 여론몰이의 희생자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길게 설명드릴 만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의원 가운데, 우선 이해에 쉽게 도움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김성호 의원님이나 또는 장성민 전 의원님같이 과거 민주당에 속해 있었지만 이후에 당을 국민의힘 계열로 속하셨던 분들이 증언하면서 정황이 다르고 특히 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해 주신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일이 포괄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두 번째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입니다.

저도 영등포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후보님은, 제가 검색도 해 보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전에 반대한 적은 없고 다만 토론하지 않고, 금융계나 노조, 정치권에서 토론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2023년 3월 정책위의장 시절에도 산업은행 이전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국회 동의 없이 꿈수로 하는 건 법 위반이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한 절차와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산업은행 이전이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이게 맞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러한 조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방식의 이전 논의는 반대한다’를 압축해서 중간에 괄호를 빼고 뭐뭐 반대라고, 압축한다면 그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일관되게 그렇게 설명했구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대통령님과 새 정부가 공약을 한 사항으로 산업은행 이전 논의에서 담으려고 했던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의 산업 지원과 현장, 해당 지역의 젊은이들의 취업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동남권 금융공사가 공약으로 제기되어 있고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그것이 부울경 지역의 장래와 부울경 시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자꾸 지나간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최근에 제2의 IMF라고 표현을 했구요. 정치, 경제, 외교 등 복합적 위기입니다. 중동 사태, 러시아-우크라 전쟁, 미 관세 협상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요. 비정상의 정상화, 외교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향후 총리후보에게는 국제 감각, 외교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는 충분히 그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외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외교에 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 부족함이 있었고 외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한데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부의 안정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람되지만 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는 아마 비교적 현재 국회 또는 저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등등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참석을 해서 정상외교 채널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국제 감각도 더욱 중요해졌고요.

그런데 총리의 국제 감각은 증명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후보자 이력을 보면 압니다. 미국과 중국을 유학해서 학위를 2개를 땀고요. 미 로스쿨과 중국 칭화대 학위 2개 땀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회원이고 유럽연합상공회의소도 회원이시더라고요. 또 국제 변호사, 미국 뉴저지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일 했고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 100인에도 선정이 됐고 또한 일본 고노 등 한미일, 미국·일본의 주요 국가 정치인들과도 활발히 교류를 해 왔습니다.

제가 뭐 하나 질문해 볼까요?

미 문화원 사건에 대해서 계속 반미주의라고 공격하는데요. 미 문화원 사건의 의의가 후보께서…… 제가 서면질의 보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고 그 경험을 자양분으로 해 가지고 12·3 비상계엄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제가 책을 읽어 보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 ‘3승’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미국에 있는, ‘그 당시 연세대 학생회관에 파란 눈의 젊은 미국인 2명이 왔다. 그래서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리고 미 대사관 측에 면담을 주선했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미 대사관 측이 학생들에 대한 음식물 제공에 기여했다’. 이분이 누구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인요한 의원과 그 형…… 존 린튼, 스티브 린튼 두 분이 그때 20대였는데 와서 저희가 만났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5·18 광주민주화항쟁은 반미냐 친미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냐 안 밝히냐 그 문제였지요. 인권의 문제였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미 문화원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반미냐 친미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나 아니냐고 물어보는 수준의 역사인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인요한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학생들의 문제에 공감해서 도와줬고요.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인요한 의원이 그때 반미주의자였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인요한 의원께서는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나름의 정치관을 갖고 계실 것이어서 제가 그분의 대학생 시절 생각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를 반미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하면 인요한 의원도 그걸 도와줬기 때문에 반미주의자라고밖에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공천한 국민의힘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하면 더 이상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념도 진영도 지역도 상관없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철 지난 색깔론이나 이념 몰이, 그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몰락, 가치 외교, 이념 외교 그것 때문에 몰락한 거 아닌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 문화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함운경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가장 그 의의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윤석열 정권이 몰락한 것 중의 하나가 구시대적인 이념, 가치 외교, 냉전적 사고방식, 반지성적인 가치 외교, 이런 정치적·이념적 편향 때문에 결국은 계엄까지 저질러서 나라를 두 동강 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서에 보면 후보께서 세계지도, 한국지도를 옛날에 독방, 한 평 남짓 독방에 있을 때 지도를 벽에 거꾸로 붙여 봤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거꾸로가 아니라 정확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세계지도에는 이렇게 해서 한국이 약간 변방에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 마치 거대한 호랑이의 단전 정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려 했던 것을, 아마 설명했던 것을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현일 위원** 후보께서 젊은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고 또 젊은 나이에 정치를 했는데 항상 머리에 두고 있는 거는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국가전략 그런 게 항상 있었고요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후보자가 총리가 되시면 그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아까 배우자께서 증여세를 냈는데 언제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이 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오늘까지 확인하라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또 오늘 이어서 신상질의를 다시 하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확인하라는 것으로, 오늘은 뭐 만날 수도 없었고……

○**주진우 위원** 인사청문회가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그래도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래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신상이 아니고 정책질문을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주진우 위원** 현금으로 준 것도 포함해서 증여세를 낸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증여세?

○**주진우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총액으로 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 왜냐하면 현금은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장부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고 이렇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아니지요.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강신성 씨하고의 관계를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강신성 씨 관련해서 판결문에 사실은 유학비랑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던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받은 것을 부인하는 입장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의 기초가 됐던 공소장에는 그 이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배추농사 해서 저희가 먼저 돈이 가 있던 부분들은 다 빼고 일방적으로 지원된, 온 부분만 했던 것이어서 그런 등등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그 사건을 할 때, 강신성 씨가 증언을 하려고 증인으로 나오는 날 그 당사자를 특가법으로 걸어서 증언 못 하게 하는 압박이 있어서 일체 증

언을 못 하고 그 사건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예, 좋습니다.

강신성 씨는 지금 전북 정읍에서 건설폐기물 업체를 하는데 그 업체 사무실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과거에 했던 사무실 거기를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정읍시장 중에 민주당 출신의 김생기 시장님을 잘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잘은 모릅니다. 그냥 아는 정도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게 오늘 언론보도가 나와서 좀 확인을 해야 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요지는 이런 겁니다. 강신성 씨가 전북 정읍 건설폐기물 업체를 하다가 2011년 6월경에 사업부지를 한 8억 정도 샀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김생기 정읍시장이 인허가권자로서 도시계획시설 시행사로 지정하면서……

○김현 위원 또 틀어 놔서, 또.

주제가 바뀌었잖아요.

○주진우 위원 한 80억 정도로 대금이 올랐다고 해요.

○김현 위원 주제가 바뀌었잖아요.

행정실!

○주진우 위원 그래서……

○배준영 위원 조용히 말씀하세요.

○곽규택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가서 말하세요, 가서.

○배준영 위원 질의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말씀하시라고요.

○주진우 위원 땅값이 지금 80억이나 평가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보도의 의혹 제기는 뭐냐면 당시 8억에 산 게 10배쯤 오르다 보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너무 빨리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후보자께서도 유세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그런 사업의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도 같이 하지만, 같이 했지만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출판기념회에도 오시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시는데 향후에 약간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해충돌할 것이 없는 것이 현재로는 주로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만 제가 알고 있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정치자금법 사건 이후에 워낙 피해를 봐서 저와는 깊은 인간적 관계로 때로는 후원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맡아 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었지만 따로 특정한 후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절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로 이해충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진우 위원 11명 채권자의 1.4억 원 중에서 직접 모르는 분도 있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주진우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결과적으로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분 정도는, 그중에 누구의 부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경우 정도만 제가 모르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위원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분은 모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거기는 압니다.

○주진우 위원 직접 아시는 분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주진우 위원 그런데 소개받아서 대출을, 차용하게 된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처음에는 당연히 소개를 받았지요. 그런데 압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지금 왜 문제 되는지는 아실 것 같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반 국민은 100만 원도 빌리기가 힘든데 지금 7년 넘게 안 갚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명을 하셨냐면 ‘추징과 같은 빚을 다 갚고 나면 바로 갚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추징금은 2024년 2월에 다 완납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지명되기 전까지 한 1년 4개월여 동안 계속 안 갚고 있었거든요.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경위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증가산 증여세를 갚고 바로 다음 날 공적 채무를 다 갚고, 공적 채무로서의 추징금을 다 갚고 나면 바로 다음 날 다 갚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숨 돌릴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갚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인이라면 100만 원도 빌리기 어려웠다,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일인당 1000만 원은 제게 큰 도움이었고 그렇게 해서 관련된 분들에게 빌린 것입니다. 그때 이미 제가 이자를 충실하게 내면서 5년이 지났을 때 못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의 전체적인 채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인지시킨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순연된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결혼식에 몇천 명이, 삼사천 명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축의금을 사양해서 카운터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의금은 1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축의금 카운터가 없는 데……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카운터가 뭐지요?

○주진우 위원 신랑에게 따로 봉투를 쥐서 모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많은 봉투가 모이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결혼식 당시의 상황까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어떻게……

○주진우 위원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엄연히 공무원이고 김영란법 적용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결혼식 때 김영란법을 축의금으로 반영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실제 업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직무 관련성 없더라도 국회의원도 업무 연히 공무원이다 보니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정애 위원 이 결혼식은 국회의원 되기 전이에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었고요. 김영란법이라든가 또는 결혼식 때 상황에서 축의금 관련해서 김영란법 등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조의금은 어떻습니까? 조의금은 국회의원 되신 이후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축의금은 장모님한테 받은 대로 다 드렸는데 1년 뒤에 그 조의금 자체는 지금 처갓집이랑 정산 안 하고 도로 다 받았다는 취지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조의금은 조의금 가운데 저희가 각각 정산할 부분을 받은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1억 6000만 원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축의를 하거나 부의를 한 만큼 대부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비슷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더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된 이후라고 하면, 지금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도 한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진행부터 합시다.

○주진우 위원 질의 좀 하게 해 주세요.

○김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김희정 위원 시간 잠시 멈추세요.

○곽규택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이것 띄워 놓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계속? 분명히 6억으로 정정한다고 했잖아요.

○주진우 위원 아니, 출판기념회나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회의 진행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현 위원 이걸 내려야지 조용히 하지요. 이걸 내려야 조용히 할 것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간사님, 지금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김현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간사로 얘기하고 지금 몇 분께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되는데 어떻게…… 멈추고 이것부터 조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곽규택 위원 그러면 조정하고 새로 하면……

○주진우 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먼저 할게요.

○김현 위원 멈추고,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멈추고 이 상태로 계속할 건지 말 건지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장님.

- 주진우 위원 지금 이걸로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얘기를 들으면 되지요.
- 위원장 이종배 정리할게요, 따로.
- 김현 위원 아니, 이걸 지금 3분, 5분째 띄워 놓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이종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는데 이렇게 큰소리로 하는 것은 방해하는 거니까……
- 김현 위원 아니, 이런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 곽규택 위원 그것 질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 위원장 이종배 방해하는 거니까 질의 끝나고서 하시든지 조용히 얘기하셔야지, 조용히.
- 김현 위원 아니, 지금 이중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배 그러니까……
- 배준영 위원 아니, 지금 질의 중이잖아요.
- 곽규택 위원 질의하면 되잖아요.
- 김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곽규택 위원.
- 위원장 이종배 자, 질의하세요.
- 김현 위원 위원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조용히 하세요.
- 김희정 위원 다른 분 질의하고 있는 순서에 그렇게 하시면 온당하지 않지요.
- 김현 위원 멈추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배준영 위원 다른 분 질의하고 있는데……
- 김희정 위원 다른 위원 질의 중이잖아요.
- 김현 위원 시간을 18분 쓰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 위원장 이종배 시간만 자꾸 지체하게 되니까……
- 김현 위원 18분 쓰는 겁니다, 위원장님.
- 김희정 위원 김현 간사, 다른 위원 질의 중이에요.
- 위원장 이종배 자꾸 시간만 지체되니까……
- 주진우 위원 마무리 1분 30초 남았잖아요.
- 곽규택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 배준영 위원 조용히 하세요.
- 김현 위원 조용히 하라고요? 18분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 배준영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 위원장 이종배 질의하세요.
- 김현 위원 본회의장으로 치면 18분 쓰고 있는 겁니다.
- 곽규택 위원 지금 본인이 방해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종배 여기 본회의장 아니고, 저것에 대해서는 시간에 포함된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도 안 얻었잖아요, 지금!
- 배준영 위원 손을 들고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세요.
- 위원장 이종배 자, 조용히들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참 불쌍사납네요.

○위원장 이종배 조용히 하세요.

○주진우 위원 아까 제가 순자산 증감액 이 표를 보여 드렸는데 숫자가 틀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쭙본 건 뭐였냐면 2024년도를 여쭙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틀렸을까 봐 한 번 더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보에 게재된 재산등록 내용인데 2023년도에 -5900만 원이었던 재산이 2024년도에 1억 5492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숫자로 따지면 순 재산이 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거고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틀린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아까 2024년 뿐만이 아니라 저기 가상해서 그려 놓으신 전체 그래프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에 재산등록한 것이라 그다음의 것을 계속 차액을 계산해서 올린 것이고 실제 보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등록했을 때 -5억 7800만 원이다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 그래프는 관보에 나와 있는 자산 증감액만 그래프로 바꾸신 것이지요?

○주진우 위원 예, 그런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결혼식, 병부상,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 등의 수입을 전제로 해서 하신 것으로 봐서 그것은 정확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 밑의 숫자는 지금 관보에서 나온 순자산 증감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것은 그 관보대로 하신 거면 그것은 관보에 따른 것일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봤던 건데 2024년도에는 갑자기 2억 1000만 원이 늘었으니까, 사실 이때는 현금이 없었다는 주장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늘었느냐를 여쭙보고 있는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2024년?

○주진우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은 어디서 그것을 대출, 추정을 갚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그거랑 연결되는 거지요. 이게 순자산도 늘었고 추징금도 갚았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어서……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현 위원 끝났습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현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김현 위원 위원장님,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배 편파적 아니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김현 위원 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조용히 하세요!

○김현 위원 이렇게 안 했어요!

○위원장 이종배 조용히 하세요!

○김현 위원 한 번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조용히 하세요!

○김현 위원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 발언하는데 왜 방해합니까?

○김현 위원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권한이 너무 과도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 발언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이런 영상물을 띄울 때는 시간이 계속 가도록 그것은 정했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나 이런 특위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김현 간사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들과 위원장이 따로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현 위원 앞서 광규택 위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 위원장께서 내리도록 아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제 발언을. 어디, 상임위원장이든 본회의장이든 주제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응답 내리는 거지요. 그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틀리고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거면 반복적으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 그런 간사 간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봤으나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화면을 띄워 놓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동안 어느 상임위에서, 제가 적어도 37년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광규택 위원 37년……

○김현 위원 광규택 위원.

○광규택 위원 왜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 할 때……

○광규택 위원 왜요!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왜요는 일본 요예요.

○광규택 위원 어디 손가락질 해요?

○김현 위원 이렇게 했어요. 손가락질 아니예요.

○광규택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현 위원 손가락질 아니예요.

○광규택 위원 거짓말도 잘 하시네.

○김현 위원 뭘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금방 손가락질하시드만.

○김현 위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원장 이종배 자,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손가락은 이거고 손은 이거예요.

○위원장 이종배 발언하세요. 김현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현 위원 손이에요, 손. 손가락질 안 했어요.

○곽규택 위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김현 위원 뵈는 게 없나 본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만약 운영을 하면, 화면을 띄우고 발언을 하면 2배를 하는 겁니다, 2배를. 그래서 보통 영상이 카메라가 있으면 얼굴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띄워 놓고 말을 하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야당 위원들이 편법을 쓰는 것을 공정하게 위원장님이 사회를 본다면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내리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사 간에 합의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20분을 쓰도록 그리고 후보자가…… 주의의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욕 주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인사청문회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두 위원이 의도적으로 하는 이 일을 위원장님이 그냥 방관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의사진행을, 내일도 똑같은 형태로 발생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내일도 곽규택 위원이나 주진우 위원은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검사 출신의 위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던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서.

○김현 위원 끼지 마십시오. 끼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

○곽규택 위원 웃는 것도 함부로 못 해요?

○김현 위원 웃지 마시고요.

○곽규택 위원 내가 웃는데 왜 그래요?

○김현 위원 그러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웃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조용히 하고.

○김현 위원 그러지 마세요. 법사위에서 하던 것 인사청문회에 와서 하지 말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곽규택 위원 내가 웃겨서 웃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김현 위원 정치를 정도껏 하세요.

○곽규택 위원 본인 할 말만 하세요.

○김현 위원 끼지 마세요.

○위원장 이종배 배준영 위원님.

○김현 위원 위원장님, 이런 행태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끝났는데 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이종배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하세요.

○곽규택 위원 끝났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현 위원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사회권을 하면 간사에게……

○위원장 이종배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김현 위원 제가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시간은요. 저한테 소리 질렀던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배 저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지르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현 위원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원만하게 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배준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그러다 퇴장당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배준영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종배 예.

○김현 위원 앞서 얘기한 걸로 봐준 거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위원장 이종배 조용히 하세요.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어디서 함부로 퇴장 운운하십니까?

○배준영 위원 인사청문회가 좀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운영위 간사도 하고 여러 상임위를 봤지만 글썽 오늘처럼 시끄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바라건대 우리 정무위에서 지금 법규에 맞게 정성껏 저희를 보좌하고 있는데 너무 욕박지르시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격려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이—지금 여기에 여러 분들 계신데—지금 밤늦게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총리후보자와 우리의 정상적인 질의와 응답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원래 여기 5명이 배정된 국민의힘 위원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볼 때는 중립적으로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는 영상이 출력되는 상황에서는 시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임위나 특위에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발언하는 위원과 직원들이 해 왔고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그냥 인정을 했는데 김현 간사께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결정되는 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저 PPT, ‘국정과 경제는 위기인데 야당은 정치 공세에 집중한다’ 띄워 보세요. 일단은 띄워 보세요.

○위원장 이종배 죄송합니다.

전용기 위원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할게요.

띄워 보세요.

○위원장 이종배 김현 위원님, 조금 이따 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저 하라고……

○전용기 위원 먼저 하세요.

○김현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종배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현 위원 띄워 보세요, 국정과 경제는 위기인데 야당은 정치 공세에 집중.

이것 계속 띄워 놓고 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과 경제는 위기인데 야당은 정치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의원은 37건, B 의원은 13건, C 의원은 8건, D 의원은 7건, E 의원은 2건으로 해 가지고 연일 폭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논평 및 보도자료가 27건이 나왔고요 원내 논평 및 보도자료가 5건이 나와서 총……

조용히 좀 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예.

○김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 멈춰 주시고요.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배준영 간사가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미안합니다. 진행하세요.

○김현 위원 박규택 의원은 저를 비웃고 있으니까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박규택 위원 비웃은 것 아니에요.

○김현 위원 비웃고 계십니다.

○박규택 위원 웃겨서 그런 거예요.

○김현 위원 멈추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진행하세요.

○박선원 위원 저질스러움은 그만 보이세요.

○위원장 이종배 웃는 것까지 뭐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김현 위원 아니, 비웃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예, 고정하시고……

○김현 위원 시간 멈추고요, 멈춰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웃지 말라고요?

○위원장 이종배 진행하세요.

○김현 위원 배준영 간사님, 끼어들지 마시고요. 계속 회의 투쟁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

십시오.

○배준영 위원 아니, 얼굴 빼 줘서 고맙다는 말씀 하고……

○김현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만한 회의진행입니까?

○위원장 이종배 예, 진행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회의 방해하는 겁니다, 저 두 분이.

○배준영 위원 안 할게요.

○김현 위원 제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세요. 발언하세요.

○김현 위원 지금 현재 야당이 직전까지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돼서 곧 감옥에 갈 귀책사유가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계속적으로 이 신성한 국회에서 후보를 모독하고 그 모독도 부족해서 국회의 관례상 있지도 않은 일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대한민국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 동일한 화면을 띄우고, 주제와 어긋나게 PPT를 띄우고 한 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바뀌면 바뀐 만큼의 영상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뉴스를 생성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BS 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하는 기자가 화면이 안 바뀌고 계속, 여름이 됐는데 뒤에 눈 내리는 겨울이 나온다면 시청자들이 그것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가 주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영상이, 화면이 띄워진다면 그게 온전하게 회의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사 간의 혐의사항이 아니라 혐의조차 하지 않아도 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관례를 지금 야당 위원 일부에서 만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37건, 13건, 8건, 7건, 2건이 다 대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쇠귀에 경 읽기로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전에는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더니 살짝 바꾸어서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자금 관련 의혹’이라고 하더니 ‘수상한 돈줄’이라고 둔갑시키고요. ‘수입을 초과한 지출’을 가지고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이라는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소득 없는 자산 형성’이라고 해 놓고 ‘무소득 자산가’라고 바뀌고, 교회에다가 현금한 것을 ‘마이너스 기부’라고 하고 있고요. 의정활동 자녀 입시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홍콩대 인턴 활동’이라는 말로 또 둔갑을 시켰어요.

궁금하시지요, 이 PPT가? 똑같은 PPT가 나가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바뀌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는데, 제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허용하신 거니까.

그리고 아들 학비 출처를 분명히 오늘 후보자께서 전 부인이 했더라는 걸 얘기했고 야

당 위원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누가 수용을 해?」 하는 위원 있음)

끼지 마십시오.

시간 멈추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배 자, 그냥 하세요, 이 정도면.

○김현 위원 아니, 왜 그냥 합니까? 끼는 걸 막아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종배 이 정도면 하세요, 그냥.

○김현 위원 끼어들지 못하게 하셔야지요. 회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 시간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저 위원들은 더 심하잖아요.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저도, 저희도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것, 끼어들지 못하게 위원장님이 제재를 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배 끼어든 걸 먼저 하신 건 반성하시지요.

얘기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요, 누가 먼저고 말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왜냐하면 앞서 막말을 한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질의하세요.

○김현 위원 저희 야당 위원한테 막말을 한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질의하세요.

○김현 위원 그리고 중국 석사학위 진위를 했는데 청화대 분신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위장전입 의혹이 없는데 지역구 위장전입을 했다고 또 가짜뉴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과는 이미 다 여러 가지로 소명했는데 판결문 위에 해명문이라고 얘기하고 반미 전력이 있다라고 또 의혹 제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선의를 갖고 국무총리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제출 하겠다는 약속을 거의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야당은 정치 공세에 집중하면서 37건, 13건, 8건, 7건, 2건 이렇게 하고 중앙당 논평과 보도자료와 원내 논평 및 보도자료로 해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서 주의 의무를 어기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오늘 차수 변경해서 추가질의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내일까지 지속된다라면 진짜 이 인사청문회가 무용론이 될 것이고 하다 하다 안 되고 파다 파다 안 되니까 출판문제 가다가 현금 가다가 자녀 양육 가다가 전처, 현 처, 현 처의 엄마 문제로 가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증인·참고인이 하나도 없는 이런 맹탕 청문회가 됐다라는 언론의 보도와 지적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후보자에게 질의하세요.

○김현 위원 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누구한테요?

○김현 위원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배 지금은 야당……

○김현 위원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끼어드는 게 아니라 질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김현 위원 질의 내용까지도 지금 검열합니까? 보도 검열했던 정부가 그다음에 단전·단수했던 제업 내란 정당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종배 질의하세요.

○김현 위원 질의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님. 질의 내용까지도 검열합니까? 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끼어들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제가 앞서 얘기했던 야당 위원이 얘기했던 10대 의혹, 수상한 돈줄 그다음에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 무소득 자산가, 마이너스 기부, 아들 홍콩대 인턴 활동, 아들 학비 출처, 청와대 분신술, 지역구 위장전입, 판결문 위에 해명문, 반미 전력, 열 가지 중에 마지막 반미 전력은 충분히 소명을 했으니까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이 질문에 대한 야당의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후보자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입니다. 왜 막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은 충분히 드릴 만큼 드린 것 같고요.

첫째는 제가 설명을 나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한 설명도 됐고 상식적인 상식인이라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루 종일 설명을 하고 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거 참 설명을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되게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낭패감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야당 위원들의, 지금 이 PPT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페이스북에 50건에 가까운 공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진우 위원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질문하셨다라고 했는데 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것 없이 이미 확인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페이스북에는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 등을 수억 원대 현금을 가지고 한두 달 사이에 썼다라고 적시하심으로써 사실상 내용을 알고도 몇 해 동안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해에 있던 것처럼 해서 페이스북을 쓰신 것으로 보아서 저런 것은 통상은 국회의원들이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의아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은 드리고 그러면서 또 답변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PPT 내려 주시고요.

저는 똑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3~4세 아동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3시간 사용하고 있어서 WHO 권고의 3배가량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한 번만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현 위원 3~4세 스마트폰 사용이 3시간이 되는데 WHO의 권고기준의 3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김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내용을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각각 나라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최근에도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리실 차원에서 협력이 좀 필요한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여성가족부 등이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처럼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그냥 일상처럼 익숙해져 버린 것이기는 한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데 외국이나 다른 경우에 그런 데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이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도 느끼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관련 부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총리로 확정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순서 바뀌었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정확하게 넘기고 가시지요. 그러니까 24년도의 재산, 제가 아침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대출을 해서 1억 원을 갚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전용기 위원 1억 원을 갚으셨고 8000만 원 남은 것으로 총선 뛰고 그다음에 보전받아서 8000만 원 다시 갚았고 그러면서 시범아파트 보증금 뺀 1억을 가지고 다시 1억 8000을 만들어 가지고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대출과 상환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12월 31일에 나오는 재산등록에는 등록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출 기록은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24년도에 대한

부분은 해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25년도에도 사인 간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대출했던 것도 제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질의를 잘 들어 보면 충분히 소명 가능한 것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미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반미 전력을 갖다 씌우고 있고 사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해 안 가는 것은 쌍팔년도도 아니고 무슨 사상 검증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작 미국은 본인 국적의 변호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난리예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죄송하지만 반미나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비교적 질문 주신 위원님들에 비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통상적인 미국인들과의 교류나 또는 한미관계에 대한 대화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의 어떤 교류의 깊이나 폭이 떨어질 것이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하버드 케네디스쿨 다니면서, 거기에 내로라하는 정가 인물들 다 나오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역할 하시고 공부 더 해 가지고 미국 변호사까지 따셨는데 ‘과거에 네가 이랬잖아. 넌 반미잖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상 검증이 쌍팔년도도 아닌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 후보자께서 그냥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총리 뽑는 것도 아닌데 미국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의혹이라고 해 가지고 10대 낙마 사유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도 미국 변호사한테 반미라고 덮어씌우는 내용이 있거든요.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이런 말씀 드려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참 죄송한데 불법 될 만한 것을 다 갖다 붙이는 방식, 이 인사청문회에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위반한 것을 가지고 와야지요. 그리고 의혹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부분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 불법인 것 아니야?’라고 물어보는 방식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아니, 19년도에는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김영란법 가지고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뭘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위반한 것 하나도 없으세요?’ 이런 질문이랑 저는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안 된다.

저는 특수부 검사가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 것 같아요. 죽 A부터 Z까지 다 펼쳐 놓고 여기 하나하나 위반되는 것 어디어디 있나, 그리고 후보자도 경험하셨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라는 방식으로 말 나오는 거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운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검찰개혁만큼은 속도를 좀 올려 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이상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도 검찰특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되는 것 아니고 중수청에 대한 인사를 빠르게 단행

시켜야만 확실한 수사·기소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검찰개혁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한국 정치에 윤석열 등으로 대변되었던 정치검찰, 온갖 못된 짓을 해 왔던 그런 정치검찰류의 흐름이 정치권 내에 유입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우리가 늘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가,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도 그 검찰의 칼날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검찰개혁 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검찰총장 시켜 가지고 오히려 뒤통수 맞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검찰개혁이 실패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 서슬 퍼런 검찰 칼날 정치 보복하는 데 쓰지 말고 그런 것 끊어 내야 된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었거든요.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셔서 검찰의 칼날 이런 것 정치 보복과는 좀 거리를 두시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셔야 된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만큼은 확실하게 이루어 내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재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SKT 해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SKT는 사실 유심 바꿔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신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충 답 나오는 것 같아요. SK가 사고 쳤지만 이것 장기화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충 풀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도 했었습니다.

SKT의 약관에 보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 잘못 아니라고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보 관리 잘 안 해 가지고 해킹당했는데 그 해킹당한 게 우리의 잘못만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국에는 소송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 보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분명히 약관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서 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독점성 행위를 규제하는 때로부터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SKT 사건 같은 때에 그 약관에 기초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오전에 나왔습니다마는 플랫폼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배달앱에 있어서 원래 취지와 달리 픽업을 하는 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라든가 등등 이렇게 존재하는 약관들의 원래 취지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그쪽으로 이동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플랫폼 배달과 관련된 내용도 질문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자 권익 보호적 측면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하면 돼요.

사실 정부에서 이런 부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기업 죽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미국 좋아하시더만요. 미국에서 이런 일 일어나면 집단소송 일어나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거는 미국 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사상 검증할 게 아니고 이런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 그리고 집단소송이 가지고 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라면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책임 회피성 행동들은 못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용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이런 측면을 다 넘나들면서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없게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횡포가 없게끔 그것이 결국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부분들은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후보자에게 한 가지 좀 정리하기 위해 물어봐야 되겠네요.

선거비용으로 8000만 원 쓰셨다 그랬는데……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선거비용 8000만 원 썼다라기보다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억 8000 중에 1억여 원을 추정으로 갖고 8000……

○위원장 이종배 1억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추정으로 갖고 나머지는……

○위원장 이종배 8000만 원은 선거비용으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선거비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체 총액을 대출했던 것입니다.

실제 사용액은 선관위에 보고한 내용을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선거비용은 더 많겠지요, 그것보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제가 숫자를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종배 보전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보통 보전은 이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배 보전은 얼마나……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보전은 제가 선관위에 비용 보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아니, 아까 8000 썼다 그래 가지고 그것밖에 안 썼나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통상 선관위에 보고하고 쓸 수 있게 되는 비용을 다 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우리 지역도 한 1억 7000~8000 되는 것 같은데 지역구별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후보자님, 아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다 해서 의혹이 해소됐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머리가 나쁜 모양입니다.

10대 결격사유 의혹에 대해서 저는 단 한 가지도 해소가 안 됐다고 보고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이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난기금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떤 취지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재난기금을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각종 재난을 맞이할 때 그때그때 보통 예비비를 쓰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추경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있는 제도하에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퇴직연금이랑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을 설명을 드렸던 것은 그때 그 기금 논의를 하는 것을 예결위에서 지켜볼 때 일정하게 취지가 이해가 됩니다라는 답을 하면서도 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퇴직연금을 기금화하자고 아까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내용의 타당성이 상당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재부가 뭔가 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짚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배준영 위원** 기금화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십니까, 총리로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첫 제안을 듣고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더 조사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아까 가계부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글썄요, 그거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아까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부채 탕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데다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많고 주택에 관련된 전세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풀거나 그러면 이게 물가를 자극해서 소비가 더 어려워지고 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민생지원금을 더 늘리려고 국채를 찍어내게 되면 국채 값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자율을 높여 가지고 담보대출을 한 사람들을 결국은 더 어렵게 하고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정책이라는 건 항상 선의의 방향으로 정책을 썼을 때 기대하지 않던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면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신 것을, 저도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26~36%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는 대출을 갚거나 다 쟁이는 돈이고요.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고 이자율을 높여 가지고 결국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또 이번에 한 3조 원 정도는 지방에 떠넘긴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얘기만 했으니까 제가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밸런스 게임 아시지요, 밸런스 게임?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모릅니다.

○**배준영 위원** 1번 아니면 2번 고르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결식아동 27만 명에게 300일 동안 점심 제공을 하는 게 한 8000억 정도 들고 한쪽은 재벌 회장 등 소득 상위 10%에게 일시불 15만 원을 주는 이것도 한 8000억 정도 듭니다. 만약에 8000억이 있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느 쪽 쓰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무거운 질문 아니고 가벼운 질문을 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외람되지만 가볍게 한번 먼저 답을 드리고 한다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정책적인 어려움도 챙겨 봐라, 민생지원금 말씀하신 것은 총리를 시켜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배준영 위원**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1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밸런스 게임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금방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 쉬운 질문을 물어봐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그러면 2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번 질문은 무주택 청년 10만 명에게 월세 20만 원씩 3년 지원을 하겠느냐, 아니면 재벌 회장 등 소득 상위 10%한테 일시불 15만 원 지원하겠느냐? 1번 하시겠습니까, 2번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결정 못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1·2번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배준영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냥 게임으로 하라고 하시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1번을 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치매 어르신 3만 5000명 1년 동안 관리 비용 지원하는 데 한 분당 연간 관리 비용이 2112만 원 정도면 월 739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똑같습니다. 재벌 회장 등 소득 상위 10% 일시불 15만 원 지급 그러면 76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기왕 시작한 거니까 계속 1번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이 세수를 걷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의에 대한 질문을 듣지만 고르게 잘살게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약을 하고 이 돈 나눠 주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렇게, 차별을 둔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막 나눠 주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비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예산 살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재벌 회장 등 소득 상위 10%한테 일시불 15만 원 주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결정하고 저희 당에서는 이것에 이견을 내고 그러겠지만 이것은 너무 상식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일 총리가 되신다면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자면 국회증언감정법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표결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인천특위 위원님들도 공동발의자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 내용이 뭐냐 하면 자료 및 증인 출석 요구 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 불가, 전자 송달 및 화상회의 근거 마련 그리고 서류제출 방해 및 고의 은닉 등 처벌 강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처벌 수위도 세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 갖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 갖고 지금 다시 펜딩(pending)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리후보자가 되시고 만약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멤버가 된다 그러면 이걸 당정협의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번에 청문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아요. 후보자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 그 해당 법에 대해서?

○배준영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해당 법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깊이 검토해 보지 않아서 검토해 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배준영 위원 아니, 이게 전부 다 얘기한 겁니다. 자료 및 증인 출석 요구 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 불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류제출 방해 및 고의 은닉 등 처벌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실 걸로 당정협의를 하실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법이라는 것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충분히 검토가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어서 제가 숙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저도 간단히 여쭙어볼게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예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위원장 이종배 그 유예 기한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7월 8일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이종배 7월 8일.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면, 우리가 3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는 게 법정기한이니까 아마 그 이전에 임명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후보자가 총리 되시면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컨트롤하셔야 되겠는데.

먼저 대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미국의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라, 투자하라. 그다음에 수입, 수출의 차이가 많으니까 미국 것 수입을 좀 늘려라. 그다음에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한국 업체들이 참여하라.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방위비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일단 이 사안은 제가 총리가 된다고 해도 총리가 총괄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는 사안이고 대통령이 관련한 수석이라든가 장관들을 통괄해서 직접 국운을 걸고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G7, 나토에 다 적극적으로 임하셨던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네 가지 쟁점으로 대변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이 꼭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좀 다른 각도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미국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저희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도록 적극적으로 임한다 하는 자세를 취하고 또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미국 측과 나누고 미국으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양국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찾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또 강점이 많으니까 딱 이 4개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을 제시하면서 또 미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협상하면 우리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미국도 불리하지 않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협상을 맺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 채현일 위원님께서 제가 썼다고 제시하신 ‘3승’이라는 책이 10여 년 전에 쓴 책인데 그때 제가 우리가 미국에 땅을 사서 미국 농장을 활용하는

방식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전향적 사고로 한미관계 여러 경제적인 사안도 풀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협상의 해결을, 제기된 문제를 푸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한미 간 더 큰 틀에서의 큰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하신다 하더라도 내각 총괄, 관할하시는 분은 총리 아니겠어요, 일차적으로?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워서 내각을 잘 이끌어 주셔야 될 것으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깊이 연구해서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종배 위원님께도 또 지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선 기간에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아니고 옮길 수 있도록 세종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등을 임기 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위원장 이종배** 그렇게는 나중에 하셨고 경선 기간 4월 17일에 발표하신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을 완전히 옮기는 데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겠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위원님께서 그런 기록을 갖고 계시면 아마 그 문언에 맞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게 증거가 되는 게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바로 4월 달에 아파트 거래량이—1월 달에 300건 정도 되는데—1400건이 넘어섰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세종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종배** 세종시.

또 아파트 값도 1월 달에 0.08%인데 4월 달에 0.49%로 급등을 한 것만 봐도 그렇게 옮기겠다 하는 데 상당히 강한 방점이 찍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TV 토론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발짝 물러서셨는데 그 이후로 5월 말경에는 청와대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아서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6월 달에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로 옮기는 예비비를, 259억 예비비를 의결을 하다 보니까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값 변동률이 확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거기다가 또 해수부까지 이전한다고 하니까 충청권에서는 이게 세종시가 이렇게 완성되는 줄 알았는데 해수부도 옮기면 다른 부처도 또 어디 연고 있어 가지고 옮기자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세종시 완성은커녕 세종시 지금 있는 것마저도 부서

질 상황 아니겠느냐 이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황운하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확실하게 좀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부분은 제가 비교적 직접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실제로 선거 기간 중에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는 제가 그 현장을 그때그때 가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용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것 형식을 너무 따지지 않고 용산에 들어가서 일단 업무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청와대를 복원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하였고 그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적어도 임기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완성해서 최소한 다음 정부 정도에는 옮겨 갈 수 있는 전제는 만들어 놓자. 물론 그 전제는 헌법 또는 법률 그리고 그것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합의 등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왜냐하면 그전에 관습헌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고.

해수부와 관련한 공약을 할 때에도 이것은 부산에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이러저러한 정부 부처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해수부만은 그리고 해수부에 국한해서 그것은 부산으로 확실하게 옮기도록 하자라는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만약 해수부를 옮기게 되면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세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도 확실하게 표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간사님들 4차 보충질의 필요하신지……

○김현 위원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배준영 위원 저는 한 30초 정도만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현 위원 30초를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1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또 다른 위원님들…… 잠깐만요.

여기는 안 하시는 걸로 하고?

○김현 위원 아니요. 30초 하면 저는 1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하잖아요.

○배준영 위원 1분 정도만 할게요. 제가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저도 2분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2분 하세요, 저 1분 할게요.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간사님들만 3분 내에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오늘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아까 주진우 위원님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리후보자님이 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든지 하는 것은 제가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침부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제출에 대한 요청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여전히 제출받기를 요청을 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도 오고 수시로 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내일까지 하고 그러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현 간사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 위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앞서 NHK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술집 아가씨들을 끼고 술에 취한 채 흐느적거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임수경 씨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웃느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느라고 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며칠 뒤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술한 고초를 겪었지만 당시에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대표해서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가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한 23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되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강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술한 의혹 제기가 유튜브나 SNS나 커뮤니티에서나 극우 매체에서 매우 많았고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 미디어특위에 서도 가짜뉴스를 생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연장선에서 후보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심한 분노를 표하고 적어도 내일 이틀째 청문회에서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일도 오늘과 유사한 인사청문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람쥐 쳇바퀴가 계속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배준영 위원님, 어떤 게 부적절한지는 좀 말씀을 주셔야 후보자께서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위원장 이종배 따로 얘기하시지요.

○전용기 위원 따로 말씀 주셔도……

○위원장 이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금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박균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위원장이 간혹 큰소리로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보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곽규택 김 현 김희정 박균택 박선원 배준영 오기형 이종배 전용기 주진우
채현일 한정애 황운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출석 공직후보자

김민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정운영실장 김영수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경제조정실장 김용수

국제개발협력본부

본부장 박진호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박용우

민정민원비서관 손진욱